

연구용역보고서

2020년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2020. 11.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0년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홍중

연구진

<저자>

권율, 이주영, 유애라 이상미

<연구책임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 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영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애라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상미 전문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조사범위와 대상	2
3. 기대효과	3
제2장 ODA 전문가조사 방법 및 설계	4
1. 전문가조사 개요	4
2. 조사내용 및 문항 설계	7
3. 조사방법	11
제3장 ODA 전문가 만족도조사 주요 결과 분석	13
1. 2020년 전문가 만족도 종합 점수	13
2.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	16
가. 국정과제 인지도	16
나.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인지도	18
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에 관한 인지도	21
라.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 인지도	23
마. 내년도 ODA 예산규모 확대 인지도	25
3.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과제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27
가. 항목별 만족도	27
나. 체감 만족도	40
제4장 ODA 전문가 인식조사 주요 결과 분석	47
1. ODA에 대한 기초 인식	47
2. 정부의 ODA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47
가.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47
나. 적정대외원조 규모	49
다. ODA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54
라. 개발도상국 지원에 큰 성과가 기대되는 기관	56

3. 정부의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인식	58
가.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	58
나. ODA 정책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타 정책분야	60
4.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인식	62
가.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시급한 개선과제	64
나. 평가대상 선정의 객관성	66
다. 기초선조사 및 모니터링	68
마. 평가결과의 환류	75
제5장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와 향후 추진방향	79
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여	79
2. 대외정책과 연계한 정책 시너지 제고	80
3. 글로벌 파트너십과 민관협력 강화	81
4. 통합적 ODA 추진체제와 성과관리	82
5. 포스트 코로나 개발협력 과제	84
제6장 정책적 시사점	86
1. 국정과제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인지도 증가	86
2. ODA 전문가 만족도 증가	87
3.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주요 정책과제	89
4. ODA 사업의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개선과제	91
참고문헌	93
부 록	94

표 목 차

표 2-1. 조사 개요	4
표 2-2. 응답자 특성	6
표 2-3. 2020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주요내용	10
표 2-4.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비교 결과	12
표 3-1. 2020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100점 환산 점수	13
표 3-2. ODA 전문가 만족도 점수 요약 및 2017~2020 비교	14
표 3-3. ODA 전문가 종합 만족도 점수 요약 및 비교	15
표 3-4.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인지 정도	17
표 3-5.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인지 정도	20
표 3-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사항’ 인지 정도	22
표 3-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년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관련 인지도	24
표 3-8. 정부의 내년 ODA 예산 확대에 대한 인지 정도	26
표 3-9. 항목 1 : SDGs 달성을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전략에 따른 ODA 제공	29
표 3-10. 항목 2 : ODA 정책시너지 효과 제고	31
표 3-11. 항목 3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33
표 3-12. 항목 4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35
표 3-13. 항목 5 : 정보공유 및 조정기능 강화	37
표 3-14. 항목 6 : 사업 관리 절차 체계화	39
표 3-15.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과정 만족도	42
표 3-16.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결과 만족도	44
표 3-17.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전년 대비 만족도	46
표 4-1.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원국 도움 정도	49
표 4-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적정 규모	51
표 4-3. 향후 2021년 기준 적절한 대외원조 규모	53
표 4-4. ODA 사업과 관련 중요한 정보(1+2순위)	55
표 4-5.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율적 수행 기관	57
표 4-6. ODA 정책 개선과제	59
표 4-7. 원조 외 개발도상국 지원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정책	62
표 4-8. 성과 관리 평가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특성	63
표 4-9. 국내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평가 시 개선과제(1+2순위)	65

표 4-10. 국내 ODA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시 평가대상 선정의 객관성	67
표 4-11. 국내 ODA 시행기관이 ODA 사업 시 기초선조사의 충분성	69
표 4-12. 국내 ODA 시행기관의 기초선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70
표 4-13. 국내 ODA 시행기관이 ODA 사업 시 모니터링의 충분성	73
표 4-14. 국내 ODA 시행기관의 ODA사업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74
표 4-15. 국내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제언이 충분히 환류되는 정도	76
표 4-16. 국내 ODA 시행기관 자체평가 제언의 환류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77

그림목차

그림 2-1. 국제개발협력분야 업무/연구 수행기간	5
그림 2-2. 국제개발협력분야 업무/연구 참여 유형	5
그림 2-3.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조사 문항 수정 ...	8
그림 2-4. 국제개발협력 정책평가에 대한 단계별 만족도 조사 문항	8
그림 2-5. 국제개발협력 인식조사 주요 문항	9
그림 2-6. 전문가 만족도 모형 설계 비교	11
그림 3-1.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내용 인지 정도	16
그림 3-2.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인지 정도	18
그림 3-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사항’ 인지 정도	21
그림 3-4.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년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에 대한 인지 정도	23
그림 3-5. 정부의 내년 ODA 예산 확대에 대한 인지 정도	25
그림 3-6. ODA 전문가 항목별 만족도	27
그림 3-7. 항목 1 : SDGs 달성을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전략에 따른 ODA 제공	28
그림 3-8. 항목 2 : ODA 정책시너지 효과 제고	30
그림 3-9. 항목 3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32
그림 3-10. 항목 4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34
그림 3-11. 항목 5 : 정보공유 및 조정기능 강화	36
그림 3-12. 항목 6 : 사업 관리 절차 체계화	38
그림 3-13.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40
그림 3-14.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과정 만족도	41
그림 3-15.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결과 만족도	43
그림 3-16.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전년 대비 만족도	45
그림 4-1.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47
그림 4-2. 적정대외원조 규모	50
그림 4-3. 적정 대외원조 규모	52
그림 4-4. ODA 사업과 관련 중요한 정보	54
그림 4-5. 국제개발협력사업 효율적 수행 기관	56
그림 4-6. ODA 정책 개선과제	58
그림 4-7. ODA 정책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타 정책 분야	60
그림 4-8.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시급한 개선과제	64

그림 4-9. 평가대상 선정 객관성	66
그림 4-10. 기초선조사 실시	68
그림 4-11. 모니터링 실시	71
그림 4-12. 평가결과의 환류	75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에 대한 성과지표로 매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 및 ODA 시행기관의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ODA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0년 국정과제와 ODA 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추진하였다.

2020년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ODA 추진체제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5)과 중점협력국 재선정을 통해 전략적 ODA 추진체제와 통합·조정 기능을 재편하는 등 국제사회의 중견공여국으로서 ODA 정책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인 ODA의 체계성·통합성·효율성에 대한 전문가의 만족도조사를 추진하고, 2020년 추진된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토대로 정책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ODA 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2020년 추진된 정부업무의 추진노력과 정책성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과 만족도를 종합하여 ODA 정책과제와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은 물론 국정과제와 연계한 ODA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ODA 예산의 증가와 함께 정부 내 다양한 부처가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통합적·체계적·효율적 추진체계가 필요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OECD/DAC 가입 이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여 대외원조 규모는 2010년 1조 3,487억 원에서 2021년 4조 793억 원(요구액 기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예산요구액 기준으로 총 42개 기관이 1,66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2020년 1,551개 대비 사업건수도 7% 증가함에 따라 ODA의 체계성·통합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지난 7월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및 디지털·그린 뉴딜 ODA 추진을 위한 국정과제와의 연계

성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ODA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협력 정책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ODA 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사업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원조정책과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ODA 사업의 체계성·통합성·효율성을 검토하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범위와 대상

ODA 전문가 만족도는 국무조정실 자체평가 성과지표로서 정책품질 및 성과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조사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지표인 전문가만족도는 기존의 ODA 전문가 만족도 모형을 준용하여 조사하되 2020년에 추진된 ODA 정책방향과 주요 성과에 대한 인지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추가하고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관관리 및 평가에 대한 조사항목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의 안정성과 유효화된 표본이 추출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전문가를 918명으로 확대하고 404명의 유효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방법 설계와 구조화된 설문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1년 설계한 ODA 국민인식조사 방법론과 조사모형을 토대로 하였다. 특히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금년 7월 출범하였지만, ODA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진이 국조실 정책연구과제로 2012년부터 국민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한 바 있기 때문에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과 조사설계경험을 바탕으로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모형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전문가 만족도조사에 적정한 설문지 작성, 조사방법 설계를 새롭게 재편하였다.

특히 2019년 수행된 전문가 만족도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국정과제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정책품질 및 성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조사지 설계 및 문항조정을 하고, 사전에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문항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품질제고를 위해 설문조사 실시위탁기관이 과학적 표본추출 절차를 준수하고,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통제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ODA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과 체계성·통합성·효율성과 연관된 ODA 성과항목에 대해 7점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 비중을 파악하고, 종합 결과는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전년도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전문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응답자의 소속기관 및 종사기간 등 경력에 따른 요인 등을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OD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ODA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대내외 개발협력 환경을 반영하여 시의성 높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ODA 사업추진 개선방향에 대해 전문가인식도 및 설문조항을 추가 보완하여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3. 기대효과

ODA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를 통해 ODA 정책의 선진화와 사업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우선 원조정책의 우선순위, 원조 규모 확대, 지원 분야 및 지역에 대한 정책방향 정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ODA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원조정책의 수립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참여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ODA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결과를 기존의 평가와 비교·분석하여 인식의 변화와 요인, ODA 중점 추진방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집단의 ODA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강화할 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ODA 주요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심층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ODA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응답추이와 인식변화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ODA 정책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 ODA 전문가조사 방법 및 설계

1. 전문가조사 개요

2020년 ODA 전문가조사는 국제개발협력 업무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지난 1년간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 개발협력 정책이 수행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 총 9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중 유효표본 기준 최종 응답자 수는 404명이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online survey)이다. 기존에 실시된 전문가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문서에 대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조사를 설계하고, 금년도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 이행성과 평가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시의성이 높은 설문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온라인 조사 실시 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3주간 조사를 진행하였다([표 2-1] 참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ODA 개선방향 및 정책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3분기 신규 국정과제로 포함된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2-1. 조사 개요

구분	분류	내용
예비조사	조사 대상	국제개발협력 및 설문조사 전문가 8인
	조사 방법	설문지 검토 및 자문
	조사 기간	5일 (2020. 9. 24~ 9. 28.)
	조사 항목	• 설문 문항의 적정성 검토 및 추가 제안항목
본조사	조사 대상	ODA 전문가 918명 (응답자 유효표본 기준 404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3주 (2020. 10. 7. ~ 2020. 10. 27.)
	조사 항목	• 국제개발협력 정책평가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인식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심층면접	조사 대상	ODA 분야별, 종사 유형별 전문가 6인
	조사 방법	심층면접조사

구분	분류	내용
조사	조사 일시	2020. 11. 4.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정과제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 코로나 이후 ODA 정책의 방향과 과제

응답자 표본은 기존의 ODA 전문가 조사 풀을 활용하되 종사 분야 및 기간별, 소속기관별 최소 응답자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의 응답 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계상 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2019년 조사 풀은 보건의료, 과학기술/ICT 분야가 과소 배정되어 있고, 경제 및 무역통상, 금융 산업 분야 전문가는 누락되어 있어 일부 응답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¹⁾ 본 설문 조사 대상 응답자의 종사 분야는 교육(15.8%), 농림수산(13.9%), 공공행정(11.4%), 보건의료(9.7%) 등 주요 분야 외에도, 물공급 및 위생,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및 IT, 금융·회계, 산업, 관광, 환경 및 기후변화 등 전문적인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추출 방식을 채택하였다.

개발협력분야 종사 기간이 1년 미만인 그룹은 전체 응답자의 10.4%, 1년 이상~5년 미만은 38.6%,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0%, 10년 이상은 30.9%를 차지한다. 현재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80.2%, 과거에 수행한 적 있는 응답자는 19.8%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이 주로 참여한 개발협력분야 업무의 유형은 사업수행 및 관리업무(45.0%)이고, 그 외에도 정책 수립 및 자문(13.6%), 사업기획(13.4%), 모니터링 및 평가(12.6%), 연구(5.9%), 교육훈련(3.7%) 등의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국제개발협력분야
업무/연구 수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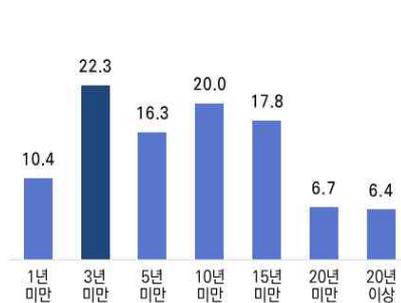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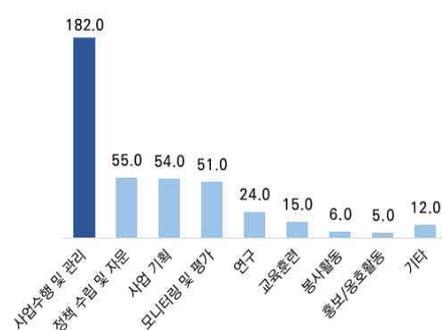


그림 2-2. 국제개발협력분야
업무/연구 참여 유형



1) 2019년 조사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우리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은 분야별 응답자 수에 따른 응답편의가 발생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공공부문(43.1%), 연구부문(27.5%), 민간부문(26.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정부부처(21.0%), 공공기관(20.5%), 대학(18.5%), 시민단체(17.3%), 연구기관(9.2%)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ODA 전문가 그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소속기관 세부 유형별 응답자 수는 정부부처 85명, 공공기관 83명, 대학 74명, 시민단체 70명, 연구기관 37명,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명, 민간 전문기관(병원, 법무법인 등) 7명, 국제기구 6명, 기타 13명이다. 응답자 특성은 [표 2-2]와 같다.

표 2-2. 응답자 특성

전체, N=404, 단위: 명, %

전체		(404)	100.0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43.1
	연구부문	(111)	27.5
	민간부문	(106)	26.2
	기타	(13)	3.2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21.0
	공공기관	(83)	20.5
	국제기구	(6)	1.5
	대학	(74)	18.3
	연구기관	(37)	9.2
	시민단체	(70)	17.3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7.2
	민간 전문기관	(7)	1.7
	기타	(13)	3.2
	종사 분야	교육	(64)
보건의료		(39)	9.7
물공급 및 위생		(11)	2.7
공공행정/거버넌스		(46)	11.4
교통인프라(도로, 철도 등)		(10)	2.5
에너지		(3)	0.7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5.9
금융 및 회계		(10)	2.5
농림수산		(56)	13.9
산업		(16)	4.0
관광		(3)	0.7
환경 및 기후변화		(12)	3.0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20.3
기타		(28)	6.9
종사 기간	1년 미만	(42)	10.4
	3년 미만	(90)	22.3
	5년 미만	(66)	16.3
	10년 미만	(81)	20.0
	15년 미만	(72)	17.8
	20년 미만	(27)	6.7
	20년 이상	(26)	6.4
성별	남성	(235)	58.2
	여성	(169)	41.8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39)	34.4
	석사 졸업	(126)	31.2
	박사 졸업	(139)	34.4

2. 조사내용 및 문항 설계

전문가 만족도 조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국제개발협력 정책평가에 대한 부분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부분이다. 이외에는 응답자의 업무경험과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정책평가의 내용은 행정연구원이 2017년 설계한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모형의 큰 틀을 유지하여 조사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 만족도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단, ODA 정책 인지도에 관한 문항이 과거에는 단순히 ‘국정과제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묻는 단일 질문이었다. 그러나 2020년 조사는 현 정부의 ODA 정책을 ① 국정과제 내용, ② 2020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③ 기본법 개정, ④ 코로나 대응, ⑤ 내년도 ODA 예산규모 확대 정책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인지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와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는 과거 전문가 만족도 조사에서 제시한 <그림 2-3>의 분석항목을 참고하여 조사결과의 추이 비교가 필요한 문항을 선별하고, 정책 부합성이 높은 문항으로 재조정하였다. 문항간 상호 연관성이 높은 항목은 삭제하였는데, 예를 들어 기존 통합성 항목 4) ‘유무상 연계 등 사업간 연계 활성화’와 효율성 항목 9) ‘유사 중복사업 조정 노력’ 항목이 해당된다. 이 두 항목은 사업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사업 통합 및 조정체계 강화 등 통합적 ODA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한 항목(신규 항목 5)으로 조정하였다. 동 항목은 정부가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상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어,²⁾ 올 한해의 국정과제 이행성과를 평가하기에도 시의성이 높은 평가지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체계성 항목 3) ‘ODA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 체계화’에 대해서는 문항 설계 단계에서 실시한 ODA 전문가 예비조사 결과, 정책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설문에서는 운영차원의 효율화 항목으로 문항을 이동하고,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ODA 사업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였는지에 대한 항목(신규 항목 6)으로 조정하였다. 최종 수정된

2) 관계부처 합동.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제3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 34-1호), pp.17-18.

정책과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질문은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조사 문항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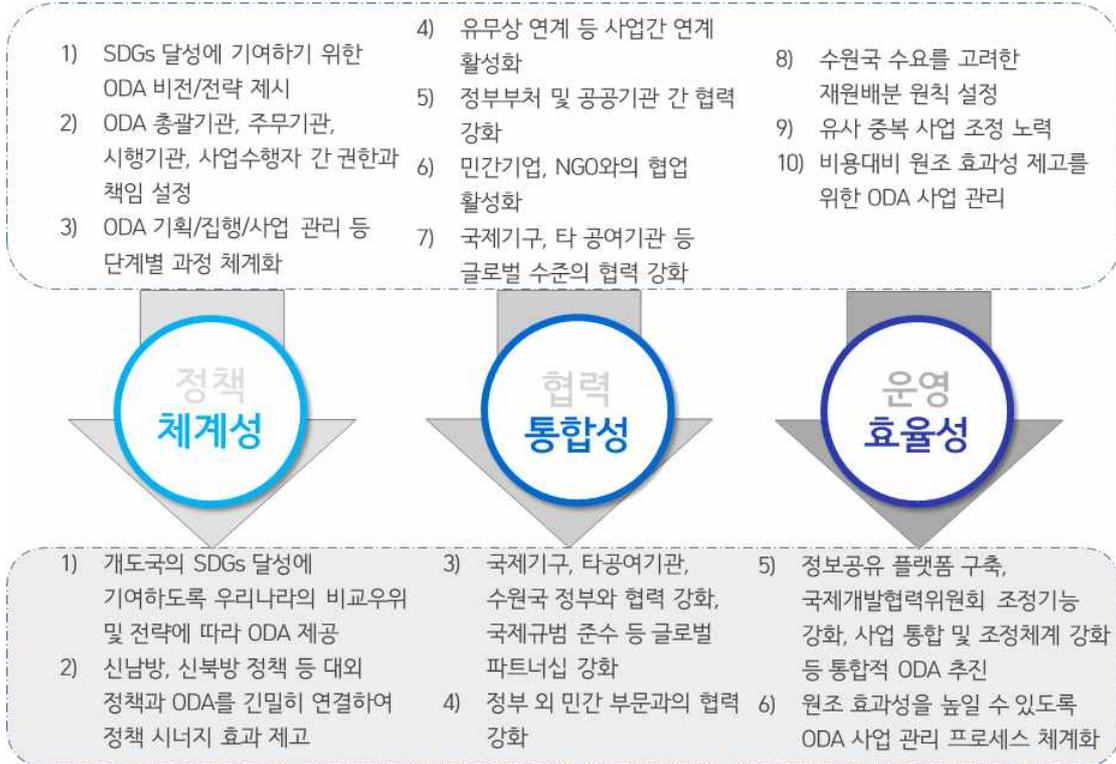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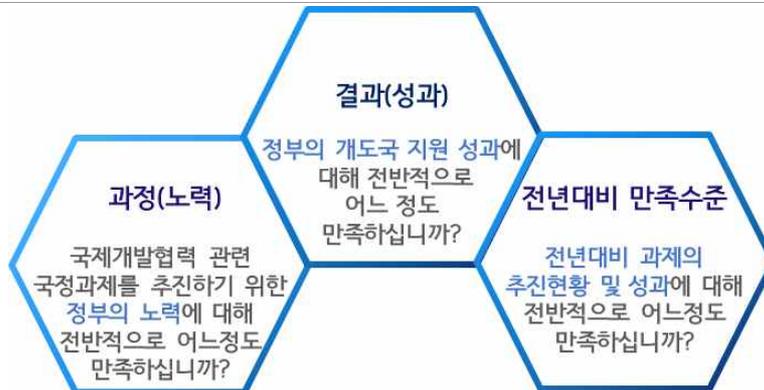


그림 2-4. 국제개발협력 정책평가에 대한 단계별 만족도 조사 문항

현 정부의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개발원조’와 관련, 금년도 국제개발협력 추진 상황에 대한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개발협력정책 단계별 만족도는 <그림 2-4>에 제시한 것과 같이 기존 문항을 유지하여 정부의 노력(과정), 개도국 지원 성과(결과), 전년대비 만족수준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질문의 세부 내용에 국정과제와 관련한 금년도 국제개발협력 추진상황에 대한 단계별 만족도임을 명시함으로써 이번 조사가 확인하고자하는 정책 범위와 만족도조사 평가대상 기간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고자 했다.

둘째, ODA 전문가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조사는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설계한 인식조사의 주요 내용이 이후 전문가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온 바,³⁾ 본 연구에 이를 토대로 문항조정 및 보완에 활용하였다. ODA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ODA 적정 규모 및 확대/축소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ODA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였다.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를 묻고, 원조정책 이외에 개도국 지원과 SDGs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무엇인지, 국내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 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특히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문항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20년과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상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10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그림 2-5 참고).

그림 2-5. 국제개발협력 인식조사 주요 문항

ODA 정책 우선순위·활동에 대한 인식	ODA 정책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 ODA 적정 규모 및 확대/축소 이유 • ODA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 원조정책 이외에 개도국 지원과 SDGs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국내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 시 개선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략, 계획수립 기능 강화 ② 사전조사 혹은 사전평가 강화 ③ ODA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강화 ④ ODA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⑤ ODA 정책의 투명성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⑥ ODA 관련 전문인력 육성 ⑦ 통합적 원조 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⑧ 민간부문 참여 제고 ⑨ 개발협력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⑩ 현장중심의 원조사업 추진

3) 권율·박수경·이주영(2011),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및 국제비교』, ODA 정책연구 11-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수탁연구과제로 권율·이주영(2012),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가 수행되었음.

2020년 전문가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은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강화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으며, 2020년 5월 개정, 11월 시행 예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평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다⁴⁾.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는 ODA 전문가 중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평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ODA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선정, 기초선 조사, 모니터링, 평가 제언의 환류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 개선과제를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국제개발협력 종사 경험과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했으며, 종사 업무 유형과 현재 종사여부 등 세부 항목들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이 외에 설문 문항 전반적으로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개방형 문항을 다수 추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2020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의 주요 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2020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주요내용

구분	내용
국제개발협력 정책평가	현 정부 ODA 국정과제/시행계획/기본법개정/코로나대응/ODA 규모확대 인지도
	현 정부 ODA 관련 과제 추진 상황(6개 항목) 인지도
	현 정부 ODA 관련 과제 추진 상황(노력/성과/전년대비) 만족도
	국정과제 관련 ODA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ODA의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 기여도
	ODA의 적정규모 및 확대·축소 의향 이유
	ODA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
	ODA 주요 정책 개선과제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 인식	원조 정책 이외에 개도국 지원과 SDGs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평가대상 선정의 객관성
	ODA 사업 시 기초선조사의 충분성
	ODA 사업 시 모니터링의 충분성
	자체평가 제언의 환류 수준
ODA 종사경험/인구통계학적 정보	국내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평가 시 개선과제
	응답자 ODA 종사경험 및 유형
	응답자 소속기관 유형
	응답자 ODA 종사기간
	응답자 ODA 종사 분야
	응답자 성별, 연령, 최종학력

4)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법률 제17302호 (검색일: 2020. 11. 3).

3. 조사방법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3년간 실시된 ODA 분야 전문가 인식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항목별 적정 가중치 조정 여부를 검토하였다. 선행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전문가 만족도 조사는 2017년 정부 업무평가를 바탕으로 설계한 이후 2년간 조사 모형을 유지해오다가 2019년부터 세부 가중치를 수정하였다. 기존 항목별 만족도와 체감 만족도 비율은 50:50이었으나, 정부의 과거 정책만족도 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2019년에는 70:30으로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행정연구원(2019)이 제시한 과거 정책만족도 조사 사례가 2005년, 2007년, 2012년 일부 조사의 사례⁵⁾에 국한되어 있고, 단년도 조사방법의 변화는 인식변화 추이를 확인하는데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기존의 균등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6. 전문가 만족도 모형 설계 비교



세부 항목 만족도의 경우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의 중요도 역시 2017, 2018년 균등 배분방식을 유지하다가, 2019년 전문가 조사에서 적정 비중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34.5: 32.2: 33.3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19년 ODA 전문가 조사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64.1점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도와 가중치 부여 기준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표 2-4 참고).

게다가 기존의 항목 만족도 조사 문항은 세부 항목간 상호 연계성이 있고,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요도 평가가 어렵다는 다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사에서는 2017년의 조사 방식인 균등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 만족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조사 방식은 다음과 같다.

5) 항목 및 체감 만족도 반영비율의 70:30 적용 사례는 2005 주요정책만족도 조사(국무조정실, 한국행정연구원), 2007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국무총리실, 한국행정연구원), 201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만족도 조사방법 개선방안 연구(국민권익위원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임.

$$\text{전문가 만족도 점수} = (\text{항목 만족도} \times 0.5) + (\text{체감 만족도} \times 0.5)$$

$$\text{항목 만족도} = \sum(\text{하위 항목 만족도 점수}) \times 1/6$$

$$\text{체감 만족도} = \sum(\text{하위 체감 만족도 점수}) \times 1/3$$

표 2-4.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비교 결과

연도	총점	균등	차등	항목만족도			체감 만족도		
		가중치 (1)	가중치 (2)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	과정 만족도	결과 만족도	전년대비 만족도
2017(1)	62.2	62.1	61.9	62.2	61.9	60.2	61.7	60.3	66.7
2018(1)	63.0	63.0	63.5	65.5	65.0	62.2	61.9	60.2	63.4
2019(2)	64.1	63.5	64.1	67.1	64.6	62.8	62.0	61.0	63.9

자료: 총점 파트는 김은주 외. 2019. 『2019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연구』. p.13. 발췌; 균
등가중치(1) 및 차등가중치(2)로 조정된 값은 저자 계산.

제3장 ODA 전문가 만족도조사 주요 결과 분석

1. 2020년 전문가 만족도 종합 점수

ODA 전문가의 만족도 종합 점수는 68.4점으로 산출되었다. 2020년 국제개발협력 주요 추진과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체계성 만족도는 72.6점, 통합성 만족도는 70.8점, 효율성 만족도는 68.4점이다. 체감 만족도는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66.7점,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66.8점이었으며, 전년 대비 만족도는 65.3점으로 집계되었다(표 3-1).

표 3-1. 2020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100점 환산 점수

항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정책) 체계성		(협력) 통합성		(운영) 효율성		과정 만족도	결과 만족도	전년 대비 만족도
전략	정책 일관성	글로벌 파트너십	민간부문 협력	조정기능 강화	사업관리 체계화			
72.3	73.0	72.4	69.3	68.9	67.9			
72.6		70.8		68.4		66.7	66.8	65.3
총점								
68.5 점								

ODA 전문가 만족도 종합 점수는 전년대비 4.9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연도별 개발협력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항목만족도의 세부 문항을 조정하였다. 조사 문항의 변화로 전년대비 항목 만족도 결과의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는 전제 하에, 현 정부가 2017년부터 수행한 개발협력 국정과제 만족도 점수의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통합성에 대한 항목만족도와 결과에 대한 체감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 2019년 체계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입법이 지연되면서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지적⁶⁾되었던 개발협력 관련 국정운영 과제가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운영성과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6)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20. 20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과제별 보고서. p.193.

표 3-2. ODA 전문가 만족도 점수 요약 및 2017~2020 비교

단위: 점

조사 항목		100점 평균				
		2017	2018	2019 (B)	2020 (A)	전년 대비 (A-B)
항목 만족도	체계성	62.2	65.5	67.1	72.6	5.5
	통합성	61.9	65.0	64.6	70.8	6.2
	효율성	60.2	62.2	62.8	68.4	5.6
체감 만족도	과정 만족도	61.7	61.9	62.0	66.7	4.7
	결과 만족도	60.3	60.2	61.0	66.8	5.8
	전년 대비 만족도	66.7 ¹⁾	63.4	63.9	65.3	1.5
종합 만족도		62.2	63.0	63.6 ²⁾	68.5	4.9

주 1)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임기1년차로, 전년대비 만족도 대신 ‘국정과제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함.

주 2) 종합 만족도 산출 시 2017, 2018년은 항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산출시 5:5의 비중으로 점수를 산출하였으나, 2019년에는 7:3으로 조정함. 본 연구에서는 임기 1년~4년차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각년도 5:5의 동일 가중치를 적용함.

2020년의 ODA 전문가 종합 만족도 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응답자 유형은 소속기관 중 공공부문(8.7점)이다. 종사 기간에 따르면, 20년 이상 종사한 응답자의 종합 만족도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7.8점), 3년 미만(6.3점)과 5년 이상~10년 미만(4.9점) 응답자 그룹도 만족도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응답자 성별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종합 만족도 점수가 유사하게 증가하였으며, 학력별로는 박사 졸업 응답자의 만족도 점수가 전년 대비 6점 향상되었고, 대졸 이하 응답자 만족도는 2점 감소하였다.

표 3-3. ODA 전문가 종합 만족도 점수 요약 및 비교

단위: 점

구 분	항목 만족도 ¹⁾			체감 만족도			종합 만족도			
	2019 (B)	2020 (A)	전년 대비 (A-B)	2019 (B)	2020 (A)	전년 대비 (A-B)	2019 (B)	2020 (A)	전년 대비 (A-B)	
전체	64.9	70.6	5.7	62.4	66.3	3.9	64.1	68.5	4.4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61.9	69.3	7.4	60.1	71.0	10.9	61.4	70.1	8.7
	연구부문	71.3	75.9	4.6	67.9	65.0	-2.9	70.3	70.4	0.1
	민간부문	61.1	64.2	3.1	58.6	60.7	2.1	60.3	62.5	2.2
	기타	69.9	64.1	-5.8	66.1	60.1	-6.0	68.8	62.1	-6.7
종사 기간	3년 미만 ²⁾	65.7	73.8	8.1	64.7	69.7	5.0	65.4	71.7	6.3
	5년 미만	67.7	71.3	3.6	65.6	65.9	0.3	67.1	68.6	1.5
	10년 미만	63.9	69.3	5.4	60.4	66.1	5.7	62.8	67.7	4.9
	15년 미만	63.6	65.8	2.2	62.7	59.9	-2.8	63.3	62.9	-0.4
	20년 미만	62.0	67.8	5.8	58.0	63.1	5.1	60.8	65.5	4.7
	20년 이상	66.1	73.3	7.2	60.8	71.4	10.6	64.5	72.3	7.8
성별	남성	66.3	71.7	5.4	63.1	67.6	4.5	65.3	69.7	4.4
	여성	62.8	69.1	6.3	61.2	64.4	3.2	62.3	66.8	4.5
최종 학력	대졸 이하	70.1	69.3	-0.8	68.3	65.7	-2.6	69.5	67.5	-2.0
	석사 졸업	65.4	71.2	5.8	62.0	67.0	5.0	64.4	69.1	4.7
	박사 졸업	63.5	71.4	7.9	61.2	66.2	5.0	62.8	68.8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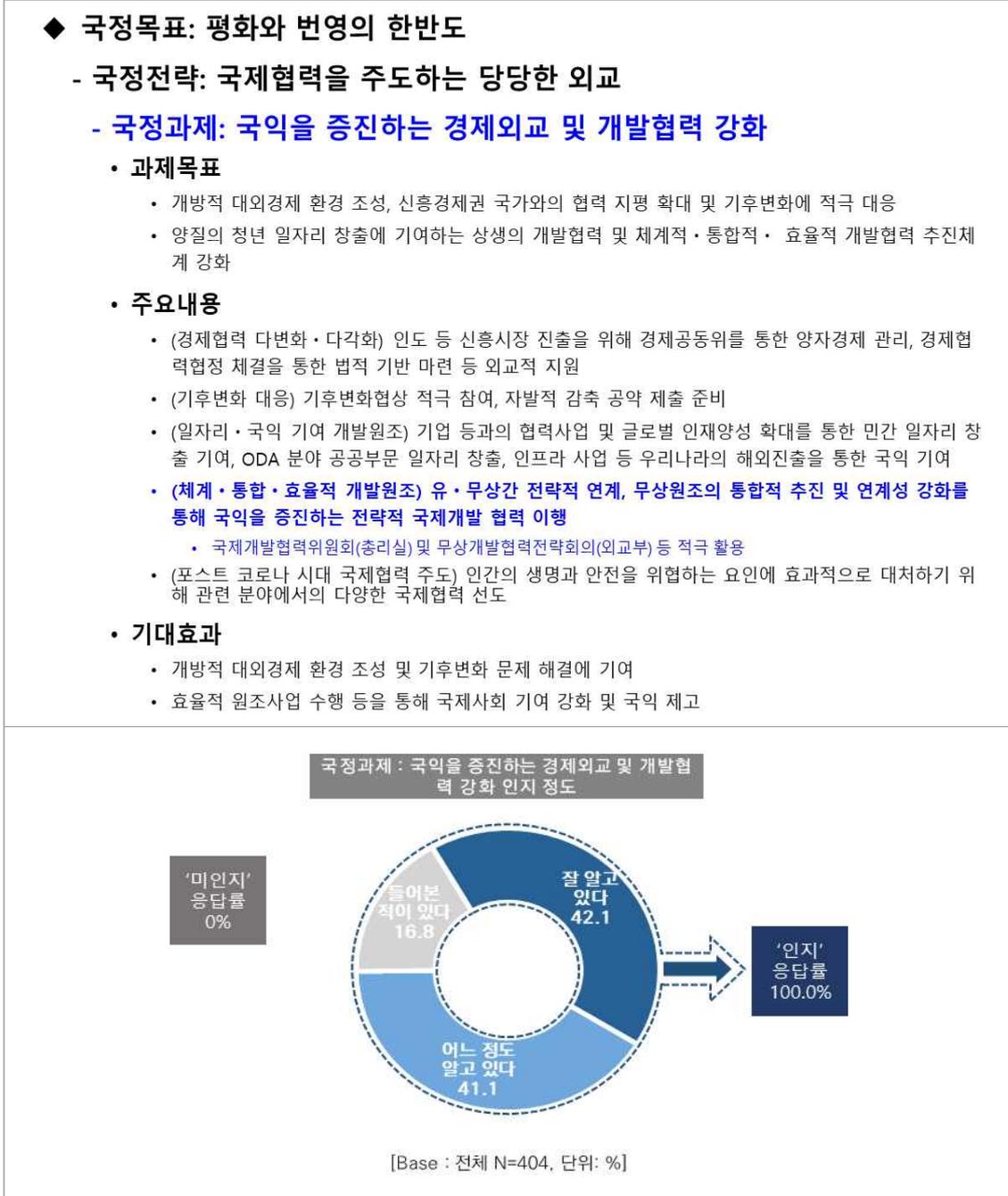
주: 1) 2019년 조사에서는 항목별 가중치 계산을 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단순 평균으로 점수 계산

2) 2020년 조사의 경우 ‘3년 미만’ 구간을 ‘1년 미만’ 과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으로 나누어 집계함, 19년도 점수와 비교를 위해 2020년 ‘3년 미만’ 점수는 ‘1년 미만’ 과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을 합쳐 따로 점수를 구함

2.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

가. 국정과제 인지도

그림 3-1.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내용 인지 정도



ODA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국정과제인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개발원조’에 대한 인지 정도를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42.1%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1.1%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6.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았을 때 국정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난 기관은 연구부문(48.6%)과 공공부문(46.6%)이다. 소속기관 세부 유형 중에서는 공공기관(54.2%), 대학(50.0%), 연구기관(45.9%) 순으로 ODA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20년 이상 경력(74.1%), 남성(47.4%), 박사 졸업(53.9%) 학력의 응답자에서 ODA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표 3-4.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인지 정도

전체, N=404,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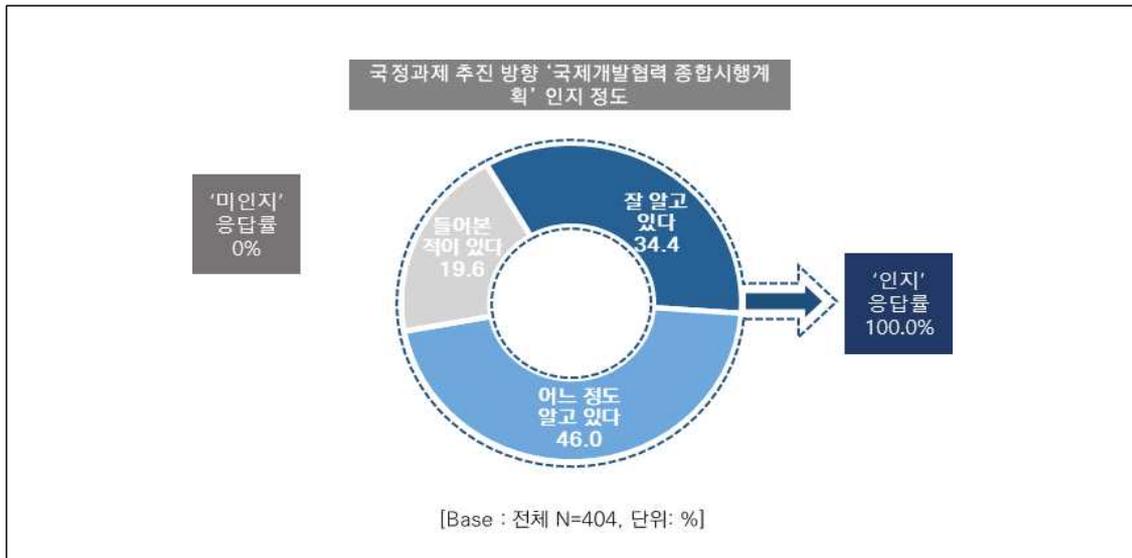
구 분	전 체	처음 들어 봄	들어본 적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비인지	인지
전체	(404)	-	16.8	41.1	42.1	-	100.0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	16.7	36.8	46.6	100.0
	연구부문	(111)	-	8.1	43.2	48.6	100.0
	민간부문	(106)	-	23.6	45.3	31.1	100.0
	기타	(13)	-	38.5	46.2	15.4	100.0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	18.8	41.2	40.0	100.0
	공공기관	(83)	-	10.8	34.9	54.2	100.0
	국제기구	(6)	-	66.7	0.0	33.3	100.0
	대학	(74)	-	9.5	40.5	50.0	100.0
	국책 연구기관	(37)	-	5.4	48.6	45.9	100.0
	시민단체	(70)	-	24.3	48.6	27.1	100.0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	20.7	37.9	41.4	100.0
	민간 전문기관	(7)	-	28.6	42.9	28.6	100.0
기타	(13)	-	38.5	46.2	15.4	100.0	
중사 분야	교육	(64)	-	23.4	39.1	37.5	100.0
	보건의료	(39)	-	30.8	38.5	30.8	100.0
	물공급 및 위생	(11)	-	27.3	45.5	27.3	100.0
	공공행정/거버넌스	(46)	-	17.4	39.1	43.5	100.0
	교통인프라(도로, 철도 등)	(10)	-	0.0	30.0	70.0	100.0
	에너지	(3)	-	33.3	33.3	33.3	10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	29.2	25.0	45.8	100.0
	금융 및 회계	(10)	-	20.0	60.0	20.0	100.0
	농림수산	(56)	-	7.1	41.1	51.8	100.0
	산업	(16)	-	12.5	56.3	31.3	100.0
	관광	(3)	-	0.0	33.3	66.7	100.0
	환경 및 기후변화	(12)	-	25.0	50.0	25.0	100.0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	8.5	41.5	50.0	100.0
기타	(28)	-	14.3	50.0	35.7	100.0	

중사 기간	1년 미만	(42)	-	31.0	33.3	35.7	-	100.0
	3년 미만	(90)	-	23.3	47.8	28.9	-	100.0
	5년 미만	(66)	-	24.2	42.4	33.3	-	100.0
	10년 미만	(81)	-	13.6	42.0	44.4	-	100.0
	15년 미만	(72)	-	6.9	38.9	54.2	-	100.0
	20년 미만	(27)	-	7.4	44.4	48.1	-	100.0
	20년 이상	(26)	-	0.0	26.9	73.1	-	100.0
성별	남성	(235)	-	12.8	39.6	47.7	-	100.0
	여성	(169)	-	22.5	43.2	34.3	-	100.0
최학 종료 력	대졸 이하	(139)	-	26.6	41.7	31.7	-	100.0
	석사 졸업	(126)	-	16.7	42.9	40.5	-	100.0
	박사 졸업	(139)	-	7.2	38.8	54.0	-	100.0

나.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인지도

그림 3-2.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인지 정도





국제개발협력 정책 중 연간 추진전략과 사업계획이 포함된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34.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6.0%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9.6%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양한 개발협력 정책 중에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소속기관은 공공기관(39.8%)과 정부부처(38.8%)로 공공 부문이 가장 높았다. 시민단체(27.10%)와 민간 전문기관(14.3%)은 인지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사 분야별로는 관광(66.7%) 분야와 교통인프라(50.0%) 분야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에너지 분야 응답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없었고,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33.3%).

응답자의 개발협력 분야 업무 경력에 따라, 10년 미만의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평균 50.3%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평균 54.5%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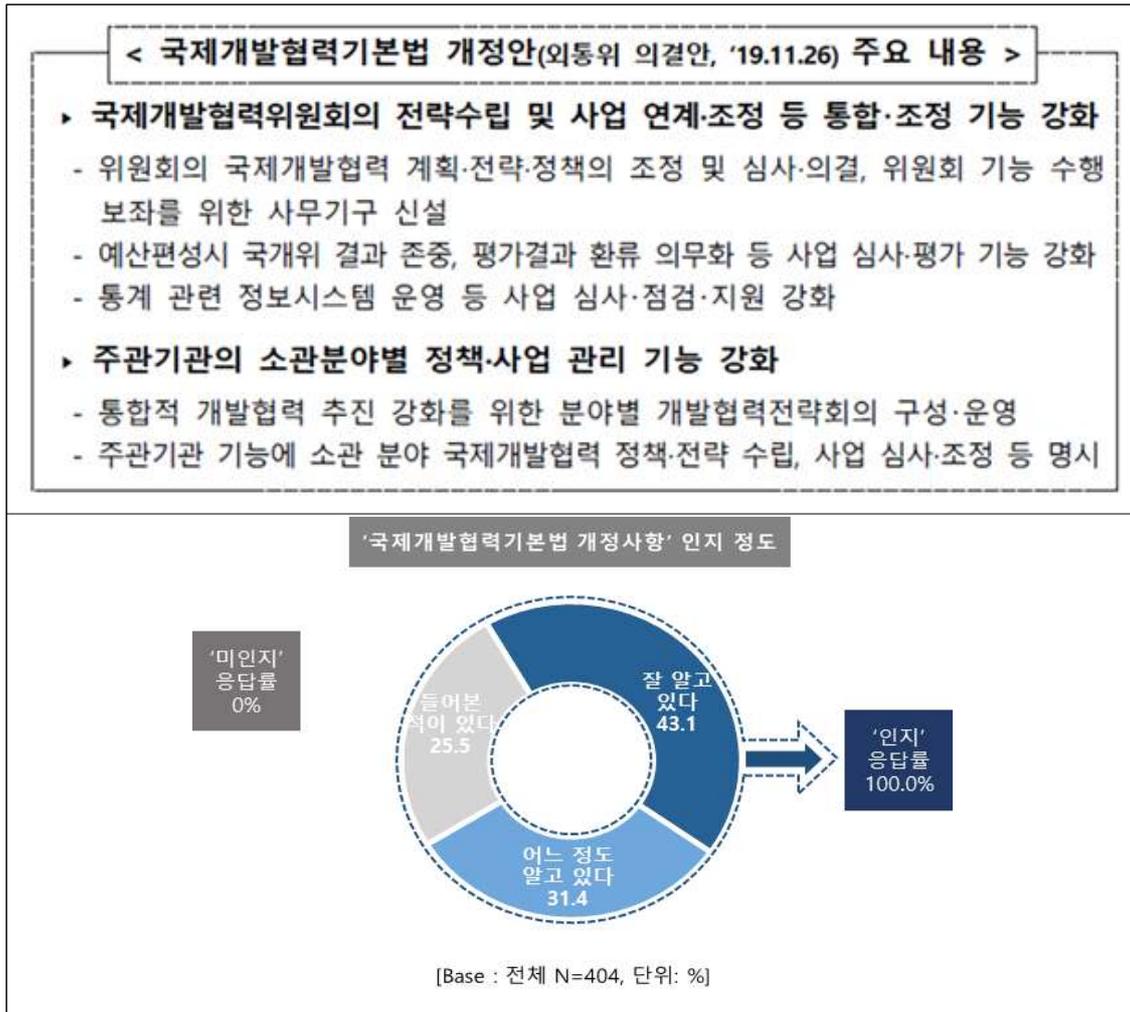
표 3-5.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인지 정도

전체, N=404, 단위: 개, %

구분	전체	처음 들어	들어봄 적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비인지	인지	
전체	(404)	-	19.6	46.0	34.4	-	100.0	
소속 유형	공공부문	(174)	-	19.0	42.0	39.1	-	100.0
	연구부문	(111)	-	13.5	51.4	35.1	-	100.0
	민간부문	(106)	-	26.4	45.3	28.3	-	100.0
	기타	(13)	-	23.1	61.5	15.4	-	100.0
소속 유형	정부부처	(85)	-	17.6	43.5	38.8	-	100.0
	공공기관	(83)	-	19.3	41.0	39.8	-	100.0
	국제기구	(6)	-	33.3	33.3	33.3	-	100.0
	대학	(74)	-	13.5	52.7	33.8	-	100.0
	연구기관	(37)	-	13.5	48.6	37.8	-	100.0
	시민단체	(70)	-	30.0	42.9	27.1	-	100.0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	17.2	48.3	34.5	-	100.0
	민간 전문기관	(7)	-	28.6	57.1	14.3	-	100.0
기타	(13)	-	23.1	61.5	15.4	-	100.0	
종사 분야	교육	(64)	-	29.7	40.6	29.7	-	100.0
	보건의료	(39)	-	25.6	61.5	12.8	-	100.0
	물공급 및 위생	(11)	-	27.3	27.3	45.5	-	100.0
	공공행정/거버넌스	(46)	-	21.7	34.8	43.5	-	100.0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	0.0	50.0	50.0	-	100.0
	에너지	(3)	-	33.3	66.7	0.0	-	10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	25.0	50.0	25.0	-	100.0
	금융 및 회계	(10)	-	30.0	60.0	10.0	-	100.0
	농림수산	(56)	-	12.5	51.8	35.7	-	100.0
	산업	(16)	-	18.8	56.3	25.0	-	100.0
	관광	(3)	-	0.0	33.3	66.7	-	100.0
환경 및 기후변화	(12)	-	33.3	33.3	33.3	-	100.0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	11.0	42.7	46.3	-	100.0	
기타	(28)	-	14.3	50.0	35.7	-	100.0	
취산	1년 미만	(42)	-	42.9	38.1	19.0	-	100.0
	3년 미만	(90)	-	17.8	51.1	31.1	-	100.0
	5년 미만	(66)	-	22.7	54.5	22.7	-	100.0
	10년 미만	(81)	-	16.0	54.3	29.6	-	100.0
	15년 미만	(72)	-	16.7	37.5	45.8	-	100.0
	20년 미만	(27)	-	14.8	40.7	44.4	-	100.0
	20년 이상	(26)	-	3.8	23.1	73.1	-	100.0
성별	남성	(235)	-	17.0	46.8	36.2	-	100.0
	여성	(169)	-	23.1	45.0	32.0	-	100.0
최학	대졸 이하	(139)	-	26.6	48.9	24.5	-	100.0
	석사 졸업	(126)	-	21.4	39.7	38.9	-	100.0
	박사 졸업	(139)	-	10.8	48.9	40.3	-	100.0

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에 관한 인지도

그림 3-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사항' 인지 정도



2020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응답자의 43.1%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1.4%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5.5%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민단체(47.1%), 대학(45.9%), 공공기관(45.8%)에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만 시민단체의 경우 어느 정도 알고 있다(15.7%)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들어본 적이 있다(37.1%)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다른 소속기관 유형에 비해 인지의 편차가 높았다.

종사 분야별로는 관광(100.0%), 에너지(66.7%), 물공급 및 위생(54.5%) 분야 종사자들이 기본법 개정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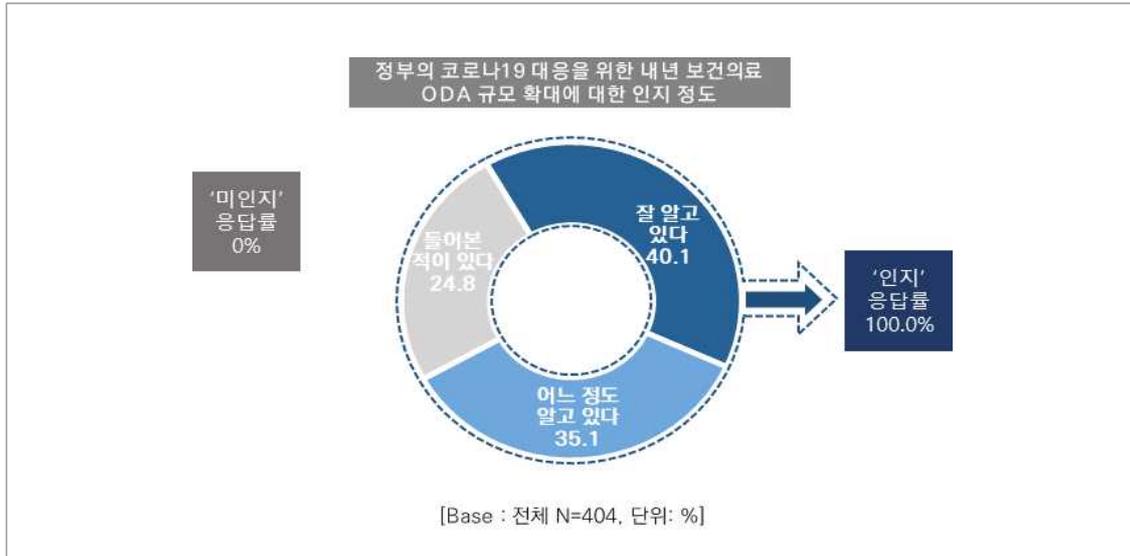
표 3-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사항' 인지 정도

전체, N=404, 단위: 개, %

구분	전체	처음 들어	들어본 적	얼른 접함	잘 알고	비인지	인지	
전체	(404)	-	25.5	31.4	43.1	-	100.0	
소관유형	공공부문	(174)	-	22.4	33.9	43.7	-	100.0
	연구부문	(111)	-	20.7	36.9	42.3	-	100.0
	민간부문	(106)	-	34.9	21.7	43.4	-	100.0
	기타	(13)	-	30.8	30.8	38.5	-	100.0
소관분야	정부부처	(85)	-	22.4	35.3	42.4	-	100.0
	공공기관	(83)	-	22.9	31.3	45.8	-	100.0
	국제기구	(6)	-	16.7	50.0	33.3	-	100.0
	대학	(74)	-	16.2	37.8	45.9	-	100.0
	연구기관	(37)	-	29.7	35.1	35.1	-	100.0
	시민단체	(70)	-	37.1	15.7	47.1	-	100.0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	31.0	31.0	37.9	-	100.0
	민간 전문기관	(7)	-	28.6	42.9	28.6	-	100.0
	기타	(13)	-	30.8	30.8	38.5	-	100.0
주요분야	교육	(64)	-	32.8	20.3	46.9	-	100.0
	보건의료	(39)	-	35.9	28.2	35.9	-	100.0
	물공급 및 위생	(11)	-	18.2	27.3	54.5	-	100.0
	공공행정/거버넌스	(46)	-	21.7	43.5	34.8	-	100.0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	10.0	40.0	50.0	-	100.0
	에너지	(3)	-	33.3	0.0	66.7	-	10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	33.3	25.0	41.7	-	100.0
	금융 및 회계	(10)	-	20.0	50.0	30.0	-	100.0
	농림수산	(56)	-	23.2	28.6	48.2	-	100.0
	산업	(16)	-	31.3	62.5	6.3	-	100.0
	관광	(3)	-	0.0	0.0	100.0	-	100.0
	환경 및 기후변화	(12)	-	25.0	25.0	50.0	-	100.0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	19.5	32.9	47.6	-	100.0
기타	(28)	-	25.0	32.1	42.9	-	100.0	
추산	1년 미만	(42)	-	42.9	35.7	21.4	-	100.0
	3년 미만	(90)	-	26.7	36.7	36.7	-	100.0
	5년 미만	(66)	-	34.8	30.3	34.8	-	100.0
	10년 미만	(81)	-	27.2	28.4	44.4	-	100.0
	15년 미만	(72)	-	15.3	25.0	59.7	-	100.0
	20년 미만	(27)	-	3.7	44.4	51.9	-	100.0
	20년 이상	(26)	-	15.4	23.1	61.5	-	100.0
성별	남성	(235)	-	22.1	33.6	44.3	-	100.0
	여성	(169)	-	30.2	28.4	41.4	-	100.0
최학	대졸 이하	(139)	-	30.9	30.2	38.8	-	100.0
	석사 졸업	(126)	-	29.4	25.4	45.2	-	100.0
	박사 졸업	(139)	-	16.5	38.1	45.3	-	100.0

라.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 인지도

그림 3-4.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년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에 대한 인지 정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년도 보건의료 ODA 규모를 확대(요구액 기준 33.7% 증가)하기로 한 것에 대한 정책 인지 정도의 응답으로 40.1%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5.1%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4.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 계획에 대한 인지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 세부 유형 중 민간 전문기관(57.1%)과 국제기구(50.0%), 연구기관(45.9%)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종사 분야별로 물 공급 및 위생(54.5%) 분야와 보건의료(51.3%) 분야, 개발협력 사업 일반(51.2%)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 관련 분야 종사자의 높은 관심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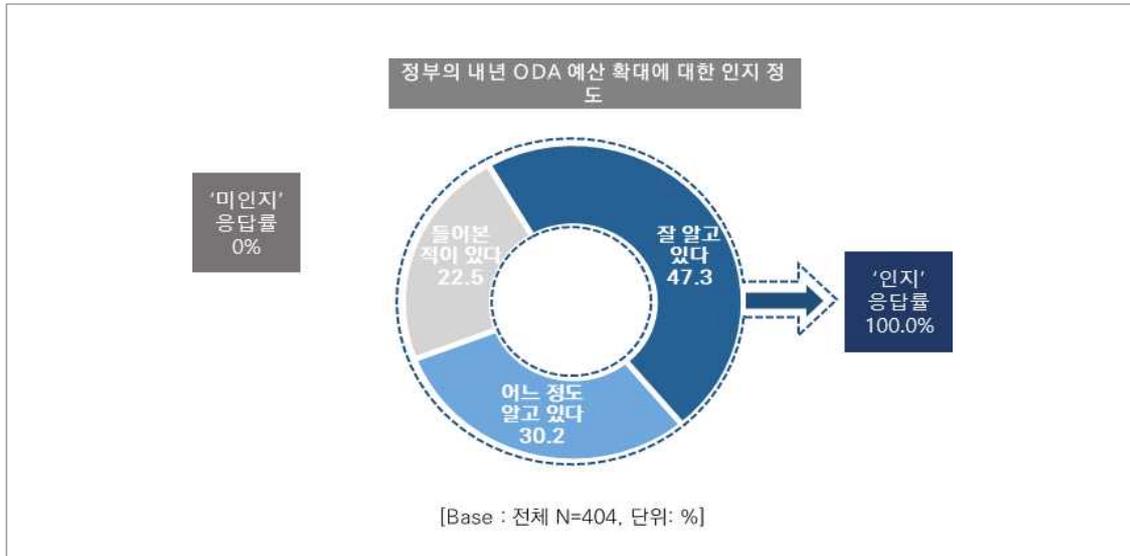
표 3-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년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관련 인지도

전체, N=404, 단위: 개, %

구 분	전 체	처음 들어 봄	들어본 적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비인지	인지	
전체	(404)	-	24.8	35.1	40.1	-	100.0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	24.1	35.6	40.2	-	100.0
	연구부문	(111)	-	23.4	40.5	36.0	-	100.0
	민간부문	(106)	-	27.4	30.2	42.5	-	100.0
	기타	(13)	-	23.1	23.1	53.8	-	100.0
소속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	21.2	41.2	37.6	-	100.0
	공공기관	(83)	-	26.5	31.3	42.2	-	100.0
	국제기구	(6)	-	33.3	16.7	50.0	-	100.0
	대학	(74)	-	25.7	43.2	31.1	-	100.0
	연구기관	(37)	-	18.9	35.1	45.9	-	100.0
	시민단체	(70)	-	27.1	28.6	44.3	-	100.0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	27.6	37.9	34.5	-	100.0
	민간 전문기관	(7)	-	28.6	14.3	57.1	-	100.0
기타	(13)	-	23.1	23.1	53.8	-	100.0	
중사 분야	교육	(64)	-	35.9	28.1	35.9	-	100.0
	보건의료	(39)	-	17.9	30.8	51.3	-	100.0
	물공급 및 위생	(11)	-	9.1	36.4	54.5	-	100.0
	공공행정/거버넌스	(46)	-	26.1	41.3	32.6	-	100.0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	10.0	50.0	40.0	-	100.0
	에너지	(3)	-	66.7	0.0	33.3	-	10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	50.0	29.2	20.8	-	100.0
	금융 및 회계	(10)	-	50.0	40.0	10.0	-	100.0
	농림수산	(56)	-	23.2	37.5	39.3	-	100.0
	산업	(16)	-	31.3	37.5	31.3	-	100.0
	관광	(3)	-	0.0	66.7	33.3	-	100.0
	환경 및 기후변화	(12)	-	16.7	41.7	41.7	-	100.0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	12.2	36.6	51.2	-	100.0	
기타	(28)	-	25.0	32.1	42.9	-	100.0	
중사 기간	1년 미만	(42)	-	31.0	26.2	42.9	-	100.0
	3년 미만	(90)	-	24.4	32.2	43.3	-	100.0
	5년 미만	(66)	-	30.3	31.8	37.9	-	100.0
	10년 미만	(81)	-	24.7	33.3	42.0	-	100.0
	15년 미만	(72)	-	22.2	41.7	36.1	-	100.0
	20년 미만	(27)	-	18.5	51.9	29.6	-	100.0
	20년 이상	(26)	-	15.4	38.5	46.2	-	100.0
성별	남성	(235)	-	22.6	38.7	38.7	-	100.0
	여성	(169)	-	27.8	30.2	42.0	-	100.0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39)	-	29.5	30.9	39.6	-	100.0
	석사 졸업	(126)	-	23.8	27.8	48.4	-	100.0
	박사 졸업	(139)	-	20.9	46.0	33.1	-	100.0

마. 내년도 ODA 예산규모 확대 인지도

그림 3-5. 정부의 내년 ODA 예산 확대에 대한 인지 정도



ODA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내년 ODA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9% 증가한 4조 79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요구액 기준)에 대한 인지 정도 응답으로 47.3%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30.2%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2.5%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국제 개발협력 정책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국제기구(83.3%), 민간 전문기관(57.1%),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55.2%), 연구기관(54.1%)에서 높은 인지수준을 보였다. 종사 분야 중에서는 정보통신 및 IT 기술(58.3%)과 환경 및 기후변화(58.3%) 응답자의 인식도가 높았다.

종사 기간별로는 1년 미만(61.9%)과 20년 이상(53.8%) 응답자의 인지 정도가 높았고, 성별 중 여성(51.5%) 응답자가 남성(44.3%)에 비해 ODA 예산 확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석사 졸업(54.1%) 응답자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정부의 내년 ODA 예산 확대에 대한 인지 정도

전체, N=404,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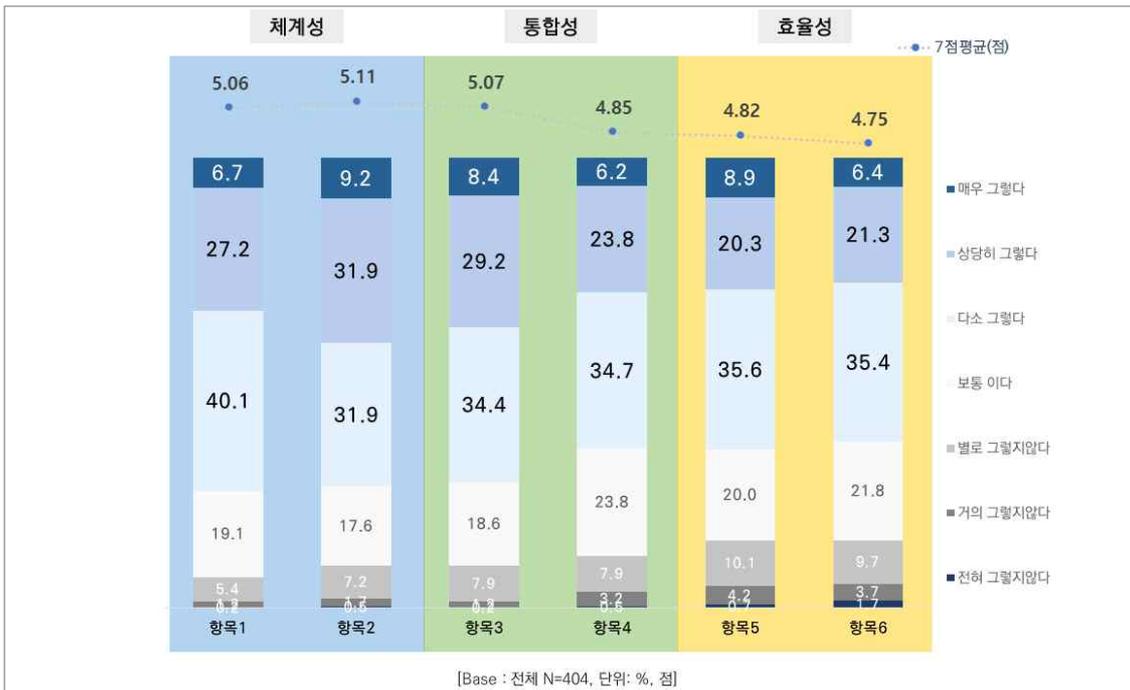
구 분	전 체	처음 들어 봄	들어본 적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비인지	인지	
전체	(404)	-	22.5	30.2	47.3	-	100.0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	18.4	34.5	47.1	-	100.0
	연구부문	(111)	-	20.7	36.0	43.2	-	100.0
	민간부문	(106)	-	29.2	18.9	51.9	-	100.0
	기타	(13)	-	38.5	15.4	46.2	-	100.0
소속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	20.0	35.3	44.7	-	100.0
	공공기관	(83)	-	18.1	34.9	47.0	-	100.0
	국제기구	(6)	-	0.0	16.7	83.3	-	100.0
	대학	(74)	-	23.0	39.2	37.8	-	100.0
	연구기관	(37)	-	16.2	29.7	54.1	-	100.0
	시민단체	(70)	-	31.4	18.6	50.0	-	100.0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	24.1	20.7	55.2	-	100.0
	민간 전문기관	(7)	-	28.6	14.3	57.1	-	100.0
기타	(13)	-	38.5	15.4	46.2	-	100.0	
중사 분야	교육	(64)	-	31.3	20.3	48.4	-	100.0
	보건의료	(39)	-	20.5	23.1	56.4	-	100.0
	물공급 및 위생	(11)	-	27.3	27.3	45.5	-	100.0
	공공행정/거버넌스	(46)	-	21.7	43.5	34.8	-	100.0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	20.0	40.0	40.0	-	100.0
	에너지	(3)	-	66.7	0.0	33.3	-	10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	16.7	25.0	58.3	-	100.0
	금융 및 회계	(10)	-	30.0	30.0	40.0	-	100.0
	농림수산	(56)	-	28.6	32.1	39.3	-	100.0
	산업	(16)	-	25.0	37.5	37.5	-	100.0
	관광	(3)	-	33.3	33.3	33.3	-	100.0
	환경 및 기후변화	(12)	-	16.7	25.0	58.3	-	100.0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	12.2	34.1	53.7	-	100.0	
기타	(28)	-	21.4	28.6	50.0	-	100.0	
중사 기간	1년 미만	(42)	-	16.7	21.4	61.9	-	100.0
	3년 미만	(90)	-	22.2	32.2	45.6	-	100.0
	5년 미만	(66)	-	27.3	27.3	45.5	-	100.0
	10년 미만	(81)	-	29.6	28.4	42.0	-	100.0
	15년 미만	(72)	-	22.2	27.8	50.0	-	100.0
	20년 미만	(27)	-	3.7	59.3	37.0	-	100.0
	20년 이상	(26)	-	19.2	26.9	53.8	-	100.0
성별	남성	(235)	-	20.0	35.7	44.3	-	100.0
	여성	(169)	-	26.0	22.5	51.5	-	100.0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39)	-	23.7	30.9	45.3	-	100.0
	석사 졸업	(126)	-	23.0	23.0	54.0	-	100.0
	박사 졸업	(139)	-	20.9	36.0	43.2	-	100.0

3.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과제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가. 항목별 만족도

그림 3-6. ODA 전문가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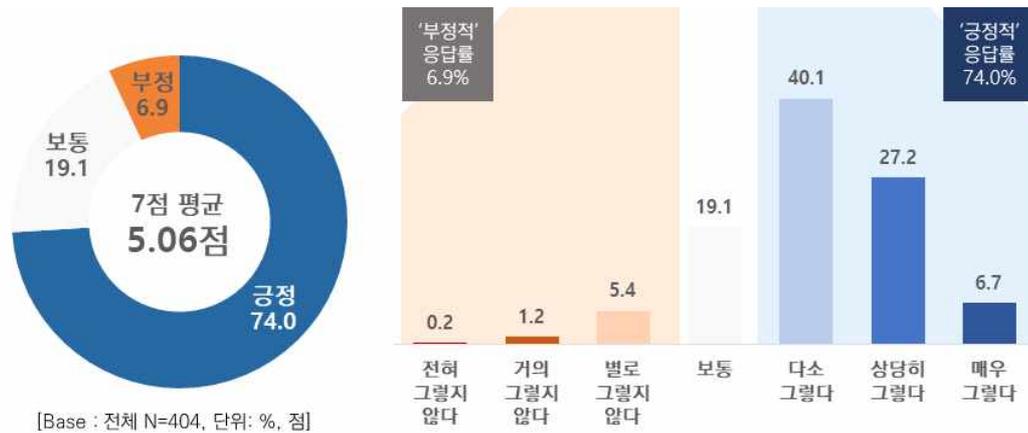
- 항목1 : 정부는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도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전략에 따라 ODA를 제공하고 있다.
- 항목2 :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대외 정책과 ODA를 긴밀히 연결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항목3 : 정부는 국제기구, 타공여기관, 수원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 항목4 : 정부는 정부 외 민간 부문(민간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항목5 : 정부는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사업의 통합 및 조정체계 강화 등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항목6 : 정부는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ODA 사업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있다.



1) 항목1: SDGs 달성을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전략에 따른 ODA 제공

그림 3-7. 항목1 : SDGs 달성을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전략에 따른 ODA 제공

항목1 : 정부는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도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전략에 따라 ODA를 제공하고 있다.



ODA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는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도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전략에 따라 ODA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4.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6.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19.1%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긍정적 응답 중에서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 찬성층은 6.7%로 낮았고, 다소 그렇다라는 소극적 찬성 그룹이 40.1%로 5배 이상 높았다.

응답자 중 정부부처 소속 유형의 긍정적 응답이 85.9%로 가장 높았고, 민간 전문기관 소속 유형은 부정적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인프라, 에너지, 관광 분야 응답자는 모두 정부가 우리나라 비교우위 및 전략에 따라 ODA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환경 및 기후변화(16.7%), 개발협력 사업 일반(13.4%), 산업(12.5%) 분야 응답자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중 종사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81.1%)인 응답자와 1년 미만(78.6%)인 응답자는 긍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5년 이상 15년 미만 종사 기간에 속한 응답자는 부정적 인식이 22.2%로 높은 편이다.

최종 학력별로는 박사 졸업 응답자의 긍정적 인식이 80.6%로 높았고, 석사 졸업 응답자의 부정적 인식 10.3%로 다른 응답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9. 항목 1: SDGs 달성을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전략에 따른 ODA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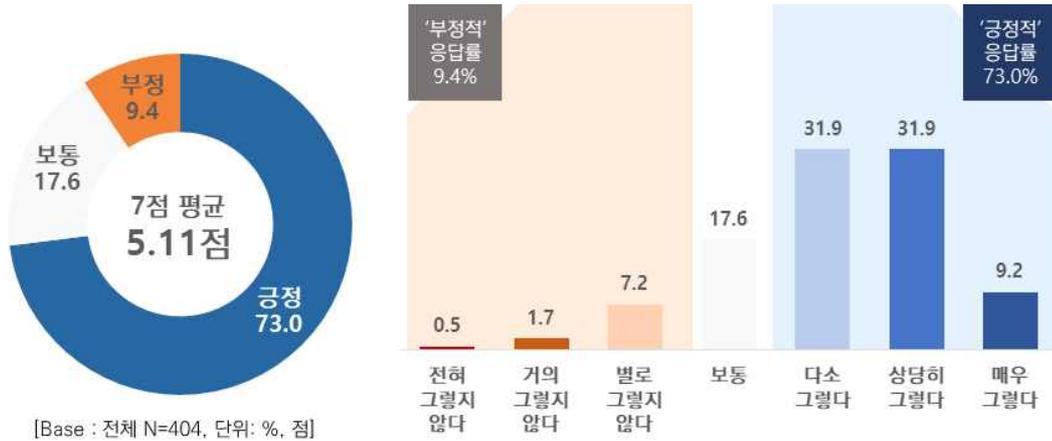
전체, N=404, 단위: 개, %, 점

구 분		전 체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 다	상당 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Botto m 3	Mediu m	Top 3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404)	0.2	1.2	5.4	19.1	40.1	27.2	6.7	6.9	19.1	74.0	5.06	72.3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0.0	1.1	1.7	15.5	36.2	33.3	12.1	2.9	15.5	81.6	5.35	76.4
	연구부문	(111)	0.0	0.9	6.3	16.2	41.4	32.4	2.7	7.2	16.2	76.6	5.06	72.3
	민간부문	(106)	0.9	1.9	8.5	27.4	48.1	10.4	2.8	11.3	27.4	61.3	4.62	66.0
	기타	(13)	0.0	0.0	23.1	23.1	15.4	38.5	0.0	23.1	23.1	53.8	4.69	67.0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0.0	0.0	1.2	12.9	40.0	34.1	11.8	1.2	12.9	85.9	5.42	77.5
	공공기관	(83)	0.0	2.4	1.2	16.9	33.7	32.5	13.3	3.6	16.9	79.5	5.33	76.1
	국제기구	(6)	0.0	0.0	16.7	33.3	16.7	33.3	0.0	16.7	33.3	50.0	4.67	66.7
	대학	(74)	0.0	0.0	2.7	17.6	50.0	28.4	1.4	2.7	17.6	79.7	5.08	72.6
	연구기관	(37)	0.0	2.7	13.5	13.5	24.3	40.5	5.4	16.2	13.5	70.3	5.03	71.8
	시민단체	(70)	1.4	1.4	8.6	28.6	48.6	10.0	1.4	11.4	28.6	60.0	4.57	65.3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0.0	0.0	6.9	24.1	48.3	13.8	6.9	6.9	24.1	69.0	4.90	70.0
	민간 전문기관 기타	(7) (13)	0.0 0.0	14.3 0.0	14.3 23.1	28.6 23.1	42.9 15.4	0.0 38.5	0.0 0.0	28.6 23.1	28.6 23.1	42.9 53.8	4.00 4.69	57.1 67.0
중사 분야	교육	(64)	0.0	1.6	3.1	21.9	43.8	23.4	6.3	4.7	21.9	73.4	5.03	71.9
	보건의료	(39)	0.0	0.0	7.7	25.6	35.9	30.8	0.0	7.7	25.6	66.7	4.90	70.0
	물공급 및 위생	(11)	0.0	0.0	0.0	36.4	45.5	9.1	9.1	0.0	36.4	63.6	4.91	70.1
	공공행정/거버넌스	(46)	0.0	0.0	0.0	19.6	37.0	34.8	8.7	0.0	19.6	80.4	5.33	76.1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0.0	0.0	0.0	0.0	40.0	50.0	10.0	0.0	0.0	100.0	5.70	81.4
	에너지	(3)	0.0	0.0	0.0	0.0	66.7	33.3	0.0	0.0	0.0	100.0	5.33	76.2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0.0	0.0	4.2	12.5	54.2	29.2	0.0	4.2	12.5	83.3	5.08	72.6
	금융 및 회계	(10)	0.0	0.0	0.0	30.0	40.0	20.0	10.0	0.0	30.0	70.0	5.10	72.9
	농림수산	(56)	0.0	3.6	3.6	14.3	30.4	37.5	10.7	7.1	14.3	78.6	5.27	75.3
	산업	(16)	0.0	0.0	12.5	18.8	43.8	25.0	0.0	12.5	18.8	68.8	4.81	68.8
	관광	(3)	0.0	0.0	0.0	0.0	66.7	0.0	33.3	0.0	0.0	100.0	5.67	81.0
	환경 및 기후변화	(12)	0.0	0.0	16.7	25.0	33.3	25.0	0.0	16.7	25.0	58.3	4.67	66.7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1.2	1.2	11.0	15.9	39.0	22.0	9.8	13.4	15.9	70.7	4.95	70.7
기타	(28)	0.0	3.6	3.6	25.0	46.4	17.9	3.6	7.1	25.0	67.9	4.82	68.9	
중사 기간	1년 미만	(42)	0.0	0.0	4.8	16.7	31.0	38.1	9.5	4.8	16.7	78.6	5.31	75.9
	3년 미만	(90)	0.0	0.0	2.2	16.7	50.0	23.3	7.8	2.2	16.7	81.1	5.18	74.0
	5년 미만	(66)	0.0	4.5	0.0	25.8	37.9	27.3	4.5	4.5	25.8	69.7	4.97	71.0
	10년 미만	(81)	0.0	0.0	11.1	13.6	40.7	29.6	4.9	11.1	13.6	75.3	5.04	72.0
	15년 미만	(72)	1.4	2.8	6.9	25.0	34.7	25.0	4.2	11.1	25.0	63.9	4.81	68.7
	20년 미만	(27)	0.0	0.0	7.4	18.5	48.1	14.8	11.1	7.4	18.5	74.1	5.04	72.0
	20년 이상	(26)	0.0	0.0	7.7	15.4	30.8	34.6	11.5	7.7	15.4	76.9	5.27	75.3
성별	남성	(235)	0.4	1.3	6.0	14.9	38.7	29.4	9.4	7.7	14.9	77.4	5.16	73.7
	여성	(169)	0.0	1.2	4.7	24.9	42.0	24.3	3.0	5.9	24.9	69.2	4.92	70.3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39)	0.0	1.4	5.0	25.9	44.6	19.4	3.6	6.5	25.9	67.6	4.86	69.5
	석사 졸업	(126)	0.8	1.6	7.9	15.9	33.3	31.0	9.5	10.3	15.9	73.8	5.10	72.9
	박사 졸업	(139)	0.0	0.7	3.6	15.1	41.7	31.7	7.2	4.3	15.1	80.6	5.22	74.5

2) 항목2 : ODA 정책시너지 효과 제고

그림 3-8. 항목 2 : ODA 정책시너지 효과 제고

항목2 :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대외 정책과 ODA를 긴밀히 연결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대외 정책과 ODA를 긴밀히 연결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73.0%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9.4%가 부정적 응답, 17.6%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다른 국제개발협력 정책 항목에 비해 매우 그렇다(9.2%)와 상당히 그렇다(31.9%)는 응답 비중이 높아, ODA 전문가들이 개발협력 정책과 기타 대외정책 간의 정책 시너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응답자 유형별로 보면, 정부부처 소속 응답자는 정책시너지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0.3%로 가장 높았다. 반면, 민간 전문기관 소속 응답자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 42.9%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교통인프라(100%) 분야와 공공행정(84.8%) 분야 응답자는 정책시너지 효과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았고, 보건의료(15.4%) 분야 종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았다.

종사 기간별로 1년 이상~ 3년 미만(82.0%) 종사 응답자와 1년 미만(78.6%) 응답자의 긍정적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19.4%)의 응답자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표 3-10. 항목 2 : ODA 정책시너지 효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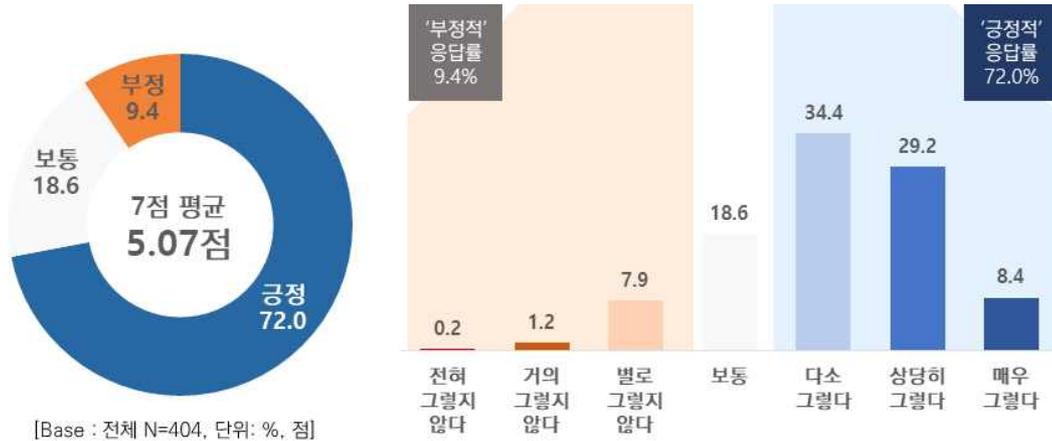
전체, N=404, 단위: 개, %, 점

구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Bottom 3	Medium	Top 3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404)	0.5	1.7	7.2	17.6	31.9	31.9	9.2	9.4	17.6	73.0	5.11	73.0	
소속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0.6	0.6	0.6	12.6	30.5	38.5	16.7	1.7	12.6	85.6	5.54	79.1
	연구부문	(111)	0.0	3.6	9.0	18.0	32.4	30.6	6.3	12.6	18.0	69.4	4.96	70.9
	민간부문	(106)	0.9	1.9	15.1	23.6	33.0	24.5	0.9	17.9	23.6	58.5	4.63	66.2
	기타	(13)	0.0	0.0	15.4	30.8	38.5	15.4	0.0	15.4	30.8	53.8	4.54	64.8
소속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0.0	1.2	0.0	10.6	31.8	36.5	20.0	1.2	10.6	88.2	5.62	80.3
	공공기관	(83)	1.2	0.0	1.2	14.5	26.5	42.2	14.5	2.4	14.5	83.1	5.49	78.5
	국제기구	(6)	0.0	0.0	0.0	16.7	66.7	16.7	0.0	0.0	16.7	83.3	5.00	71.4
	대학	(74)	0.0	4.1	9.5	17.6	33.8	31.1	4.1	13.5	17.6	68.9	4.91	70.1
	연구기관	(37)	0.0	2.7	8.1	18.9	29.7	29.7	10.8	10.8	18.9	70.3	5.08	72.6
	시민단체	(70)	1.4	1.4	12.9	22.9	40.0	20.0	1.4	15.7	22.9	61.4	4.64	66.3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0.0	0.0	17.2	27.6	17.2	37.9	0.0	17.2	27.6	55.2	4.76	68.0
	민간 전문기관	(7)	0.0	14.3	28.6	14.3	28.6	14.3	0.0	42.9	14.3	42.9	4.00	57.1
	기타	(13)	0.0	0.0	15.4	30.8	38.5	15.4	0.0	15.4	30.8	53.8	4.54	64.8
중사업 분야	교육	(64)	0.0	0.0	7.8	17.2	37.5	29.7	7.8	7.8	17.2	75.0	5.13	73.2
	보건의료	(39)	0.0	0.0	15.4	23.1	25.6	30.8	5.1	15.4	23.1	61.5	4.87	69.6
	물공급 및 위생	(11)	0.0	0.0	9.1	9.1	54.5	18.2	9.1	9.1	9.1	81.8	5.09	72.7
	공공행정/거버넌스	(46)	0.0	0.0	2.2	13.0	23.9	47.8	13.0	2.2	13.0	84.8	5.57	79.5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0.0	0.0	0.0	0.0	40.0	30.0	30.0	0.0	0.0	100.0	5.90	84.3
	에너지	(3)	0.0	0.0	0.0	66.7	0.0	33.3	0.0	0.0	66.7	33.3	4.67	66.7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4.2	0.0	8.3	20.8	20.8	45.8	0.0	12.5	20.8	66.7	4.92	70.2
	금융 및 회계	(10)	0.0	10.0	0.0	20.0	40.0	30.0	0.0	10.0	20.0	70.0	4.80	68.6
	농림수산	(56)	0.0	5.4	7.1	14.3	23.2	28.6	21.4	12.5	14.3	73.2	5.27	75.3
	산업	(16)	0.0	0.0	6.3	18.8	50.0	25.0	0.0	6.3	18.8	75.0	4.94	70.5
	관광	(3)	0.0	0.0	0.0	33.3	33.3	0.0	33.3	0.0	33.3	66.7	5.33	76.2
	환경 및 기후변화	(12)	0.0	0.0	0.0	41.7	33.3	25.0	0.0	0.0	41.7	58.3	4.83	69.0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1.2	1.2	8.5	18.3	34.1	29.3	7.3	11.0	18.3	70.7	5.00	71.4
기타	(28)	0.0	7.1	7.1	10.7	39.3	32.1	3.6	14.3	10.7	75.0	4.93	70.4	
중사업 기간	1년 미만	(42)	0.0	0.0	4.8	16.7	33.3	31.0	14.3	4.8	16.7	78.6	5.33	76.2
	3년 미만	(90)	0.0	1.1	4.4	12.2	38.9	30.0	13.3	5.6	12.2	82.2	5.32	76.0
	5년 미만	(66)	0.0	1.5	4.5	18.2	34.8	33.3	7.6	6.1	18.2	75.8	5.17	73.8
	10년 미만	(81)	0.0	1.2	7.4	23.5	34.6	28.4	4.9	8.6	23.5	67.9	4.96	70.9
	15년 미만	(72)	2.8	2.8	13.9	18.1	22.2	33.3	6.9	19.4	18.1	62.5	4.82	68.8
	20년 미만	(27)	0.0	3.7	7.4	18.5	29.6	25.9	14.8	11.1	18.5	70.4	5.11	73.0
	20년 이상	(26)	0.0	3.8	7.7	15.4	19.2	50.0	3.8	11.5	15.4	73.1	5.15	73.6
성별	남성	(235)	0.9	2.6	6.4	19.6	23.8	35.7	11.1	9.8	19.6	70.6	5.14	73.5
	여성	(169)	0.0	0.6	8.3	14.8	43.2	26.6	6.5	8.9	14.8	76.3	5.07	72.4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39)	0.7	0.0	5.0	23.0	37.4	26.6	7.2	5.8	23.0	71.2	5.05	72.1
	석사 졸업	(126)	0.8	2.4	6.3	13.5	33.3	33.3	10.3	9.5	13.5	77.0	5.17	73.9
	박사 졸업	(139)	0.0	2.9	10.1	15.8	25.2	36.0	10.1	12.9	15.8	71.2	5.12	73.1

3) 항목3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그림 3-9. 항목 3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항목3 : 정부는 국제기구, 타공여기관, 수원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ODA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는 국제기구, 타공여기관, 수원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2.0%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9.4%가 부정적 응답, 18.6%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부처(88.2%)와 공공기관(80.7%) 응답자는 다른 소속 기관의 응답 그룹에 비해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전문기관과 국제기구 소속 응답자는 각각 42.9%, 50.0%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종사 분야에 따르면, 교통인프라와 관광 분야 응답자는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는 부정적 응답이 25.0%로 높게 나타났다. 3년 이상~5년 미만을 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해 온 응답자 그룹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4.8%로 높은 반면, 10년 이상~15년 미만 응답자 그룹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18.1%로 높았다.

표 3-11. 항목 3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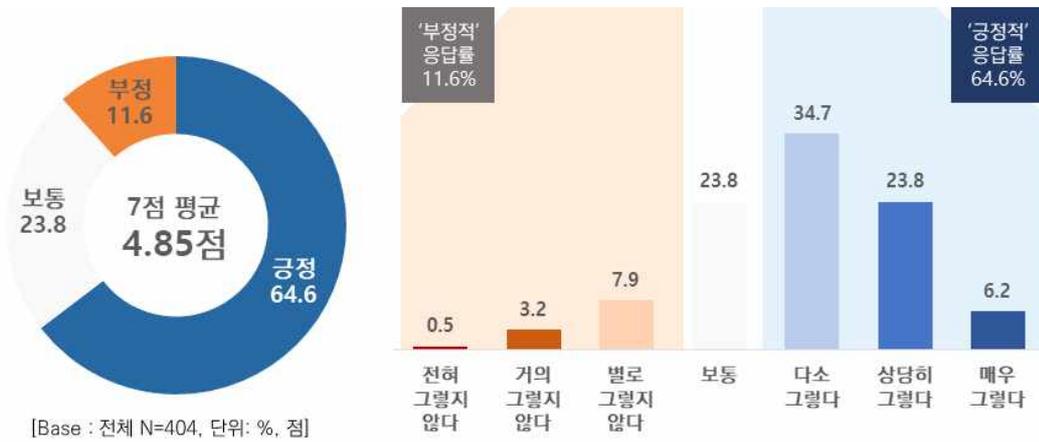
전체, N=404, 단위: 개, %, 점

구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Bottom 3	Medium	Top 3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404)	0.2	1.2	7.9	18.6	34.4	29.2	8.4	9.4	18.6	72.0	5.07	72.4	
소속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0.6	0.0	3.4	12.6	32.2	37.4	13.8	4.0	12.6	83.3	5.43	77.6
	연구부문	(111)	0.0	0.9	9.9	21.6	42.3	19.8	5.4	10.8	21.6	67.6	4.86	69.5
	민간부문	(106)	0.0	2.8	13.2	23.6	30.2	27.4	2.8	16.0	23.6	60.4	4.75	67.8
	기타	(13)	0.0	7.7	7.7	30.8	30.8	15.4	7.7	15.4	30.8	53.8	4.62	65.9
소속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0.0	0.0	1.2	10.6	36.5	36.5	15.3	1.2	10.6	88.2	5.54	79.2
	공공기관	(83)	1.2	0.0	3.6	14.5	27.7	39.8	13.3	4.8	14.5	80.7	5.40	77.1
	국제기구	(6)	0.0	0.0	33.3	16.7	33.3	16.7	0.0	33.3	16.7	50.0	4.33	61.9
	대학	(74)	0.0	0.0	10.8	23.0	44.6	16.2	5.4	10.8	23.0	66.2	4.82	68.9
	연구기관	(37)	0.0	2.7	8.1	18.9	37.8	27.0	5.4	10.8	18.9	70.3	4.95	70.7
	시민단체	(70)	0.0	1.4	11.4	22.9	31.4	31.4	1.4	12.9	22.9	64.3	4.84	69.2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0.0	3.4	17.2	24.1	24.1	24.1	6.9	20.7	24.1	55.2	4.69	67.0
	민간 전문기관	(7)	0.0	14.3	14.3	28.6	42.9	0.0	0.0	28.6	28.6	42.9	4.00	57.1
기타	(13)	0.0	7.7	7.7	30.8	30.8	15.4	7.7	15.4	30.8	53.8	4.62	65.9	
중사업 분야	교육	(64)	0.0	1.6	9.4	20.3	32.8	25.0	10.9	10.9	20.3	68.8	5.03	71.9
	보건의료	(39)	0.0	0.0	7.7	20.5	35.9	33.3	2.6	7.7	20.5	71.8	5.03	71.8
	물공급 및 위생	(11)	0.0	0.0	9.1	9.1	45.5	27.3	9.1	9.1	9.1	81.8	5.18	74.0
	공공행정/거버넌스	(46)	0.0	0.0	2.2	17.4	37.0	34.8	8.7	2.2	17.4	80.4	5.30	75.8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0.0	0.0	0.0	0.0	40.0	40.0	20.0	0.0	0.0	100.0	5.80	82.9
	에너지	(3)	0.0	0.0	0.0	66.7	0.0	33.3	0.0	0.0	66.7	33.3	4.67	66.7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4.2	0.0	0.0	16.7	37.5	33.3	8.3	4.2	16.7	79.2	5.17	73.8
	금융 및 회계	(10)	0.0	0.0	20.0	0.0	60.0	20.0	0.0	20.0	0.0	80.0	4.80	68.6
	농림수산	(56)	0.0	1.8	7.1	12.5	35.7	25.0	17.9	8.9	12.5	78.6	5.29	75.5
	산업	(16)	0.0	0.0	12.5	18.8	43.8	25.0	0.0	12.5	18.8	68.8	4.81	68.8
	관광	(3)	0.0	0.0	0.0	0.0	33.3	66.7	0.0	0.0	0.0	100.0	5.67	81.0
	환경 및 기후변화	(12)	0.0	0.0	25.0	25.0	16.7	33.3	0.0	25.0	25.0	50.0	4.58	65.5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0.0	2.4	8.5	22.0	29.3	30.5	7.3	11.0	22.0	67.1	4.99	71.3	
기타	(28)	0.0	3.6	10.7	28.6	32.1	21.4	3.6	14.3	28.6	57.1	4.68	66.8	
중사기간	1년 미만	(42)	0.0	0.0	2.4	19.0	40.5	21.4	16.7	2.4	19.0	78.6	5.31	75.9
	3년 미만	(90)	0.0	0.0	6.7	17.8	33.3	31.1	11.1	6.7	17.8	75.6	5.22	74.6
	5년 미만	(66)	0.0	1.5	7.6	6.1	45.5	36.4	3.0	9.1	6.1	84.8	5.17	73.8
	10년 미만	(81)	0.0	0.0	8.6	24.7	28.4	30.9	7.4	8.6	24.7	66.7	5.04	72.0
	15년 미만	(72)	1.4	2.8	13.9	20.8	36.1	20.8	4.2	18.1	20.8	61.1	4.67	66.7
	20년 미만	(27)	0.0	7.4	3.7	25.9	37.0	14.8	11.1	11.1	25.9	63.0	4.81	68.8
	20년 이상	(26)	0.0	0.0	7.7	19.2	11.5	50.0	11.5	7.7	19.2	73.1	5.38	76.9
성별	남성	(235)	0.4	1.3	8.1	17.4	30.6	30.2	11.9	9.8	17.4	72.8	5.15	73.6
	여성	(169)	0.0	1.2	7.7	20.1	39.6	27.8	3.6	8.9	20.1	71.0	4.96	70.8
최학력	대졸 이하	(139)	0.7	0.0	7.9	19.4	39.6	25.2	7.2	8.6	19.4	71.9	5.01	71.6
	석사 졸업	(126)	0.0	3.2	7.9	14.3	27.0	39.7	7.9	11.1	14.3	74.6	5.16	73.7
	박사 졸업	(139)	0.0	0.7	7.9	21.6	36.0	23.7	10.1	8.6	21.6	69.8	5.04	72.0

4) 항목4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그림 3-10. 항목 4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항목4 : 정부는 정부 외 민간 부문(민간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외 민간 부문(민간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4.6%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11.6%가 부정적으로, 23.8%는 중립적으로 응답하였다. 민간부문과의 협력 노력에 대한 전문가의 만족도는 다른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에 비해 중립적 응답이 가장 높은 항목이다.

응답 그룹 중 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의 75.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국제기구 소속 응답자의 50%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물공급 및 위생 분야 응답자 그룹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성과(90.9%)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 분야에서는 민간부문과의 협력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66.7%)는 응답이 많았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대한 인식도는 20년 이상(76.9%) 종사그룹에서 높게 나타났고, 10년 이상~15년 미만(16.7%) 종사그룹에서 낮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박사 졸업(70.5%) 학력의 응답자가 긍정적 인식이 높았고, 대졸 이하(15.1%) 학력의 응답 그룹에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2. 항목 4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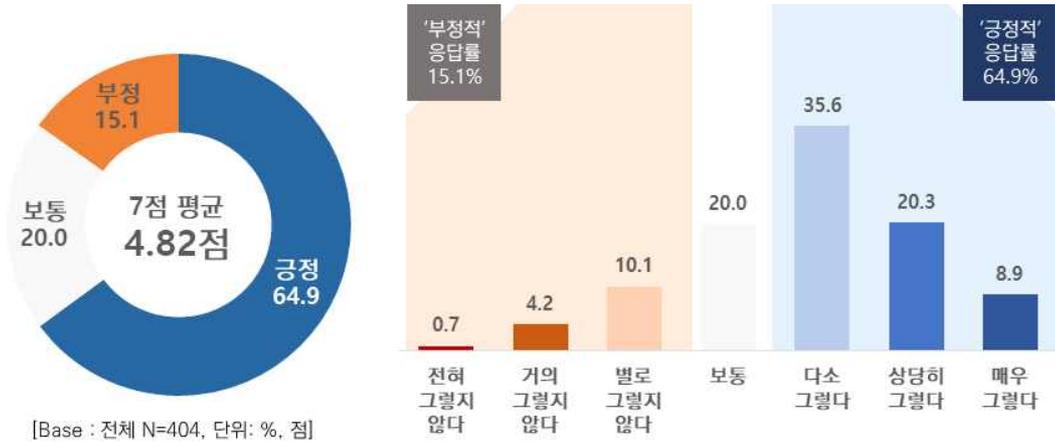
전체, N=404, 단위: 개, %, 점

구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Bottom 3	Medium	Top 3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404)	0.5	3.2	7.9	23.8	34.7	23.8	6.2	11.6	23.8	64.6	4.85	69.3	
소속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0.6	1.7	4.6	19.5	34.5	28.7	10.3	6.9	19.5	73.6	5.13	73.3
	연구부문	(111)	0.0	4.5	6.3	23.4	41.4	18.9	5.4	10.8	23.4	65.8	4.80	68.6
	민간부문	(106)	0.9	3.8	15.1	30.2	28.3	20.8	0.9	19.8	30.2	50.0	4.47	63.9
	기타	(13)	0.0	7.7	7.7	30.8	30.8	23.1	0.0	15.4	30.8	53.8	4.54	64.8
소속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0.0	1.2	4.7	21.2	35.3	28.2	9.4	5.9	21.2	72.9	5.13	73.3
	공공기관	(83)	1.2	2.4	1.2	19.3	33.7	30.1	12.0	4.8	19.3	75.9	5.20	74.4
	국제기구	(6)	0.0	0.0	50.0	0.0	33.3	16.7	0.0	50.0	0.0	50.0	4.17	59.5
	대학	(74)	0.0	2.7	8.1	25.7	36.5	21.6	5.4	10.8	25.7	63.5	4.82	68.9
	연구기관	(37)	0.0	8.1	2.7	18.9	51.4	13.5	5.4	10.8	18.9	70.3	4.76	68.0
	시민단체	(70)	1.4	2.9	18.6	25.7	25.7	24.3	1.4	22.9	25.7	51.4	4.50	64.3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0.0	3.4	10.3	37.9	31.0	17.2	0.0	13.8	37.9	48.3	4.48	64.0
	민간 전문기관	(7)	0.0	14.3	0.0	42.9	42.9	0.0	0.0	14.3	42.9	42.9	4.14	59.2
	기타	(13)	0.0	7.7	7.7	30.8	30.8	23.1	0.0	15.4	30.8	53.8	4.54	64.8
중사업 분야	교육	(64)	0.0	1.6	9.4	26.6	29.7	28.1	4.7	10.9	26.6	62.5	4.88	69.6
	보건의료	(39)	0.0	0.0	5.1	30.8	38.5	17.9	7.7	5.1	30.8	64.1	4.92	70.3
	물공급 및 위생	(11)	0.0	0.0	0.0	9.1	45.5	36.4	9.1	0.0	9.1	90.9	5.45	77.9
	공공행정/거버넌스	(46)	0.0	0.0	6.5	28.3	30.4	30.4	4.3	6.5	28.3	65.2	4.98	71.1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0.0	0.0	10.0	20.0	40.0	20.0	10.0	10.0	20.0	70.0	5.00	71.4
	에너지	(3)	0.0	66.7	0.0	0.0	0.0	33.3	0.0	66.7	0.0	33.3	3.33	47.6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4.2	0.0	0.0	29.2	25.0	41.7	0.0	4.2	29.2	66.7	4.96	70.8
	금융 및 회계	(10)	0.0	0.0	20.0	10.0	70.0	0.0	0.0	20.0	10.0	70.0	4.50	64.3
	농림수산	(56)	0.0	3.6	12.5	21.4	30.4	19.6	12.5	16.1	21.4	62.5	4.88	69.6
	산업	(16)	0.0	12.5	6.3	12.5	50.0	18.8	0.0	18.8	12.5	68.8	4.56	65.2
	관광	(3)	0.0	0.0	0.0	33.3	33.3	33.3	0.0	0.0	33.3	66.7	5.00	71.4
	환경 및 기후변화	(12)	0.0	16.7	8.3	16.7	50.0	8.3	0.0	25.0	16.7	58.3	4.25	60.7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1.2	2.4	11.0	20.7	31.7	24.4	8.5	14.6	20.7	64.6	4.87	69.5
기타	(28)	0.0	7.1	0.0	32.1	42.9	14.3	3.6	7.1	32.1	60.7	4.68	66.8	
중사 기간	1년 미만	(42)	0.0	2.4	2.4	28.6	31.0	23.8	11.9	4.8	28.6	66.7	5.07	72.4
	3년 미만	(90)	0.0	1.1	8.9	28.9	30.0	22.2	8.9	10.0	28.9	61.1	4.90	70.0
	5년 미만	(66)	0.0	3.0	7.6	16.7	39.4	28.8	4.5	10.6	16.7	72.7	4.97	71.0
	10년 미만	(81)	0.0	1.2	12.3	24.7	38.3	21.0	2.5	13.6	24.7	61.7	4.73	67.5
	15년 미만	(72)	2.8	6.9	6.9	22.2	33.3	25.0	2.8	16.7	22.2	61.1	4.63	66.1
	20년 미만	(27)	0.0	11.1	3.7	25.9	44.4	7.4	7.4	14.8	25.9	59.3	4.56	65.1
	20년 이상	(26)	0.0	0.0	7.7	15.4	26.9	38.5	11.5	7.7	15.4	76.9	5.31	75.8
성별	남성	(235)	0.9	4.7	6.8	19.6	34.9	26.0	7.2	12.3	19.6	68.1	4.90	70.0
	여성	(169)	0.0	1.2	9.5	29.6	34.3	20.7	4.7	10.7	29.6	59.8	4.78	68.3
최학력	대졸 이하	(139)	0.7	2.2	12.2	25.2	35.3	19.4	5.0	15.1	25.2	59.7	4.71	67.2
	석사 졸업	(126)	0.8	4.8	6.3	24.6	28.6	27.8	7.1	11.9	24.6	63.5	4.87	69.6
	박사 졸업	(139)	0.0	2.9	5.0	21.6	39.6	24.5	6.5	7.9	21.6	70.5	4.97	71.0

5) 항목5: 정보공유 및 조정기능 강화

그림 3-11. 항목 5 : 정보공유 및 조정기능 강화

항목5 : 정부는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사업의 통합 및 조정체계 강화 등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사업의 통합 및 조정체계 강화 등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64.9%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15.1%가 부정적 응답, 20.0%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부처(80.0%) 소속 응답그룹의 긍정적 응답률이 높았고, 민간 전문기관에서는 정보공유 및 조정 강화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57.1%로 높았다. 종사 분야별로는 관광(100%) 분야와 물공급 및 위생(72.7%) 분야, 정보통신 및 IT 기술(70.8%) 분야 응답자의 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에너지(66.7%)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응답자 중 종사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 그룹에서 긍정적 인식이 73.8%로 높았으며, 10년 이상~15년 미만 응답자의 26.4%는 정부의 개발협력 정보공유 및 조정기능 강화 노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 응답자(59.8%)에 비해 남성 응답자(70.3%)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표 3-13. 항목 5 : 정보공유 및 조정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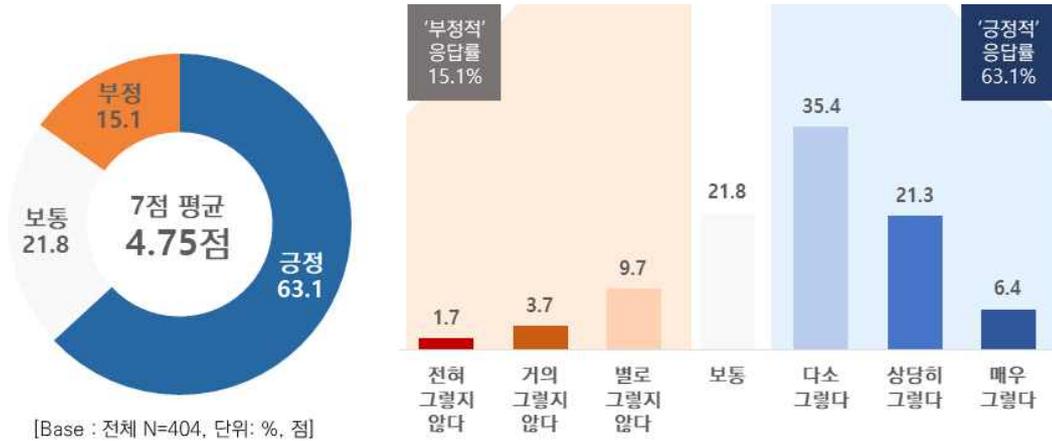
전체, N=404, 단위: 개, %, 점

구 분	전 체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다	약간 그 렇 지 않다	보 통	다 소 그 렇 다	상 당 히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Botto m 3	Medi um	Top 3	7점 평균	100 점 평균	
전체	(404)	0.7	4.2	10.1	20.0	35.6	20.3	8.9	15.1	20.0	64.9	4.82	68.9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1.1	1.1	6.9	16.7	31.0	25.9	17.2	9.2	16.7	74.1	5.22	74.5
	연구부문	(111)	0.0	5.4	11.7	16.2	41.4	20.7	4.5	17.1	16.2	66.7	4.74	67.7
	민간부문	(106)	0.9	7.5	14.2	26.4	38.7	11.3	0.9	22.6	26.4	50.9	4.32	61.7
	기타	(13)	0.0	7.7	7.7	46.2	23.1	15.4	0.0	15.4	46.2	38.5	4.31	61.5
소속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0.0	0.0	4.7	15.3	30.6	28.2	21.2	4.7	15.3	80.0	5.46	78.0
	공공기관	(83)	2.4	1.2	9.6	15.7	32.5	25.3	13.3	13.3	15.7	71.1	5.04	71.9
	국제기구	(6)	0.0	16.7	0.0	50.0	16.7	0.0	16.7	16.7	50.0	33.3	4.33	61.9
	대학	(74)	0.0	5.4	14.9	14.9	41.9	17.6	5.4	20.3	14.9	64.9	4.68	66.8
	연구기관	(37)	0.0	5.4	5.4	18.9	40.5	27.0	2.7	10.8	18.9	70.3	4.86	69.5
	시민단체	(70)	0.0	2.9	17.1	25.7	41.4	12.9	0.0	20.0	25.7	54.3	4.44	63.5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0.0	10.3	10.3	31.0	34.5	10.3	3.4	20.7	31.0	48.3	4.34	62.1
	민간 전문기관	(7)	14.3	42.9	0.0	14.3	28.6	0.0	0.0	57.1	14.3	28.6	3.00	42.9
기타	(13)	0.0	7.7	7.7	46.2	23.1	15.4	0.0	15.4	46.2	38.5	4.31	61.5	
중사 분야	교육	(64)	0.0	3.1	17.2	25.0	25.0	23.4	6.3	20.3	25.0	54.7	4.67	66.7
	보건의료	(39)	0.0	5.1	2.6	23.1	48.7	15.4	5.1	7.7	23.1	69.2	4.82	68.9
	물공급 및 위생	(11)	0.0	0.0	9.1	18.2	36.4	27.3	9.1	9.1	18.2	72.7	5.09	72.7
	공공행정/거버넌스	(46)	0.0	4.3	2.2	23.9	30.4	30.4	8.7	6.5	23.9	69.6	5.07	72.4
	교통인프라(도로, 철도 등)	(10)	0.0	0.0	0.0	30.0	10.0	30.0	30.0	0.0	30.0	70.0	5.60	80.0
	에너지	(3)	0.0	66.7	0.0	0.0	0.0	33.3	0.0	66.7	0.0	33.3	3.33	47.6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4.2	0.0	8.3	16.7	37.5	33.3	0.0	12.5	16.7	70.8	4.83	69.0
	금융 및 회계	(10)	0.0	0.0	10.0	30.0	50.0	0.0	10.0	10.0	30.0	60.0	4.70	67.1
	농림수산	(56)	0.0	3.6	8.9	17.9	30.4	21.4	17.9	12.5	17.9	69.6	5.11	73.0
	산업	(16)	6.3	0.0	18.8	18.8	50.0	6.3	0.0	25.0	18.8	56.3	4.25	60.7
	관광	(3)	0.0	0.0	0.0	0.0	66.7	33.3	0.0	0.0	0.0	100.0	5.33	76.2
	환경 및 기후변화	(12)	0.0	8.3	8.3	16.7	50.0	16.7	0.0	16.7	16.7	66.7	4.58	65.5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0.0	4.9	15.9	15.9	37.8	14.6	11.0	20.7	15.9	63.4	4.74	67.8
기타	(28)	3.6	7.1	7.1	17.9	42.9	14.3	7.1	17.9	17.9	64.3	4.61	65.8	
중사 기간	1년 미만	(42)	0.0	0.0	4.8	21.4	38.1	23.8	11.9	4.8	21.4	73.8	5.17	73.8
	3년 미만	(90)	1.1	1.1	8.9	17.8	31.1	23.3	16.7	11.1	17.8	71.1	5.13	73.3
	5년 미만	(66)	0.0	6.1	9.1	15.2	36.4	25.8	7.6	15.2	15.2	69.7	4.89	69.9
	10년 미만	(81)	0.0	3.7	9.9	28.4	35.8	19.8	2.5	13.6	28.4	58.0	4.65	66.5
	15년 미만	(72)	2.8	6.9	16.7	19.4	36.1	13.9	4.2	26.4	19.4	54.2	4.38	62.5
	20년 미만	(27)	0.0	14.8	7.4	7.4	48.1	7.4	14.8	22.2	7.4	70.4	4.70	67.2
	20년 이상	(26)	0.0	0.0	11.5	26.9	30.8	23.1	7.7	11.5	26.9	61.5	4.88	69.8
성별	남성	(235)	1.3	3.4	9.4	17.4	37.0	19.6	11.9	14.0	17.4	68.5	4.92	70.3
	여성	(169)	0.0	5.3	11.2	23.7	33.7	21.3	4.7	16.6	23.7	59.8	4.69	66.9
최 저 학 력	대졸 이하	(139)	0.7	2.9	9.4	23.7	36.7	18.7	7.9	12.9	23.7	63.3	4.81	68.7
	석사 졸업	(126)	1.6	6.3	8.7	19.8	29.4	25.4	8.7	16.7	19.8	63.5	4.80	68.6
	박사 졸업	(139)	0.0	3.6	12.2	16.5	40.3	17.3	10.1	15.8	16.5	67.6	4.86	69.4

6) 항목6 : 사업 관리 절차 체계화

그림 3-12. 항목 6 : 사업 관리 절차 체계화

항목6 : 정부는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ODA 사업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있다.



‘정부는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ODA 사업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3.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15.1%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21.8%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긍정적 인식은 정부부처 그룹(8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 전문기관(42.9%)은 사업 관리 프로세스의 체계화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았다. 분야별로는 교통인프라(80.0%) 분야의 긍정 인식이 높고, 에너지 분야(66.7%)의 부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 기간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 응답자 유형의 75.6%가 체계적인 사업관리 절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응답자 유형은 23.6%가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았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중립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 간 편차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4. 항목 6 : 사업 관리 절차 체계화

전체, N=404, 단위: 개,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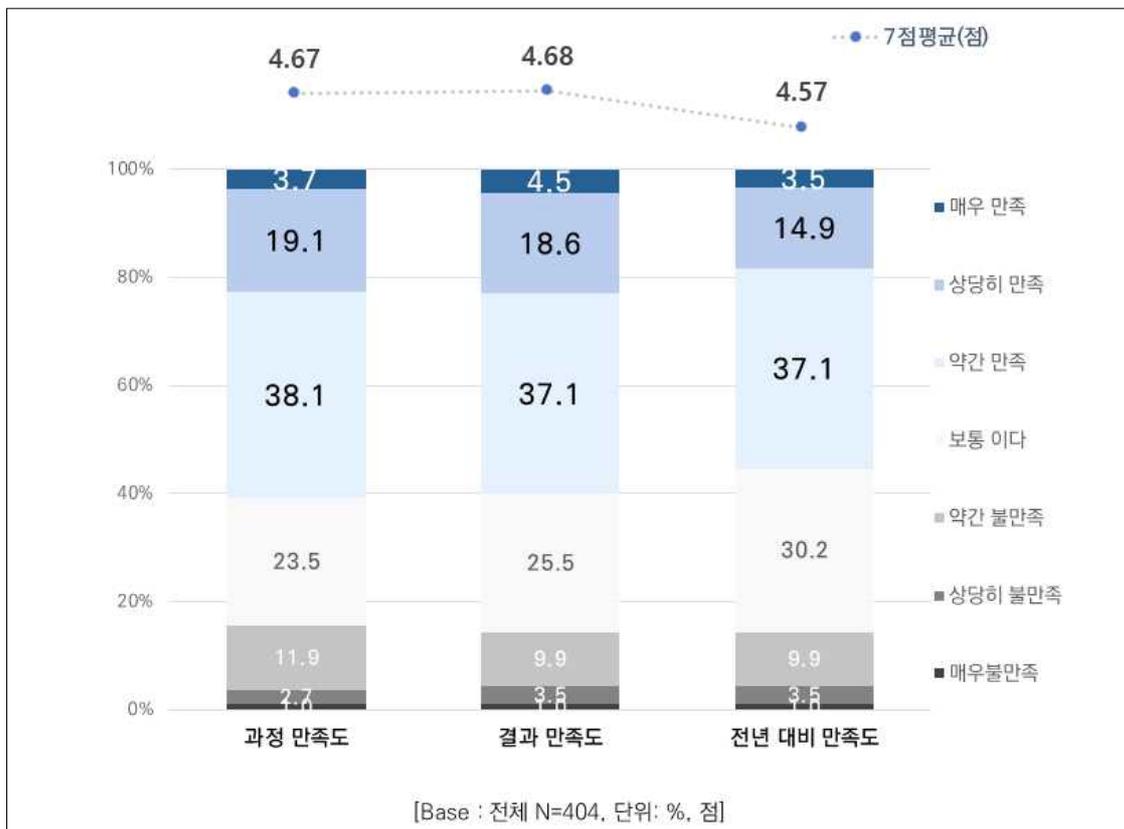
구 분	전 체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다	약간 그 렇 지 않다	보 통	다 소 그 렇 다	상 당 히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Botto m 3	Medi um	Top 3	7점 평균	100 점 평균	
전체	(404)	1.7	3.7	9.7	21.8	35.4	21.3	6.4	15.1	21.8	63.1	4.75	67.9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1.1	1.7	5.7	16.7	31.6	29.3	13.8	8.6	16.7	74.7	5.19	74.1
	연구부문	(111)	1.8	2.7	10.8	19.8	44.1	18.9	1.8	15.3	19.8	64.9	4.66	66.5
	민간부문	(106)	2.8	7.5	15.1	28.3	34.9	11.3	0.0	25.5	28.3	46.2	4.19	59.8
	기타	(13)	0.0	7.7	7.7	53.8	15.4	15.4	0.0	15.4	53.8	30.8	4.23	60.4
소속 기관 세 유형	정부부처	(85)	0.0	0.0	4.7	15.3	34.1	29.4	16.5	4.7	15.3	80.0	5.38	76.8
	공공기관	(83)	2.4	3.6	6.0	16.9	30.1	30.1	10.8	12.0	16.9	71.1	5.02	71.8
	국제기구	(6)	0.0	0.0	16.7	33.3	16.7	16.7	16.7	16.7	33.3	50.0	4.83	69.0
	대학	(74)	1.4	2.7	10.8	20.3	45.9	16.2	2.7	14.9	20.3	64.9	4.66	66.6
	연구기관	(37)	2.7	2.7	10.8	18.9	40.5	24.3	0.0	16.2	18.9	64.9	4.65	66.4
	시민단체	(70)	2.9	2.9	17.1	27.1	38.6	11.4	0.0	22.9	27.1	50.0	4.30	61.4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0.0	13.8	13.8	31.0	27.6	13.8	0.0	27.6	31.0	41.4	4.14	59.1
	민간 전문기관	(7)	14.3	28.6	0.0	28.6	28.6	0.0	0.0	42.9	28.6	28.6	3.29	46.9
기타	(13)	0.0	7.7	7.7	53.8	15.4	15.4	0.0	15.4	53.8	30.8	4.23	60.4	
중 사 분 야	교육	(64)	0.0	7.8	10.9	26.6	31.3	18.8	4.7	18.8	26.6	54.7	4.56	65.2
	보건의료	(39)	2.6	2.6	5.1	25.6	38.5	20.5	5.1	10.3	25.6	64.1	4.77	68.1
	물공급 및 위생	(11)	0.0	9.1	9.1	18.2	27.3	27.3	9.1	18.2	18.2	63.6	4.82	68.8
	공공행정/거버넌스	(46)	0.0	2.2	6.5	15.2	43.5	30.4	2.2	8.7	15.2	76.1	5.00	71.4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0.0	0.0	0.0	20.0	30.0	20.0	30.0	0.0	20.0	80.0	5.60	80.0
	에너지	(3)	0.0	66.7	0.0	0.0	0.0	33.3	0.0	66.7	0.0	33.3	3.33	47.6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4.2	0.0	12.5	16.7	25.0	37.5	4.2	16.7	16.7	66.7	4.88	69.6
	금융 및 회계	(10)	0.0	0.0	20.0	10.0	50.0	10.0	10.0	20.0	10.0	70.0	4.80	68.6
	농림수산	(56)	0.0	1.8	10.7	23.2	26.8	25.0	12.5	12.5	23.2	64.3	5.00	71.4
	산업	(16)	6.3	0.0	18.8	25.0	50.0	0.0	0.0	25.0	25.0	50.0	4.13	58.9
	관광	(3)	0.0	0.0	33.3	0.0	33.3	33.3	0.0	33.3	0.0	66.7	4.67	66.7
	환경 및 기후변화	(12)	0.0	8.3	8.3	8.3	66.7	8.3	0.0	16.7	8.3	75.0	4.58	65.5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3.7	2.4	8.5	26.8	34.1	17.1	7.3	14.6	26.8	58.5	4.66	66.6
기타	(28)	3.6	3.6	10.7	17.9	39.3	21.4	3.6	17.9	17.9	64.3	4.64	66.3	
중 사 기 간	1년 미만	(42)	0.0	0.0	4.8	28.6	26.2	28.6	11.9	4.8	28.6	66.7	5.14	73.5
	3년 미만	(90)	0.0	3.3	11.1	10.0	40.0	22.2	13.3	14.4	10.0	75.6	5.07	72.4
	5년 미만	(66)	3.0	3.0	4.5	28.8	28.8	25.8	6.1	10.6	28.8	60.6	4.79	68.4
	10년 미만	(81)	0.0	2.5	13.6	21.0	43.2	17.3	2.5	16.0	21.0	63.0	4.67	66.7
	15년 미만	(72)	5.6	5.6	12.5	19.4	38.9	16.7	1.4	23.6	19.4	56.9	4.36	62.3
	20년 미만	(27)	0.0	14.8	7.4	37.0	25.9	7.4	7.4	22.2	37.0	40.7	4.26	60.8
	20년 이상	(26)	3.8	0.0	7.7	26.9	26.9	34.6	0.0	11.5	26.9	61.5	4.77	68.1
성 별	남성	(235)	1.7	3.8	8.9	17.9	35.3	24.3	8.1	14.5	17.9	67.7	4.86	69.5
	여성	(169)	1.8	3.6	10.7	27.2	35.5	17.2	4.1	16.0	27.2	56.8	4.59	65.6
최 학 력	대졸 이하	(139)	1.4	2.9	10.1	29.5	33.1	14.4	8.6	14.4	29.5	56.1	4.68	66.8
	석사 졸업	(126)	3.2	4.8	4.8	22.2	32.5	27.0	5.6	12.7	22.2	65.1	4.79	68.5
	박사 졸업	(139)	0.7	3.6	13.7	13.7	40.3	23.0	5.0	18.0	13.7	68.3	4.78	68.3

나. 체감 만족도

그림 3-13.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개발원조’ 와 관련, 금년도 국제개발협력 추진 상황에 대한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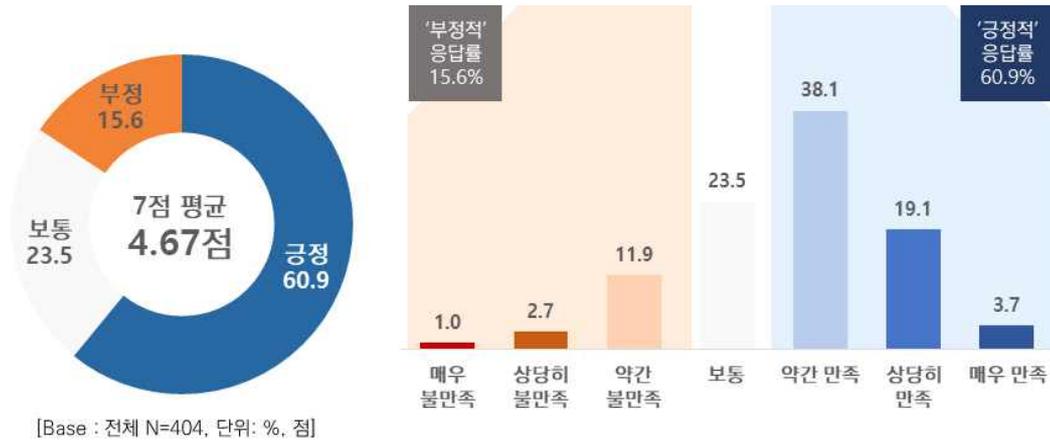
- 과정 만족도 :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결과 만족도 : 정부의 개도국 지원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전년 대비 만족도 : 전년 대비 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과정 만족도

그림 3-14.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과정 만족도

과정 만족도 :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60.9%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15.6%가 부정적 응답, 23.5%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공공부문(74.1%)의 응답자가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노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민간부문(26.4%)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소속기관 세부 유형별로는 정부부처(74.1%)와 공공기관(72.3%)의 과정 만족도가 높았고, 민간 전문기관(14.3%)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분야별로는 교통인프라, 에너지, 관광분야 응답자가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종사 기간별로는 20년 이상과 1년 미만 응답자그룹의 긍정적 인식이 각각 69.2%, 69.0%로 높았다. 여성(54.4%) 응답자에 비해 남성(65.5%) 응답자의 긍정 인식이 높은 편이며, 박사 졸업 학력수준에서 과정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4.0%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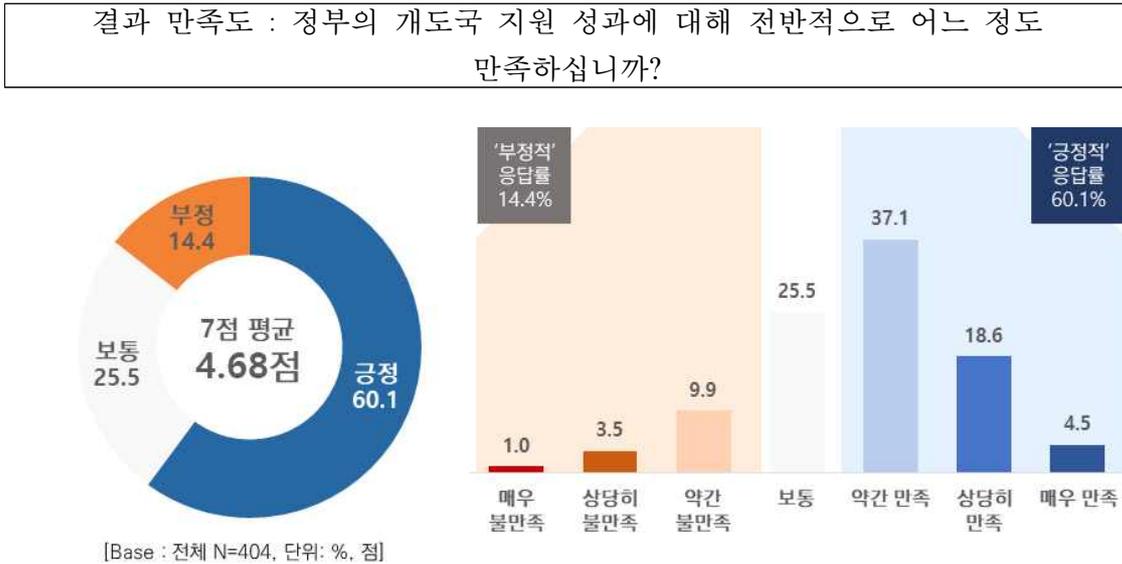
표 3-15.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과정 만족도

전체, N=404, 단위: 개, %, 점

구분	전체	매우 불만족	상당 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 히 만족	매우 만족	Botto m 3	Medi um	Top 3	7점 평균	100 점 평균	
전체	(404)	1.0	2.7	11.9	23.5	38.1	19.1	3.7	15.6	23.5	60.9	4.67	66.7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0.6	1.7	6.3	19.0	37.9	26.4	8.0	8.6	19.0	72.4	5.03	71.9
	연구부문	(111)	1.8	1.8	11.7	23.4	43.2	17.1	0.9	15.3	23.4	61.3	4.59	65.6
	민간부문	(106)	0.9	4.7	20.8	30.2	33.0	10.4	0.0	26.4	30.2	43.4	4.21	60.1
	기타	(13)	0.0	7.7	15.4	30.8	38.5	7.7	0.0	23.1	30.8	46.2	4.23	60.4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1.2	0.0	5.9	18.8	36.5	28.2	9.4	7.1	18.8	74.1	5.12	73.1
	공공기관	(83)	0.0	3.6	4.8	19.3	39.8	25.3	7.2	8.4	19.3	72.3	5.00	71.4
	국제기구	(6)	0.0	0.0	33.3	16.7	33.3	16.7	0.0	33.3	16.7	50.0	4.33	61.9
	대학	(74)	0.0	1.4	13.5	24.3	48.6	10.8	1.4	14.9	24.3	60.8	4.58	65.4
	연구기관	(37)	5.4	2.7	8.1	21.6	32.4	29.7	0.0	16.2	21.6	62.2	4.62	66.0
	시민단체	(70)	1.4	4.3	21.4	28.6	32.9	11.4	0.0	27.1	28.6	44.3	4.21	60.2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0.0	0.0	17.2	34.5	37.9	10.3	0.0	17.2	34.5	48.3	4.41	63.1
	민간 전문기관	(7)	0.0	28.6	28.6	28.6	14.3	0.0	0.0	57.1	28.6	14.3	3.29	46.9
기타	(13)	0.0	7.7	15.4	30.8	38.5	7.7	0.0	23.1	30.8	46.2	4.23	60.4	
종사 분야	교육	(64)	0.0	3.1	10.9	34.4	28.1	18.8	4.7	14.1	34.4	51.6	4.63	66.1
	보건의료	(39)	0.0	0.0	15.4	23.1	43.6	17.9	0.0	15.4	23.1	61.5	4.64	66.3
	물공급 및 위생	(11)	0.0	0.0	18.2	18.2	36.4	18.2	9.1	18.2	18.2	63.6	4.82	68.8
	공공행정/거버넌스	(46)	0.0	0.0	4.3	21.7	45.7	26.1	2.2	4.3	21.7	73.9	5.00	71.4
	교통인프라(도로, 철도 등)	(10)	0.0	0.0	0.0	10.0	40.0	40.0	10.0	0.0	10.0	90.0	5.50	78.6
	에너지	(3)	0.0	0.0	0.0	66.7	0.0	33.3	0.0	0.0	66.7	33.3	4.67	66.7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0.0	0.0	16.7	16.7	58.3	8.3	0.0	16.7	16.7	66.7	4.58	65.5
	금융 및 회계	(10)	0.0	10.0	0.0	20.0	60.0	10.0	0.0	10.0	20.0	70.0	4.60	65.7
	농림수산	(56)	1.8	5.4	14.3	14.3	32.1	25.0	7.1	21.4	14.3	64.3	4.73	67.6
	산업	(16)	6.3	6.3	18.8	18.8	50.0	0.0	0.0	31.3	18.8	50.0	4.00	57.1
	관광	(3)	0.0	0.0	0.0	0.0	33.3	66.7	0.0	0.0	0.0	100.0	5.67	81.0
	환경 및 기후변화	(12)	0.0	8.3	16.7	16.7	50.0	8.3	0.0	25.0	16.7	58.3	4.33	61.9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1.2	2.4	13.4	26.8	36.6	14.6	4.9	17.1	26.8	56.1	4.59	65.5
기타	(28)	3.6	3.6	10.7	28.6	25.0	25.0	3.6	17.9	28.6	53.6	4.57	65.3	
종사 기간	1년 미만	(42)	2.4	0.0	9.5	19.0	38.1	19.0	11.9	11.9	19.0	69.0	4.95	70.7
	3년 미만	(90)	0.0	2.2	12.2	18.9	37.8	21.1	7.8	14.4	18.9	66.7	4.87	69.5
	5년 미만	(66)	1.5	1.5	10.6	24.2	40.9	21.2	0.0	13.6	24.2	62.1	4.65	66.5
	10년 미만	(81)	0.0	1.2	12.3	28.4	38.3	17.3	2.5	13.6	28.4	58.0	4.65	66.5
	15년 미만	(72)	2.8	5.6	19.4	23.6	36.1	12.5	0.0	27.8	23.6	48.6	4.22	60.3
	20년 미만	(27)	0.0	11.1	3.7	25.9	40.7	14.8	3.7	14.8	25.9	59.3	4.56	65.1
	20년 이상	(26)	0.0	0.0	3.8	26.9	34.6	34.6	0.0	3.8	26.9	69.2	5.00	71.4
성별	남성	(235)	0.9	3.8	10.6	19.1	38.7	21.7	5.1	15.3	19.1	65.5	4.77	68.1
	여성	(169)	1.2	1.2	13.6	29.6	37.3	15.4	1.8	16.0	29.6	54.4	4.54	64.8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39)	0.0	1.4	14.4	27.3	37.4	15.1	4.3	15.8	27.3	56.8	4.63	66.2
	석사 졸업	(126)	2.4	4.8	8.7	22.2	34.9	21.4	5.6	15.9	22.2	61.9	4.69	67.0
	박사 졸업	(139)	0.7	2.2	12.2	20.9	41.7	20.9	1.4	15.1	20.9	64.0	4.69	67.0

2)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결과 만족도

그림 3-15.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결과 만족도



‘정부의 개도국 지원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60.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14.4%가 부정적 응답, 25.5%는 중립적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공공기관(69.9%) 응답자의 개도국 지원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민간 전문기관(42.9%)과 국제기구(33.3%)는 다른 응답그룹에 비해 부정적 응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관광(100%), 물공급 및 위생(72.7%), 정보통신 및 IT 기술(70.8%) 분야 응답그룹의 결과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에너지(66.7%) 분야 응답그룹은 결과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종사 기간별로는 20년 이상(76.9%) 종사경력이 있는 응답자에서 긍정적 응답비중이 높고, 10년 이상~ 15년 미만(25.0%) 응답그룹은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별로는 석사 졸업(64.3%) 응답자 그룹의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표 3-16.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결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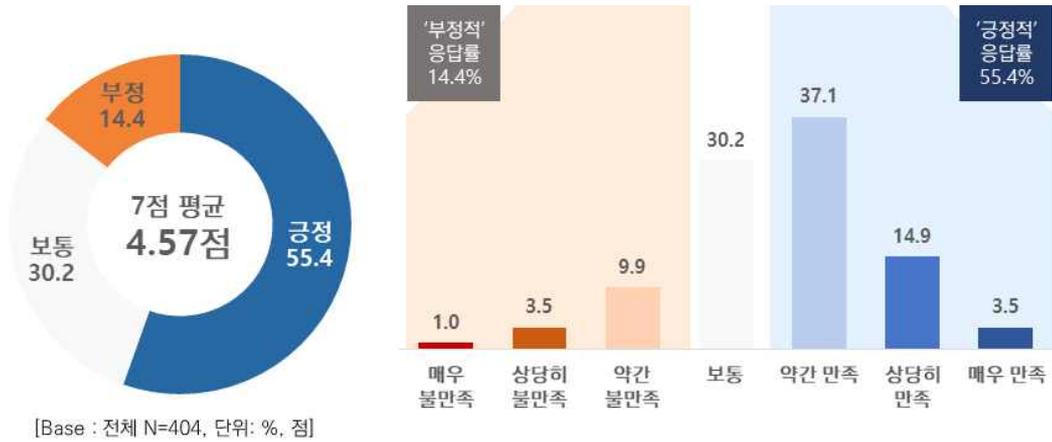
전체, N=404, 단위: 개, %, 점

구 분		전 체	매우 불만족	상당 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 히 만족	매우 만족	Botto m 3	Medi um	Top 3	7점 평균	100 점 평균
전체		(404)	1.0	3.5	9.9	25.5	37.1	18.6	4.5	14.4	25.5	60.1	4.68	66.8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0.6	2.9	5.7	21.3	35.6	24.1	9.8	9.2	21.3	69.5	5.00	71.4
	연구부문	(111)	1.8	1.8	10.8	27.0	39.6	18.0	0.9	14.4	27.0	58.6	4.59	65.5
	민간부문	(106)	0.9	5.7	15.1	28.3	39.6	10.4	0.0	21.7	28.3	50.0	4.31	61.6
	기타	(13)	0.0	7.7	15.4	46.2	15.4	15.4	0.0	23.1	46.2	30.8	4.15	59.3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0.0	2.4	5.9	22.4	34.1	23.5	11.8	8.2	22.4	69.4	5.06	72.3
	공공기관	(83)	1.2	3.6	3.6	21.7	36.1	25.3	8.4	8.4	21.7	69.9	4.98	71.1
	국제기구	(6)	0.0	0.0	33.3	0.0	50.0	16.7	0.0	33.3	0.0	66.7	4.50	64.3
	대학	(74)	0.0	2.7	10.8	27.0	40.5	17.6	1.4	13.5	27.0	59.5	4.64	66.2
	연구기관	(37)	5.4	0.0	10.8	27.0	37.8	18.9	0.0	16.2	27.0	56.8	4.49	64.1
	시민단체	(70)	1.4	4.3	11.4	27.1	45.7	10.0	0.0	17.1	27.1	55.7	4.41	63.1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0.0	6.9	20.7	27.6	31.0	13.8	0.0	27.6	27.6	44.8	4.24	60.6
	민간 전문기관	(7)	0.0	14.3	28.6	42.9	14.3	0.0	0.0	42.9	42.9	14.3	3.57	51.0
기타	(13)	0.0	7.7	15.4	46.2	15.4	15.4	0.0	23.1	46.2	30.8	4.15	59.3	
종사 분야	교육	(64)	0.0	0.0	12.5	28.1	39.1	15.6	4.7	12.5	28.1	59.4	4.72	67.4
	보건의료	(39)	0.0	5.1	10.3	28.2	41.0	15.4	0.0	15.4	28.2	56.4	4.51	64.5
	물공급 및 위생	(11)	0.0	9.1	0.0	18.2	45.5	27.3	0.0	9.1	18.2	72.7	4.82	68.8
	공공행정/거버넌스	(46)	0.0	0.0	6.5	21.7	39.1	23.9	8.7	6.5	21.7	71.7	5.07	72.4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0.0	0.0	0.0	30.0	20.0	40.0	10.0	0.0	30.0	70.0	5.30	75.7
	에너지	(3)	0.0	0.0	66.7	0.0	0.0	33.3	0.0	66.7	0.0	33.3	4.00	57.1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4.2	0.0	12.5	12.5	54.2	16.7	0.0	16.7	12.5	70.8	4.63	66.1
	금융 및 회계	(10)	0.0	0.0	10.0	30.0	20.0	40.0	0.0	10.0	30.0	60.0	4.90	70.0
	농림수산	(56)	0.0	12.5	5.4	17.9	35.7	19.6	8.9	17.9	17.9	64.3	4.71	67.3
	산업	(16)	6.3	6.3	12.5	25.0	43.8	6.3	0.0	25.0	25.0	50.0	4.13	58.9
	관광	(3)	0.0	0.0	0.0	0.0	66.7	33.3	0.0	0.0	0.0	100.0	5.33	76.2
	환경 및 기후변화	(12)	0.0	8.3	25.0	25.0	33.3	8.3	0.0	33.3	25.0	41.7	4.08	58.3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1.2	2.4	9.8	29.3	39.0	13.4	4.9	13.4	29.3	57.3	4.62	66.0
기타	(28)	3.6	0.0	10.7	42.9	14.3	25.0	3.6	14.3	42.9	42.9	4.54	64.8	
종사 기간	1년 미만	(42)	0.0	2.4	9.5	21.4	35.7	19.0	11.9	11.9	21.4	66.7	4.95	70.7
	3년 미만	(90)	0.0	1.1	7.8	26.7	34.4	21.1	8.9	8.9	26.7	64.4	4.93	70.5
	5년 미만	(66)	1.5	3.0	9.1	27.3	39.4	18.2	1.5	13.6	27.3	59.1	4.61	65.8
	10년 미만	(81)	0.0	1.2	12.3	23.5	44.4	16.0	2.5	13.6	23.5	63.0	4.69	67.0
	15년 미만	(72)	4.2	9.7	11.1	26.4	31.9	15.3	1.4	25.0	26.4	48.6	4.24	60.5
	20년 미만	(27)	0.0	7.4	14.8	33.3	33.3	7.4	3.7	22.2	33.3	44.4	4.30	61.4
	20년 이상	(26)	0.0	0.0	3.8	19.2	38.5	38.5	0.0	3.8	19.2	76.9	5.12	73.1
성별	남성	(235)	1.3	3.0	9.8	21.7	35.7	22.1	6.4	14.0	21.7	64.3	4.80	68.5
	여성	(169)	0.6	4.1	10.1	30.8	39.1	13.6	1.8	14.8	30.8	54.4	4.51	64.5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39)	0.7	1.4	13.7	28.1	36.7	14.4	5.0	15.8	28.1	56.1	4.62	66.0
	석사 졸업	(126)	1.6	6.3	5.6	22.2	34.9	23.8	5.6	13.5	22.2	64.3	4.76	68.0
	박사 졸업	(139)	0.7	2.9	10.1	25.9	39.6	18.0	2.9	13.7	25.9	60.4	4.66	66.6

3)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전년 대비 만족도

그림 3-16.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전년 대비 만족도

전년 대비 만족도 : 전년 대비 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년 대비 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5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체감 만족도 중 긍정적 인식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응답자의 14.4%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30.2%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국제기구(83.3%) 응답자가 전년대비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기타(23.1%) 응답자에서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종사 분야별로는 교통인프라 분야 응답자의 긍정적 인식이 70.0%로 높았고, 에너지 분야는 부정적 인식이 66.7%로 높았다. 종사기간별로 20년 이상 응답자의 65.4%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10년 이상~15년 미만 응답자의 25.0%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3-17.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전년 대비 만족도

전체, N=404, 단위: 개, %, 점

구 분		전 체	매우 불만족	상당 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 히 만족	매우 만족	Botto m 3	Medi um	Top 3	7점 평균	100 점 평균
전체		(404)	1.0	3.5	9.9	30.2	37.1	14.9	3.5	14.4	30.2	55.4	4.57	65.3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0.6	2.9	6.9	21.8	42.0	18.4	7.5	10.3	21.8	67.8	4.87	69.5
	연구부문	(111)	1.8	1.8	11.7	31.5	38.7	13.5	0.9	15.3	31.5	53.2	4.48	64.0
	민간부문	(106)	0.9	5.7	12.3	40.6	31.1	9.4	0.0	18.9	40.6	40.6	4.24	60.5
	기타	(13)	0.0	7.7	15.4	46.2	7.7	23.1	0.0	23.1	46.2	30.8	4.23	60.4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0.0	2.4	7.1	21.2	43.5	16.5	9.4	9.4	21.2	69.4	4.93	70.4
	공공기관	(83)	1.2	3.6	6.0	24.1	38.6	20.5	6.0	10.8	24.1	65.1	4.81	68.7
	국제기구	(6)	0.0	0.0	16.7	0.0	66.7	16.7	0.0	16.7	0.0	83.3	4.83	69.0
	대학	(74)	0.0	2.7	9.5	33.8	40.5	12.2	1.4	12.2	33.8	54.1	4.54	64.9
	연구기관	(37)	5.4	0.0	16.2	27.0	35.1	16.2	0.0	21.6	27.0	51.4	4.35	62.2
	시민단체	(70)	1.4	4.3	12.9	38.6	31.4	11.4	0.0	18.6	38.6	42.9	4.29	61.2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0.0	6.9	13.8	37.9	34.5	6.9	0.0	20.7	37.9	41.4	4.21	60.1
	민간 전문기관	(7)	0.0	14.3	0.0	71.4	14.3	0.0	0.0	14.3	71.4	14.3	3.86	55.1
기타	(13)	0.0	7.7	15.4	46.2	7.7	23.1	0.0	23.1	46.2	30.8	4.23	60.4	
종사 분야	교육	(64)	0.0	3.1	9.4	35.9	31.3	15.6	4.7	12.5	35.9	51.6	4.61	65.8
	보건의료	(39)	0.0	2.6	10.3	38.5	30.8	17.9	0.0	12.8	38.5	48.7	4.51	64.5
	물공급 및 위생	(11)	0.0	0.0	0.0	45.5	18.2	36.4	0.0	0.0	45.5	54.5	4.91	70.1
	공공행정/거버넌스	(46)	0.0	0.0	6.5	26.1	43.5	21.7	2.2	6.5	26.1	67.4	4.87	69.6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0.0	0.0	0.0	30.0	50.0	10.0	10.0	0.0	30.0	70.0	5.00	71.4
	에너지	(3)	0.0	0.0	66.7	0.0	0.0	33.3	0.0	66.7	0.0	33.3	4.00	57.1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4.2	8.3	0.0	20.8	58.3	8.3	0.0	12.5	20.8	66.7	4.46	63.7
	금융 및 회계	(10)	0.0	0.0	0.0	30.0	60.0	10.0	0.0	0.0	30.0	70.0	4.80	68.6
	농림수산	(56)	0.0	8.9	8.9	23.2	35.7	16.1	7.1	17.9	23.2	58.9	4.63	66.1
	산업	(16)	6.3	6.3	6.3	18.8	56.3	6.3	0.0	18.8	18.8	62.5	4.31	61.6
	관광	(3)	0.0	0.0	0.0	33.3	33.3	33.3	0.0	0.0	33.3	66.7	5.00	71.4
	환경 및 기후변화	(12)	0.0	8.3	25.0	16.7	50.0	0.0	0.0	33.3	16.7	50.0	4.08	58.3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1.2	2.4	14.6	32.9	34.1	9.8	4.9	18.3	32.9	48.8	4.45	63.6
기타	(28)	3.6	0.0	14.3	35.7	25.0	17.9	3.6	17.9	35.7	46.4	4.46	63.8	
종사 기간	1년 미만	(42)	0.0	4.8	11.9	21.4	35.7	14.3	11.9	16.7	21.4	61.9	4.79	68.4
	3년 미만	(90)	0.0	3.3	6.7	26.7	38.9	17.8	6.7	10.0	26.7	63.3	4.81	68.7
	5년 미만	(66)	1.5	1.5	6.1	33.3	42.4	15.2	0.0	9.1	33.3	57.6	4.59	65.6
	10년 미만	(81)	0.0	3.7	12.3	29.6	37.0	14.8	2.5	16.0	29.6	54.3	4.54	64.9
	15년 미만	(72)	4.2	5.6	15.3	33.3	31.9	9.7	0.0	25.0	33.3	41.7	4.13	58.9
	20년 미만	(27)	0.0	3.7	11.1	40.7	33.3	7.4	3.7	14.8	40.7	44.4	4.41	63.0
	20년 이상	(26)	0.0	0.0	3.8	30.8	38.5	26.9	0.0	3.8	30.8	65.4	4.88	69.8
성별	남성	(235)	1.3	3.8	9.4	27.2	36.2	17.4	4.7	14.5	27.2	58.3	4.64	66.3
	여성	(169)	0.6	3.0	10.7	34.3	38.5	11.2	1.8	14.2	34.3	51.5	4.48	64.0
최학 종력	대졸 이하	(139)	0.7	2.9	10.8	31.7	38.1	11.5	4.3	14.4	31.7	54.0	4.55	65.1
	석사 졸업	(126)	1.6	4.8	7.9	28.6	34.1	18.3	4.8	14.3	28.6	57.1	4.63	66.1
	박사 졸업	(139)	0.7	2.9	10.8	30.2	38.8	15.1	1.4	14.4	30.2	55.4	4.55	65.0

제4장 ODA 전문가 인식조사 주요 결과 분석

1. ODA에 대한 기초 인식

본 설문조사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평가 이외에 ODA 전문가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ODA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ODA 적정 규모 및 주요 정책 개선과제, 정책 일관성 제고 등 정부의 ODA 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ODA 전문가 중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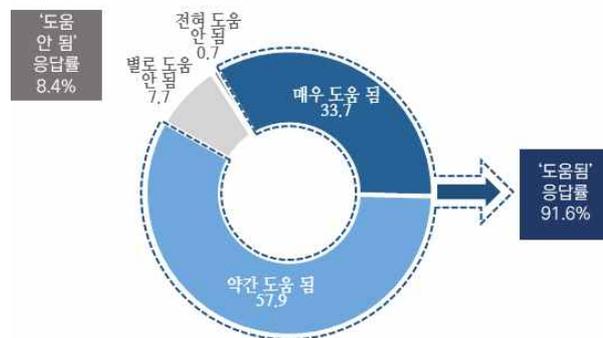
2. 정부의 ODA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적정대외원조 규모 및 비중, ODA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 ODA 정책 개선과제, 적절한 ODA 사업 수행기관, 정책일관성 등 정부의 ODA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가.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그림 4-1.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문10.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N=404, 단위: %]

설문에 응한 91.6%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33.7%이며,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57.9%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8.4%이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0.7%(3명)에 해당한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작년과 유사하나,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1.7%p 감소,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1.7%p 증가하였다.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에 대한 응답을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응답자 비중은 공공부문이 94.8%(약간 도움됨: 51.7%, 매우 도움됨: 43.1%)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부문 90.6%(약간 도움됨: 61.3%, 매우 도움됨: 29.2%), 연구부문 88.3%(약간 도움됨: 64.9%, 매우 도움됨: 23.4%) 순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연구부문 11.7%, 민간부문 9.4%, 공공부문 5.2% 순이었다.

소속기관 세부 유형별 우리나라 원조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응답 비중은 정부부처가 9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시민단체 94.3%, 공공기관 92.8%, 대학 91.9%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정적 응답 비중은 연구기관 18.9%,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17.2%, 국제기구 16.7%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 분야 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회계, 관광 종사자 응답자의 전원이 우리나라 원조가 개도국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교육 및 농림수산 분야 응답자의 대부분인 95.2%, 94.3%가 우리나라 원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에너지 분야 종사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⁷⁾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 종사한 응답자의 경우에도 75%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종사 기간별로 보면 종사기간이 짧을수록 우리나라의 원조가 개도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종사 기간이 증가할수록 원조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점차 낮아져, 종사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응답자가 우리나라 원조가 개도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83.3%로 가장 낮았다. 반면 20년 이상 종사한 응답자의 100%가 우리나라 원조가 개도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7) 단, 에너지 분야 종사자는 3명임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한다.

표 4-1.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원국 도움 정도

전체, N=404,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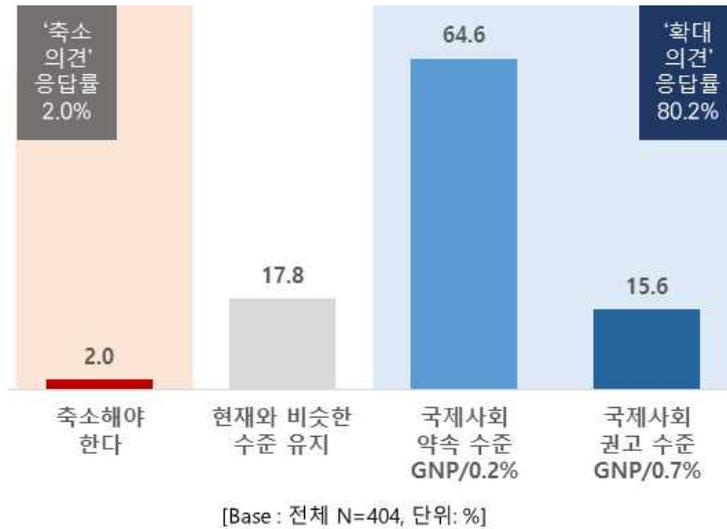
구 분	전 체	전혀 도움 됨	별로 도움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도움 안 됨	도움됨	
전체	(404)	0.7	7.7	57.9	33.7	8.4	91.6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0.6	4.6	51.7	43.1	5.2	94.8
	연구부문	(111)	0.9	10.8	64.9	23.4	11.7	88.3
	민간부문	(106)	0.9	8.5	61.3	29.2	9.4	90.6
	기타	(13)	0.0	15.4	53.8	30.8	15.4	84.6
소속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0.0	2.4	57.6	40.0	2.4	97.6
	공공기관	(83)	1.2	6.0	45.8	47.0	7.2	92.8
	국제기구	(6)	0.0	16.7	50.0	33.3	16.7	83.3
	대학	(74)	0.0	8.1	66.2	25.7	8.1	91.9
	연구기관	(37)	2.7	16.2	62.2	18.9	18.9	81.1
	시민단체	(70)	1.4	4.3	65.7	28.6	5.7	94.3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0.0	17.2	58.6	24.1	17.2	82.8
	민간 전문기관	(7)	0.0	14.3	28.6	57.1	14.3	85.7
	기타	(13)	0.0	15.4	53.8	30.8	15.4	84.6
종사 분야	교육	(64)	1.6	3.1	54.7	40.6	4.7	95.3
	보건의료	(39)	0.0	15.4	61.5	23.1	15.4	84.6
	물공급 및 위생	(11)	0.0	9.1	54.5	36.4	9.1	90.9
	공공행정/거버넌스	(46)	0.0	4.3	63.0	32.6	4.3	95.7
	교통인프라(도로, 철도 등)	(10)	0.0	10.0	50.0	40.0	10.0	90.0
	에너지	(3)	0.0	33.3	66.7	0.0	33.3	66.7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4.2	4.2	70.8	20.8	8.3	91.7
	금융 및 회계	(10)	0.0	0.0	80.0	20.0	0.0	100.0
	농림수산	(56)	0.0	7.1	55.4	37.5	7.1	92.9
	산업	(16)	6.3	12.5	81.3	0.0	18.8	81.3
	관광	(3)	0.0	0.0	0.0	100.0	0.0	100.0
	환경 및 기후변화	(12)	0.0	25.0	50.0	25.0	25.0	75.0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0.0	7.3	53.7	39.0	7.3	92.7
기타	(28)	0.0	7.1	50.0	42.9	7.1	92.9	
종사 기간	1년 미만	(42)	0.0	2.4	47.6	50.0	2.4	97.6
	3년 미만	(90)	0.0	5.6	56.7	37.8	5.6	94.4
	5년 미만	(66)	0.0	7.6	63.6	28.8	7.6	92.4
	10년 미만	(81)	1.2	8.6	66.7	23.5	9.9	90.1
	15년 미만	(72)	2.8	13.9	56.9	26.4	16.7	83.3
	20년 미만	(27)	0.0	11.1	55.6	33.3	11.1	88.9
	20년 이상	(26)	0.0	0.0	42.3	57.7	0.0	100.0
성별	남성	(235)	0.9	7.7	54.0	37.4	8.5	91.5
	여성	(169)	0.6	7.7	63.3	28.4	8.3	91.7
최학 종력	대졸 이하	(139)	1.4	6.5	60.4	31.7	7.9	92.1
	석사 졸업	(126)	0.0	7.9	51.6	40.5	7.9	92.1
	박사 졸업	(139)	0.7	8.6	61.2	29.5	9.4	90.6

나. 적정대외원조 규모

1) 적정 대외원조 규모

그림 4-2. 적정대외원조 규모

문11.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는 전체 국민총소득(GNI) 대비 약 0.15%입니다. 향후 대외원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우리나라의 적정 대외원조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 ODA 전문가 중 80.2%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중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약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 0.2%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4.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7.8%, 국제사회 권고 수준인 GNI 대비 ODA 비중 0.7%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15.6%를 차지하였다. 반면, ODA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작년과 비교하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다소 높아졌으나, ODA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가 되는 것은 유사하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3.4%가 현재 수준보다 ODA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4.1%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분야 종사자들의 14.4%가 현재 수준 유지, 69.6%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GNI 대비 0.2%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민간부문 종사자의 65.1%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국제사회 권고 수준인 GNI 대비 0.7%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21.7%를 차지하였다.

종사기간별로 현재 수준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유형은 15년 이상~20년 미만 종사자로 3.7%가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비중이 가장 높았던 유형은 1년 이상~3년

미만 종사자(30.0%)이며, 국제사회와 약속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던 유형은 10년 이상~15년 미만(72.2%), 국제사회 권고기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20년 이상 종사자(26.9%)에서 가장 높았다.

표 4-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적정 규모

전체, N=404,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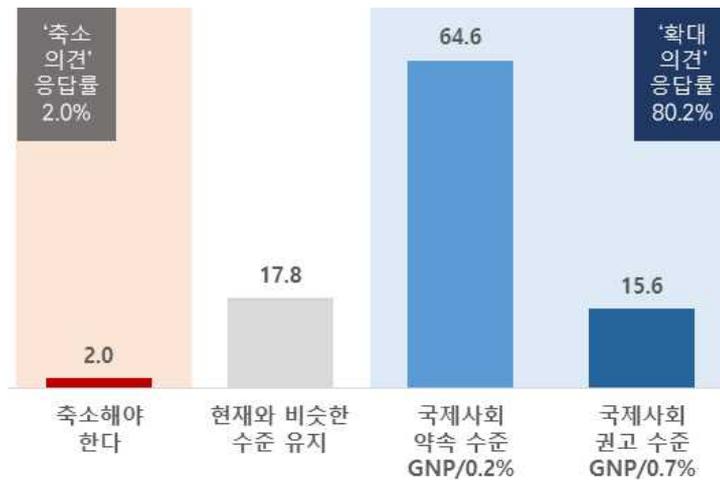
구 분		전 체	현재 수준보다 축소해야 한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수준(GNI의 0.2%)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제사회 권고기준 수준(GNI의 0.7%)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체		(404)	2.0	17.8	64.6	15.6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3.4	24.1	59.8	12.6
	연구부문	(111)	0.9	14.4	69.4	15.3
	민간부문	(106)	0.9	12.3	65.1	21.7
	기타	(13)	0.0	7.7	84.6	7.7
소속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3.5	31.8	55.3	9.4
	공공기관	(83)	3.6	18.1	63.9	14.5
	국제기구	(6)	0.0	0.0	66.7	33.3
	대학	(74)	1.4	10.8	70.3	17.6
	연구기관	(37)	0.0	21.6	67.6	10.8
	시민단체	(70)	0.0	10.0	68.6	21.4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3.4	10.3	65.5	20.7
	민간 전문기관	(7)	0.0	42.9	28.6	28.6
기타	(13)	0.0	7.7	84.6	7.7	
종사 분야	교육	(64)	3.1	17.2	60.9	18.8
	보건의료	(39)	2.6	23.1	64.1	10.3
	물공급 및 위생	(11)	0.0	27.3	36.4	36.4
	공공행정/거버넌스	(46)	2.2	23.9	65.2	8.7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10.0	20.0	60.0	10.0
	에너지	(3)	0.0	33.3	33.3	33.3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4.2	25.0	58.3	12.5
	금융 및 회계	(10)	0.0	20.0	50.0	30.0
	농림수산	(56)	1.8	14.3	66.1	17.9
	산업	(16)	0.0	43.8	56.3	0.0
	관광	(3)	0.0	33.3	66.7	0.0
	환경 및 기후변화	(12)	8.3	0.0	58.3	33.3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0.0	9.8	79.3	11.0	
기타	(28)	0.0	10.7	60.7	28.6	
종사 기간	1년 미만	(42)	2.4	28.6	59.5	9.5
	3년 미만	(90)	2.2	30.0	54.4	13.3
	5년 미만	(66)	0.0	16.7	63.6	19.7
	10년 미만	(81)	2.5	7.4	71.6	18.5
	15년 미만	(72)	2.8	16.7	72.2	8.3
	20년 미만	(27)	3.7	7.4	66.7	22.2
	20년 이상	(26)	0.0	7.7	65.4	26.9
성별	남성	(235)	0.9	15.3	65.1	18.7
	여성	(169)	3.6	21.3	63.9	11.2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39)	3.6	22.3	58.3	15.8
	석사 졸업	(126)	0.8	15.1	67.5	16.7
	박사 졸업	(139)	1.4	15.8	68.3	14.4

2) 2021년 기준 적절한 대외원조 규모

2021년 기준 적절한 대외원조 규모를 묻는 주관식형 질문에, ODA 전문가들은 평균 97,452원을 공여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10만원 이상 및 2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5.5%에 달했다. 특히 작년 대비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7.2%p 줄어들었으며, 10만원 이상 및 2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2.1%p 증가하였다.

그림 4-3. 적정 대외원조 규모

문12. 2019년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는 전체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로, 1인당 연간 약 5만 7천 원(약 49달러)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21년 국민 1인당 적절한 대외원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금액 수준을 참고해 적당한 금액 수준을 응답해주세요(주관식).



[Base : 전체 N=404, 단위: %]

소속기관 유형별로 적정 대외원조규모 평균을 살펴보면, 연구부문 종사자가 102,466원이라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속기관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에 속한 응답자가 107,17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시민단체 종사자가 104,272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장 낮은 적정 ODA 규모를 답한 집단은 민간 전문기관으로 평균 70,019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분야별로는 금융 및 회계 종사자가 123,100원이 적절한 대외원조 규모라고 응답했으며, 보건 분야 종사자는 78,769원이 적절한 ODA 지원액이라 응답해 가장 낮은 금액을 나타냈다.

종사기간별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12,458원이 2021년 ODA 적정액이라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년 미만 86,048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86,747원, 1년 이상 3년 미만은 92,922원으로 나타나 평균에 비해 낮은 금액을 공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 4-3. 향후 2021년 기준 적절한 대외원조 규모

전체, N=404, 단위: 개, %, 원

구 분		전 체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평균(원)
전체		(404)	48.8	45.5	4.5	1.2	97,452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47.1	47.1	5.2	0.6	94,585
	연구부문	(111)	52.3	43.2	1.8	2.7	102,466
	민간부문	(106)	46.2	46.2	6.6	0.9	98,594
	기타	(13)	61.5	38.5	0.0	0.0	83,692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48.2	45.9	4.7	1.2	95,210
	공공기관	(83)	47.0	48.2	4.8	0.0	93,795
	국제기구	(6)	33.3	50.0	16.7	0.0	96,668
	대학	(74)	54.1	40.5	2.7	2.7	107,175
	연구기관	(37)	48.6	48.6	0.0	2.7	93,049
	시민단체	(70)	44.3	45.7	8.6	1.4	103,711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48.3	48.3	3.4	0.0	93,138
	민간 전문기관	(7)	57.1	42.9	0.0	0.0	70,019
기타	(13)	61.5	38.5	0.0	0.0	83,692	
종사 분야	교육	(64)	62.5	32.8	4.7	0.0	86,579
	보건의료	(39)	59.0	41.0	0.0	0.0	79,769
	불공급 및 위생	(11)	36.4	54.5	9.1	0.0	105,545
	공공행정/거버넌스	(46)	58.7	39.1	0.0	2.2	88,262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40.0	50.0	10.0	0.0	104,500
	에너지	(3)	66.7	0.0	33.3	0.0	102,001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45.8	45.8	8.3	0.0	92,667
	금융 및 회계	(10)	40.0	50.0	0.0	10.0	123,100
	농림수산	(56)	50.0	46.4	1.8	1.8	90,946
	산업	(16)	43.8	56.3	0.0	0.0	88,176
	관광	(3)	66.7	33.3	0.0	0.0	95,333
	환경 및 기후변화	(12)	25.0	66.7	8.3	0.0	107,917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40.2	50.0	7.3	2.4	118,473
기타	(28)	32.1	60.7	7.1	0.0	103,279	
종사 기간	1년 미만	(42)	57.1	40.5	2.4	0.0	86,048
	3년 미만	(90)	52.2	41.1	5.6	1.1	92,922
	5년 미만	(66)	42.4	54.5	1.5	1.5	97,798
	10년 미만	(81)	51.9	40.7	4.9	2.5	112,458
	15년 미만	(72)	47.2	51.4	1.4	0.0	86,747
	20년 미만	(27)	44.4	37.0	14.8	3.7	105,734
	20년 이상	(26)	38.5	53.8	7.7	0.0	104,966
성별	남성	(235)	44.7	48.1	5.5	1.7	104,362
	여성	(169)	54.4	42.0	3.0	0.6	87,843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39)	46.8	46.0	6.5	0.7	97,695
	석사 졸업	(126)	43.7	50.8	4.8	0.8	95,008
	박사 졸업	(139)	55.4	40.3	2.2	2.2	99,424

다. ODA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그림 4-4. ODA 사업과 관련 중요한 정보

문13. 귀하께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ODA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ODA 전문가들은 사업 결과가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ODA 사업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응답하였다(83.9%, 2가지 복수응답).⁸⁾ 그 뒤를 이어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가 37.9%, 원조를 받는 국가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34.7%) 순으로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중 민간부문의 경우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21.7%로, 공공 및 연구부문에 비해 높았다. 특히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기관의 응답자 중 22.9%, 28.6%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종사 분야별로 전 분야 종사자가 사업결과가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보통신 및 IT 기술 종사자의 70.8%가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 물공급 및 위생, 산업 분야 종사자도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40% 이상이었다. 환경 및 기후변화의 경우 수원국 주민들이 만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비중이 50%였다.

종사기간과 상관없이 사업결과가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5년 미만, 20년 이상 종사한 응답자의 40% 이상이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원조를

8) 사업결과가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1순위)고 답한 비중도 69.5%로 가장 높았다.

받는 국가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답한 3년 이상 및 5년 미만 종사자 비중은 45.5%, 15년 이상 20년 미만 비중은 51.9%를 기록하였다. 10년~15년 종사한 응답자의 경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중요하다고 답한 비중이 31.9%로, 다른 구간 대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4. ODA 사업과 관련 중요한 정보(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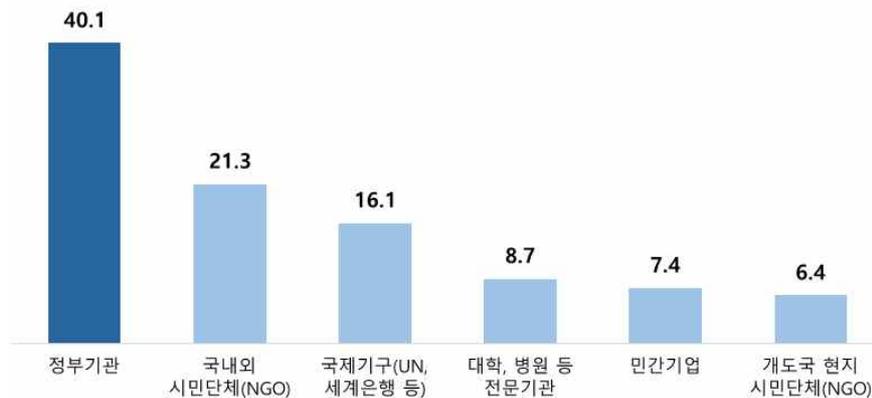
전체, N=404, 단위: 개, %, 복수응답

구분	전체	사업 결과가 실제로 개발 도상국에 도움이 되었는지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원조를 받는 국가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 로 사용 되었는지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평가 결과가 제도에 개선에 활용되었 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성공적 인지	기타	
전체	(404)	83.9	37.9	34.7	21.8	11.6	5.9	2.7	1.5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86.8	40.2	35.6	21.3	6.3	3.4	4.0	2.3
	연구부문	(111)	84.7	32.4	31.5	26.1	10.8	11.7	1.8	0.9
	민간부문	(106)	76.4	39.6	35.8	18.9	21.7	4.7	1.9	0.9
	기타	(13)	100.0	38.5	38.5	15.4	7.7	0.0	0.0	0.0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84.7	41.2	38.8	21.2	4.7	1.2	5.9	2.4
	공공기관	(83)	88.0	39.8	34.9	20.5	7.2	4.8	2.4	2.4
	국제기구	(6)	100.0	33.3	0.0	33.3	16.7	16.7	0.0	0.0
	대학	(74)	82.4	31.1	31.1	27.0	10.8	13.5	2.7	1.4
	연구기관	(37)	89.2	35.1	32.4	24.3	10.8	8.1	0.0	0.0
	시민단체	(70)	75.7	41.4	41.4	12.9	22.9	5.7	0.0	0.0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79.3	44.8	20.7	24.1	17.2	3.4	6.9	3.4
	민간 전문기관	(7)	71.4	0.0	42.9	57.1	28.6	0.0	0.0	0.0
기타	(13)	100.0	38.5	38.5	15.4	7.7	0.0	0.0	0.0	
종사 분야	교육	(64)	85.9	43.8	35.9	15.6	12.5	4.7	1.6	0.0
	보건의료	(39)	79.5	33.3	20.5	30.8	12.8	15.4	2.6	5.1
	물공급 및 위생	(11)	63.6	45.5	36.4	18.2	18.2	9.1	0.0	9.1
	공공행정/거버넌스	(46)	82.6	39.1	28.3	30.4	6.5	10.9	2.2	0.0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80.0	30.0	40.0	30.0	10.0	0.0	10.0	0.0
	에너지	(3)	66.7	0.0	66.7	33.3	33.3	0.0	0.0	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87.5	70.8	29.2	4.2	4.2	0.0	0.0	4.2
	금융 및 회계	(10)	90.0	30.0	30.0	30.0	0.0	10.0	10.0	0.0
	농림수산	(56)	83.9	41.1	44.6	19.6	3.6	5.4	0.0	1.8
	산업	(16)	93.8	43.8	25.0	25.0	6.3	6.3	0.0	0.0
	관광	(3)	100.0	33.3	0.0	0.0	33.3	0.0	33.3	0.0
	환경 및 기후변화	(12)	75.0	33.3	50.0	33.3	8.3	0.0	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85.4	26.8	35.4	19.5	22.0	3.7	6.1	1.2	
기타	(28)	85.7	32.1	42.9	25.0	10.7	3.6	0.0	0.0	
종사 기간	1년 미만	(42)	90.5	40.5	35.7	23.8	7.1	0.0	0.0	2.4
	3년 미만	(90)	84.4	41.1	34.4	21.1	8.9	5.6	3.3	1.1
	5년 미만	(66)	83.3	42.4	45.5	10.6	9.1	4.5	3.0	1.5
	10년 미만	(81)	82.7	34.6	27.2	24.7	19.8	8.6	1.2	1.2
	15년 미만	(72)	80.6	31.9	27.8	31.9	12.5	8.3	4.2	2.8
	20년 미만	(27)	85.2	33.3	51.9	11.1	11.1	7.4	0.0	0.0
	20년 이상	(26)	84.6	42.3	30.8	23.1	7.7	3.8	7.7	0.0
성별	남성	(235)	84.3	39.6	40.4	19.1	6.4	5.1	3.0	2.1
	여성	(169)	83.4	35.5	26.6	25.4	18.9	7.1	2.4	0.6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39)	85.6	44.6	37.4	18.0	9.4	2.2	2.2	0.7
	석사 졸업	(126)	77.8	29.4	38.1	24.6	18.3	6.3	2.4	3.2
	박사 졸업	(139)	87.8	38.8	28.8	23.0	7.9	9.4	3.6	0.7

라. 개발도상국 지원에 큰 성과가 기대되는 기관

그림 4-5. 국제개발협력사업 효율적 수행 기관

문15 개발도상국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도상국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국제개발협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질문에 40.1%의 응답자가 정부기관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국내외 시민단체(NGO) 21.3%, 국제기구 16.1%, 전문기관 8.7%, 민간기업 7.4%, 개도국 현지 시민단체 6.4% 순으로 답했다. 작년에 비해 정부기관이라 응답한 비중은 2.9%p 증가, 국제기구라 응답한 비중은 7.1%p 하락, 개도국 현지 시민단체라 응답한 비중은 6.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과 연구부문은 정부기관이 가장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각각 63.8%, 30.6%), 민간부문의 경우 응답자의 53.3%가 국내외 시민단체(NGO)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답하였다.

소속기관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65% 이상의 응답자가 정부기관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라 응답했다. 반면 민간전문기관,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는 국내외 시민단체(NGO)를 국제개발협력사업 효율적 수행기관이라 응답했다(각각 71.4%, 67.1%, 50.0%). 연구기관 종사 응답자의 29.7%가 국제기구가 개발협력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 응답했으며, 정부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7.0%였다.

대부분의 분야 종사자들이 정부기간이 제일 잘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육, 보건의료, 물공급 및 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국내외 시민단체(NGO)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가장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정부기관이라 응답한 비중보다 높았으며, 각각 37.5%, 38.5%, 45.5%를 차지했다. 산업분야의 경우 민간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응답한 비중이 31.3%를 기록하였다.

종사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3년 미만 종사자의 50% 이상이 정부기관이 효율적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 5년 이상~10년 미만 종사자들의 35.8%가 국내외 시민단체(NGO)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20년 이상의 종사자의 경우 정부기관 외에 국제기구가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 응답한 비중이 30.8%에 달하였다.

표 4-5.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율적 수행 기관

전체, N=404 단위: 개, %

구 분		전 체	정부기관	국내의 시민단체 (NGO)	개도국 현지 시민단체 (NGO)	민간기업	대학, 병원 등 전문기관	국제기구 (UN, 세계은행 등)
전체		(404)	40.1	21.3	6.4	7.4	8.7	16.1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63.8	6.3	3.4	7.5	5.7	13.2
	연구부문	(111)	30.6	10.8	8.1	9.0	18.0	23.4
	민간부문	(106)	14.2	53.8	8.5	5.7	4.7	13.2
	기타	(13)	15.4	46.2	15.4	7.7	0.0	15.4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65.9	4.7	3.5	9.4	5.9	10.6
	공공기관	(83)	65.1	4.8	3.6	6.0	6.0	14.5
	국제기구	(6)	16.7	50.0	0.0	0.0	0.0	33.3
	대학	(74)	32.4	9.5	5.4	10.8	21.6	20.3
	연구기관	(37)	27.0	13.5	13.5	5.4	10.8	29.7
	시민단체	(70)	7.1	67.1	10.0	1.4	4.3	10.0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34.5	17.2	3.4	17.2	3.4	24.1
	민간 전문기관	(7)	0.0	71.4	14.3	0.0	14.3	0.0
기타	(13)	15.4	46.2	15.4	7.7	0.0	15.4	
종사 분야	교육	(64)	18.8	37.5	9.4	6.3	17.2	10.9
	보건의료	(39)	30.8	38.5	2.6	2.6	7.7	17.9
	물공급 및 위생	(11)	18.2	45.5	9.1	0.0	18.2	9.1
	공공행정/거버넌스	(46)	56.5	6.5	2.2	2.2	10.9	21.7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60.0	0.0	10.0	0.0	0.0	30.0
	에너지	(3)	33.3	0.0	33.3	33.3	0.0	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58.3	4.2	0.0	16.7	8.3	12.5
	금융 및 회계	(10)	30.0	30.0	0.0	10.0	10.0	20.0
	농림수산	(56)	60.7	12.5	1.8	3.6	5.4	16.1
	산업	(16)	18.8	6.3	12.5	31.3	12.5	18.8
	관광	(3)	66.7	33.3	0.0	0.0	0.0	0.0
	환경 및 기후변화	(12)	50.0	8.3	8.3	16.7	8.3	8.3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35.4	23.2	9.8	9.8	3.7	18.3
기타	(28)	42.9	21.4	10.7	3.6	7.1	14.3	
종사 기간	1년 미만	(42)	47.6	7.1	9.5	9.5	7.1	19.0
	3년 미만	(90)	54.4	12.2	3.3	5.6	7.8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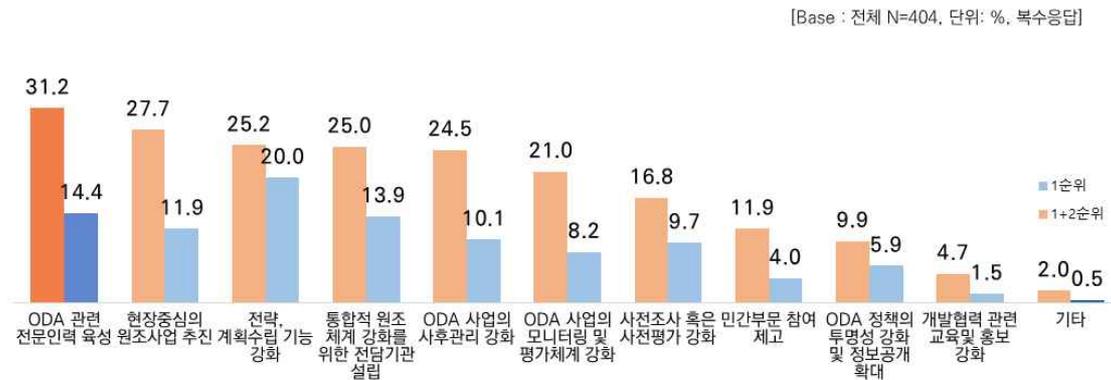
	5년 미만	(66)	39.4	30.3	3.0	6.1	10.6	10.6
	10년 미만	(81)	25.9	34.6	9.9	4.9	8.6	16.0
	15년 미만	(72)	38.9	23.6	8.3	8.3	6.9	13.9
	20년 미만	(27)	29.6	18.5	7.4	11.1	18.5	14.8
	20년 이상	(26)	38.5	7.7	3.8	15.4	3.8	30.8
성별	남성	(235)	43.8	18.7	3.8	10.6	8.1	14.9
	여성	(169)	34.9	24.9	10.1	3.0	9.5	17.8
최종학력	대졸 이하	(139)	36.0	29.5	7.2	6.5	6.5	14.4
	석사 졸업	(126)	43.7	24.6	7.1	6.3	4.0	14.3
	박사 졸업	(139)	41.0	10.1	5.0	9.4	15.1	19.4

3. 정부의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인식

가.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

그림 4-6. ODA 정책 개선과제

문14. 현 정부의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ODA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를 ODA 관련 전문인력 육성(31.2%, 복수응답)으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요성이 커진 현장중심의 원조사업추진은 27.7%를 기록하였다. 다만 1순위를 우선적으로 파악했을 경우에는 ODA 전략, 계획 수립 기능 강화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0.0%).

소속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구부문의 경우 ODA의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중이 36.0%로 가장 높았다. 공공부문의 경우

ODA 관련 전문인력 육성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답했다(39.1%). 민간부
 분은 현장중심의 원조사업 추진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응답하였다
 (34.9%)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41.0%가 현장중심의 원조사업
 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답하였다. 반면 교육, 공공행정/거버넌스, 금융
 및 회계, 종사자는 ODA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았다
 (43.5%). 농림수산 전문가들은 ODA 사업의 사화관리 강화와 사전조사 또는
 사전평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각각 33.9%). 개발협력사업 일반에 종사
 하는 전문가의 30.5%는 통합적 원조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이 가장
 시급한 정책개선과제로 응답했다.

종사기간 별로 살펴보면 5년 미만 종사자들은 ODA 관련 전문인력 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5년 이상~10년 미만 종사자는
 현장중심 원조사업 추진(34.6%)을, 10년 이상~15년 미만 종사자는 ODA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33.3%)를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답했다. 15년
 이상~20년 미만 종사자는 ODA 전문인력 육성 및 전략, 계획수립기능 강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응답했다(각각 33.3%). 20년 이상의 종사한 응답자의
 경우 통합적 원조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
 이 높았다(44.4%).

표 4-6. ODA 정책 개선과제

전체, N=404, 단위: 개, %, 복수응답

구 분	전 체	ODA	현	전	통	ODA	ODA	사	민	ODA	개	기타	
		관련	장	략	합	사업	사업	조	간	정	발		
		전문	심	획	적	의	의	사	부	책	력		
		인	의	립	원	모	사	후	문	의	관		
		육	조	능	조	니	사	관	참	투	련		
		성	업	강	체	터	관	리	여	성	육		
			추	화	계	링	강	화	계	강	및		
			진		화	및	화	화	체	화	홍		
					를	가	화	화	계	화	보		
					위	평	화	화	강	대	강		
					전	가	화	화	화	대	화		
					담	체	화	화	화	대	화		
					기	화	화	화	화	대	화		
					관	화	화	화	화	대	화		
					립	화	화	화	화	대	화		
					설	화	화	화	화	대	화		
					립	화	화	화	화	대	화		
전체	(404)	31.2	27.7	25.2	25.0	24.5	21.0	16.8	11.9	9.9	4.7	2.0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74)	39.1	24.7	29.9	24.1	23.6	16.7	15.5	12.6	6.3	5.7	1.7
	연구부문	(111)	23.4	25.2	23.4	27.0	27.0	36.0	19.8	4.5	9.9	0.9	2.7
	민간부문	(106)	26.4	34.9	20.8	25.5	22.6	14.2	17.0	16.0	14.2	6.6	1.9
	기타	(13)	30.8	30.8	15.4	15.4	30.8	7.7	7.7	30.8	23.1	7.7	0.0
소속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36.5	28.2	27.1	25.9	24.7	15.3	16.5	14.1	5.9	5.9	0.0
	공공기관	(83)	41.0	20.5	33.7	20.5	24.1	16.9	15.7	10.8	7.2	6.0	3.6
	국제기구	(6)	50.0	33.3	16.7	50.0	0.0	33.3	0.0	16.7	0.0	0.0	0.0
	대학	(74)	28.4	24.3	20.3	29.7	24.3	36.5	16.2	4.1	10.8	1.4	4.1
	연구기관	(37)	13.5	27.0	29.7	21.6	32.4	35.1	27.0	5.4	8.1	0.0	0.0
	시민단체	(70)	32.9	37.1	15.7	24.3	18.6	12.9	11.4	22.9	14.3	7.1	2.9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17.2	27.6	31.0	27.6	31.0	17.2	27.6	3.4	13.8	3.4	0.0

	민간 전문기관	(7)	0.0	42.9	28.6	28.6	28.6	14.3	28.6	0.0	14.3	14.3	0.0
	기타	(13)	30.8	30.8	15.4	15.4	30.8	7.7	7.7	30.8	23.1	7.7	0.0
중사 분야	교육	(64)	32.8	26.6	25.0	18.8	18.8	21.9	21.9	12.5	14.1	7.8	0.0
	보건의료	(39)	33.3	41.0	15.4	28.2	20.5	28.2	7.7	7.7	12.8	5.1	0.0
	불공급 및 위생	(11)	54.5	45.5	9.1	18.2	27.3	9.1	9.1	18.2	9.1	0.0	0.0
	공공행정/거버넌스	(46)	43.5	15.2	28.3	26.1	28.3	32.6	4.3	8.7	8.7	4.3	0.0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10.0	20.0	30.0	40.0	20.0	30.0	0.0	10.0	40.0	0.0	0.0
	에너지	(3)	0.0	0.0	66.7	0.0	0.0	33.3	66.7	33.3	0.0	0.0	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33.3	20.8	29.2	20.8	50.0	16.7	8.3	16.7	4.2	0.0	0.0
	금융 및 회계	(10)	40.0	30.0	10.0	30.0	10.0	20.0	30.0	20.0	0.0	0.0	10.0
	농림수산	(56)	26.8	30.4	19.6	19.6	33.9	19.6	33.9	5.4	7.1	3.6	0.0
	산업	(16)	31.3	25.0	37.5	18.8	18.8	31.3	18.8	6.3	12.5	0.0	0.0
	관광	(3)	33.3	66.7	0.0	0.0	0.0	0.0	66.7	33.3	0.0	0.0	0.0
	환경 및 기후변화	(12)	8.3	25.0	16.7	25.0	16.7	33.3	33.3	16.7	16.7	0.0	8.3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25.6	25.6	31.7	30.5	22.0	14.6	11.0	15.9	8.5	8.5	6.1
기타	(28)	35.7	35.7	28.6	35.7	21.4	7.1	14.3	10.7	3.6	3.6	3.6	
중사 기간	1년 미만	(42)	31.0	28.6	28.6	31.0	23.8	9.5	21.4	14.3	7.1	4.8	0.0
	3년 미만	(90)	37.8	27.8	26.7	20.0	25.6	18.9	13.3	8.9	11.1	7.8	2.2
	5년 미만	(66)	37.9	27.3	16.7	27.3	25.8	21.2	7.6	19.7	7.6	7.6	1.5
	10년 미만	(81)	29.6	34.6	24.7	21.0	29.6	21.0	22.2	7.4	4.9	3.7	1.2
	15년 미만	(72)	26.4	22.2	30.6	20.8	18.1	33.3	16.7	11.1	19.4	0.0	1.4
	20년 미만	(27)	33.3	25.9	33.3	29.6	14.8	18.5	18.5	7.4	3.7	7.4	7.4
	20년 이상	(26)	7.7	23.1	15.4	46.2	30.8	15.4	26.9	19.2	11.5	0.0	3.8
성별	남성	(235)	34.5	25.5	23.0	25.5	23.8	20.4	19.1	13.2	7.7	5.5	1.7
	여성	(169)	26.6	30.8	28.4	24.3	25.4	21.9	13.6	10.1	13.0	3.6	2.4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39)	36.7	26.6	23.0	20.9	27.3	18.0	12.2	18.0	10.8	6.5	0.0
	석사 졸업	(126)	32.5	34.1	24.6	28.6	21.4	15.1	13.5	10.3	9.5	7.1	3.2
	박사 졸업	(139)	24.5	23.0	28.1	25.9	24.5	29.5	24.5	7.2	9.4	0.7	2.9

나. ODA 정책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타 정책분야

그림 4-7. ODA 정책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타 정책 분야

문16.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원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 지원과 SDG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정책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원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개도국 지원 및 개도국의 SDGs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정책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정책은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의 전문가들이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이 개도국 지원 및 개도국의 SDGs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22.5%의 전문가들이 기술정책이 ODA 정책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답했다.⁹⁾ 그 뒤를 농업지원정책(16.1%), 투자 및 금융 정책(12.6%) 순으로 잇고 있다. 무역정책의 경우 작년 ODA 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원조 정책 외에 우리 정부의 정책 중 개발도상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으로 지목되었으나, 올해는 7.2%의 전문가만이 무역정책을 선택하였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 기술정책이 개도국의 지원 및 SDGs 달성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답했다(각각 25.3%). 정부 부처 종사자의 경우 27.1%가 기술정책이 ODA 외 개도국의 SDGs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연구부문과 민간부문은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이 원조 외 개도국 지원 및 개도국의 SDGs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정책이라 지목했다(각각 26.1%, 39.6%).

종사분야별 대부분은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이 원조 외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공공행정/거버넌스,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및 IT 기술, 산업 분야 종사자들은 기술정책을 원조 외 개도국 지원 및 SDGs 달성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종사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종사자를 제외한 전 응답자가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단, 15년 이상~20년 미만 종사자는 투자 및 금융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응답한 비중이 33.3%로 다소 높았다.

9) SDGs 달성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서 과학, 기술 및 혁신(STI: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를 범분야로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면서 기술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중점협력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교육, 보건 지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표 47. 원조 외 개발도상국 지원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정책

전체, N=404, 단위: 개, %

구 분		전 체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	이민 정책	무역 정책	투자 및 금융 정책	기술 정책	농업지원 정책	안보 관련 정책	기타
전체		(404)	30.0	2.7	7.2	12.6	22.5	16.1	1.7	7.2
소속 유형	공공부문	(174)	25.3	4.6	6.3	12.6	25.3	16.7	2.3	6.9
	연구부문	(111)	26.1	1.8	9.9	17.1	18.0	18.0	0.9	8.1
	민간부문	(106)	39.6	0.0	3.8	9.4	24.5	14.2	1.9	6.6
	기타	(13)	46.2	7.7	23.1	0.0	7.7	7.7	0.0	7.7
소속 세부 유형	정부부처	(85)	21.2	3.5	7.1	10.6	27.1	22.4	2.4	5.9
	공공기관	(83)	28.9	6.0	6.0	14.5	22.9	12.0	2.4	7.2
	국제기구	(6)	33.3	0.0	0.0	16.7	33.3	0.0	0.0	16.7
	대학	(74)	23.0	1.4	10.8	17.6	17.6	21.6	0.0	8.1
	연구기관	(37)	32.4	2.7	8.1	16.2	18.9	10.8	2.7	8.1
	시민단체	(70)	45.7	0.0	2.9	5.7	22.9	12.9	1.4	8.6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9)	27.6	0.0	6.9	17.2	27.6	13.8	3.4	3.4
	민간 전문기관	(7)	28.6	0.0	0.0	14.3	28.6	28.6	0.0	0.0
기타	(13)	46.2	7.7	23.1	0.0	7.7	7.7	0.0	7.7	
종사 분야	교육	(64)	39.1	1.6	6.3	6.3	25.0	10.9	0.0	10.9
	보건의료	(39)	41.0	0.0	2.6	7.7	25.6	10.3	5.1	7.7
	물공급 및 위생	(11)	54.5	0.0	0.0	9.1	9.1	18.2	0.0	9.1
	공공행정/거버넌스	(46)	19.6	6.5	8.7	10.9	28.3	15.2	2.2	8.7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10)	30.0	0.0	10.0	10.0	50.0	0.0	0.0	0.0
	에너지	(3)	33.3	0.0	0.0	0.0	33.3	0.0	0.0	33.3
	정보통신 및 IT 기술	(24)	20.8	0.0	8.3	12.5	45.8	12.5	0.0	0.0
	금융 및 회계	(10)	30.0	0.0	0.0	40.0	20.0	10.0	0.0	0.0
	농림수산	(56)	12.5	1.8	3.6	12.5	8.9	55.4	1.8	3.6
	산업	(16)	6.3	6.3	25.0	6.3	43.8	0.0	0.0	12.5
	관광	(3)	33.3	0.0	0.0	0.0	33.3	0.0	0.0	33.3
	환경 및 기후변화	(12)	50.0	8.3	0.0	8.3	16.7	8.3	8.3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82)	41.5	4.9	11.0	20.7	8.5	8.5	1.2	3.7
기타	(28)	14.3	0.0	7.1	14.3	35.7	7.1	3.6	17.9	
종사 기간	1년 미만	(42)	21.4	0.0	7.1	4.8	35.7	21.4	0.0	9.5
	3년 미만	(90)	28.9	3.3	5.6	11.1	26.7	15.6	2.2	6.7
	5년 미만	(66)	34.8	0.0	7.6	10.6	27.3	10.6	1.5	7.6
	10년 미만	(81)	28.4	4.9	7.4	7.4	21.0	23.5	1.2	6.2
	15년 미만	(72)	23.6	2.8	13.9	18.1	15.3	12.5	2.8	11.1
	20년 미만	(27)	37.0	7.4	0.0	33.3	7.4	11.1	3.7	0.0
	20년 이상	(26)	50.0	0.0	0.0	15.4	15.4	15.4	0.0	3.8
성별	남성	(235)	25.5	1.7	8.5	14.5	22.1	17.9	1.7	8.1
	여성	(169)	36.1	4.1	5.3	10.1	23.1	13.6	1.8	5.9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39)	32.4	0.7	7.9	10.8	26.6	13.7	2.2	5.8
	석사 졸업	(126)	35.7	4.8	5.6	11.9	22.2	11.1	1.6	7.1
	박사 졸업	(139)	22.3	2.9	7.9	15.1	18.7	23.0	1.4	8.6

4.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인식

설문 응답 대상 중 성과관리 및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ODA 전문가에 대하여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

답자 404명 중 66.6%, 269명이 현재 평가 업무를 수행 또는 과거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¹⁰⁾ 본 절은 ODA 시행 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평가대상 선정, 기초선 조사,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 4-8. 성과 관리 평가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특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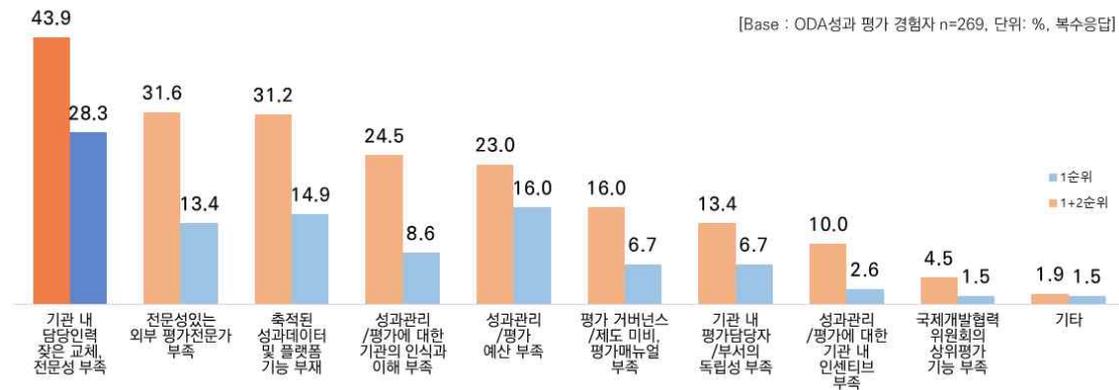
구 분		전 체	현재 참여	과거 참여
전체		269	120	149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89	49	40
	연구부문	103	42	61
	민간부문	70	26	44
	기타	7	3	4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34	24	10
	공공기관	52	25	27
	국제기구	3		3
	대학	70	27	43
	연구기관	33	15	18
	시민단체	41	15	26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4	8	16
	민간 전문기관(병원, 법무법인 등)	5	3	2
	기타	7	3	4
	종사 분야	교육	39	22
보건의료		27	7	20
물공급 및 위생		7	2	5
공공행정거버넌스		25	8	17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6	1	5
에너지		2	0	2
정보통신 및 IT 기술		13	3	10
금융 및 회계		6	2	4
농림수산		39	24	15
산업		10	3	7
관광		1	0	1
환경 및 기후변화		10	5	5
개발협력사업 일반		63	30	33
기타	21	13	8	
종사 기간	1년 미만	11	4	7
	3년 미만	42	22	20
	5년 미만	41	18	23
	10년 미만	65	27	38
	15년 미만	62	21	41
	20년 미만	23	12	11
	20년 이상	25	16	9
성별	남성	165	70	95
	여성	104	50	54
최종 학력	대졸 이하	61	33	28
	석사 졸업	86	30	56
	박사 졸업	122	57	65

10) 현재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29.7%(120명)이며, 과거에 수행했거나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36.9%(149명)이다. 평가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35명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한다.

가.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시급한 개선과제

그림 4-8.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시급한 개선과제

문17. 2021년 예산안(요구액) 기준 총 42개 부처/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2가지만 골라주세요.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항목은 ‘기관 내 담당인력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으로 응답의 43.9%(중복응답)를 기록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전문성 있는 외부 평가전문가 부족’은 31.6%, ‘축적된 성과데이터 및 플랫폼 기능 부재’가 31.2%를 차지했다. 중복응답을 고려하지 않은 1순위만 살펴봐도 기관 내 담당인력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지목되었으며, ‘성과관리/평가 예산 부족’이 16.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기관 내 담당 인력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을 제외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은 ‘전문성 있는 외부 평가 전문가 부족’을 성과관리 및 평가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답했다(복수 응답 41.6%, 31.4%).

연구기관 종사자는 축적된 성과 데이터 및 플랫폼 기능 부재를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응답하였다(복수 응답, 35.3%). 대학 및 시민단체에서도 기관 내 담당 인력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외에 축적된 성과데이터 및 플랫폼 기능 부재를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복수응답, 35.7%, 34.1%).

금융 및 회계, 관광,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종사자는 ‘기관 내 담당인력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환경 및 기후변화 전문가는 전문성 있는 외부

평가전문가 부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답했다.

표 4-9. 국내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평가 시 개선과제(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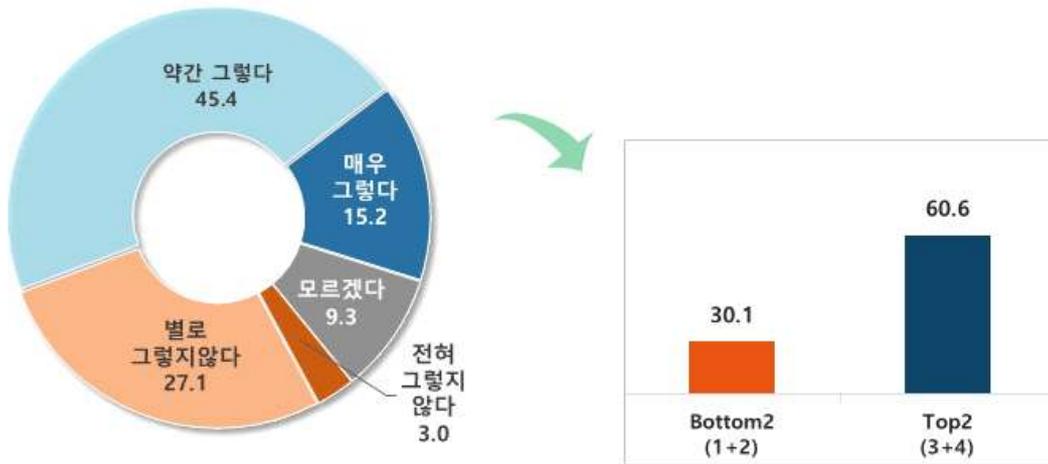
ODA 분야 평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 n=269, 단위: 개, %

구분	전체	기관 내 담당 인력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전문성 있는 외부 평가 전문가 부족	축적된 성과데이터 및 플랫폼 기능 부재	성과 관리/평가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이해 부족	성과 관리/평가 예산 부족	평가 거버넌스/제도 미비, 평가 매뉴얼 부족	기관 내 평가 담당자/부서의 독립성 부족	성과 관리/평가에 대한 기관 내 인센티브 부족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의 상위 평가 기능 부족	기타	
												전체
전체		(269)	43.9	31.6	31.2	24.5	23.0	16.0	13.4	10.0	4.5	1.9
소속기관 유형	공공부문	(89)	46.1	41.6	25.8	24.7	21.3	13.5	10.1	11.2	2.2	3.4
	연구부문	(103)	36.9	25.2	35.0	25.2	25.2	14.6	17.5	10.7	8.7	1.0
	민간부문	(70)	47.1	31.4	30.0	24.3	21.4	22.9	12.9	7.1	1.4	1.4
	기타	(7)	85.7	0.0	57.1	14.3	28.6	0.0	0.0	14.3	0.0	0.0
소속부서 유형	정부부처	(34)	52.9	32.4	26.5	17.6	23.5	17.6	8.8	17.6	2.9	0.0
	공공기관	(52)	44.2	48.1	25.0	26.9	19.2	11.5	9.6	7.7	1.9	5.8
	국제기구	(3)	0.0	33.3	33.3	66.7	33.3	0.0	33.3	0.0	0.0	0.0
	대학	(70)	40.0	24.3	34.3	31.4	25.7	14.3	14.3	10.0	5.7	0.0
	연구기관	(33)	30.3	27.3	36.4	12.1	24.2	15.2	24.2	12.1	15.2	3.0
	시민단체	(41)	53.7	26.8	34.1	22.0	12.2	24.4	14.6	7.3	2.4	2.4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4)	41.7	33.3	29.2	29.2	37.5	25.0	0.0	4.2	0.0	0.0
	민간 전문기관	(5)	20.0	60.0	0.0	20.0	20.0	0.0	60.0	20.0	0.0	0.0
기타	(7)	85.7	0.0	57.1	14.3	28.6	0.0	0.0	14.3	0.0	0.0	
중사분야	교육	(39)	48.7	30.8	30.8	20.5	28.2	12.8	12.8	10.3	5.1	0.0
	보건의료	(27)	40.7	25.9	55.6	25.9	25.9	7.4	7.4	0.0	7.4	3.7
	물공급 및 위생	(7)	57.1	14.3	28.6	28.6	42.9	0.0	14.3	14.3	0.0	0.0
	공공행정/거버넌스	(25)	48.0	16.0	32.0	20.0	36.0	16.0	16.0	8.0	8.0	0.0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6)	50.0	50.0	33.3	0.0	0.0	16.7	33.3	16.7	0.0	0.0
	에너지	(2)	50.0	0.0	50.0	50.0	0.0	0.0	0.0	50.0	0.0	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13)	53.8	38.5	38.5	15.4	23.1	15.4	15.4	0.0	0.0	0.0
	금융 및 회계	(6)	16.7	50.0	0.0	33.3	50.0	50.0	0.0	0.0	0.0	0.0
	농림수산	(39)	38.5	38.5	23.1	25.6	17.9	17.9	20.5	15.4	2.6	0.0
	산업	(10)	40.0	30.0	30.0	20.0	10.0	20.0	0.0	20.0	20.0	10.0
	관광	(1)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환경 및 기후변화	(10)	30.0	50.0	20.0	30.0	20.0	30.0	10.0	10.0	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63)	44.4	31.7	28.6	27.0	14.3	19.0	15.9	12.7	4.8	1.6
기타	(21)	47.6	33.3	33.3	33.3	28.6	4.8	4.8	4.8	0.0	9.5	
중사기간	1년 미만	(11)	54.5	36.4	36.4	9.1	0.0	9.1	18.2	27.3	9.1	0.0
	3년 미만	(42)	42.9	21.4	28.6	16.7	35.7	26.2	11.9	11.9	2.4	2.4
	5년 미만	(41)	53.7	26.8	31.7	14.6	34.1	14.6	12.2	7.3	2.4	2.4
	10년 미만	(65)	41.5	33.8	30.8	30.8	20.0	12.3	15.4	12.3	3.1	0.0
	15년 미만	(62)	40.3	38.7	30.6	33.9	19.4	14.5	12.9	6.5	3.2	0.0
	20년 미만	(23)	47.8	34.8	39.1	17.4	8.7	17.4	8.7	13.0	13.0	0.0
	20년 이상	(25)	36.0	28.0	28.0	28.0	24.0	16.0	16.0	4.0	8.0	12.0
성별	남성	(165)	41.2	33.9	29.1	22.4	25.5	14.5	17.0	10.3	4.8	1.2
	여성	(104)	48.1	27.9	34.6	27.9	19.2	18.3	7.7	9.6	3.8	2.9
최종학력	대졸 이하	(61)	60.7	32.8	29.5	18.0	23.0	16.4	9.8	9.8	0.0	0.0
	석사 졸업	(86)	38.4	37.2	27.9	26.7	22.1	18.6	11.6	9.3	3.5	4.7
	박사 졸업	(122)	39.3	27.0	34.4	26.2	23.8	13.9	16.4	10.7	7.4	0.8

나. 평가대상 선정의 객관성

그림 4-9. 평가대상 선정 객관성

문18.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대상 선정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 ODA성과 평가 경험자 n=269, 단위: %]

평가대상 선정이 객관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그렇다고 답한 비중은 60.6%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15.2%,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45.4%이다. 평가 대상 선정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33.2%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27.1%,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3.0%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선정이 객관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공공부문이 가장 높으며, 75.3%를 기록하였다. 반면 평가대상 선정의 객관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민간부문으로 38.5%가 평가대상 선정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세부유형별로 평가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룹은 정부부처이다.

종사기간별로 살펴보면 평가대상 선정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은 1년 이상~3년 미만 종사자(76.2%)이며,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그룹은 10년 이상~15년 이상 종사자(45.1%)로 나타났다.

표 4-10. 국내 ODA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시 평가대상 선정의 객관성

ODA 분야 평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 n=269, 단위: 개, %, 점

구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부정적	긍정적	100점 평균	
전체	(269)	3.0	27.1	45.4	15.2	9.3	30.1	60.6	70.1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89)	2.2	14.6	48.3	27.0	7.9	16.8	75.3	77.1
	연구부문	(103)	3.9	32.0	43.7	10.7	9.7	35.9	54.4	66.9
	민간부문	(70)	1.4	37.1	42.9	7.1	11.4	38.5	50.0	65.7
	기타	(7)	14.3	14.3	57.1	14.3	0.0	28.6	71.4	67.9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34)	5.9	5.9	47.1	32.4	8.8	11.8	79.5	79.0
	공공기관	(52)	0.0	19.2	51.9	25.0	3.8	19.2	76.9	76.5
	국제기구	(3)	0.0	33.3	0.0	0.0	66.7	33.3	0.0	50.0
	대학	(70)	4.3	31.4	41.4	11.4	11.4	35.7	52.8	66.9
	연구기관	(33)	3.0	33.3	48.5	9.1	6.1	36.3	57.6	66.9
	시민단체	(41)	0.0	36.6	46.3	2.4	14.6	36.6	48.7	65.0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4)	4.2	29.2	45.8	12.5	8.3	33.4	58.3	68.2
	기타	(7)	14.3	14.3	57.1	14.3	0.0	28.6	71.4	67.9
종사 분야	교육	(39)	5.1	30.8	38.5	17.9	7.7	35.9	56.4	68.8
	보건의료	(27)	0.0	18.5	70.4	7.4	3.7	18.5	77.8	72.1
	물공급 및 위생	(7)	14.3	28.6	42.9	0.0	14.3	42.9	42.9	58.3
	공공행정/거버넌스	(25)	4.0	24.0	48.0	12.0	12.0	28.0	60.0	69.3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6)	0.0	33.3	33.3	33.3	0.0	33.3	66.6	75.0
	에너지	(2)	0.0	0.0	0.0	50.0	50.0	0.0	50.0	10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13)	7.7	7.7	69.2	15.4	0.0	15.4	84.6	73.1
	금융 및 회계	(6)	0.0	33.3	33.3	0.0	33.3	33.3	33.3	62.5
	농림수산	(39)	2.6	17.9	46.2	25.6	7.7	20.5	71.8	75.7
	산업	(10)	0.0	20.0	60.0	10.0	10.0	20.0	70.0	72.2
	관광	(1)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환경 및 기후변화	(10)	0.0	10.0	50.0	10.0	30.0	10.0	60.0	75.0
개발협력사업 일반	(63)	3.2	39.7	36.5	12.7	7.9	42.9	49.2	65.9	
기타	(21)	0.0	38.1	38.1	14.3	9.5	38.1	52.4	68.4	
종사 기간	1년 미만	(11)	0.0	9.1	54.5	18.2	18.2	9.1	72.7	77.8
	3년 미만	(42)	2.4	11.9	54.8	21.4	9.5	14.3	76.2	76.3
	5년 미만	(41)	4.9	19.5	48.8	17.1	9.8	24.4	65.9	71.6
	10년 미만	(65)	0.0	27.7	44.6	16.9	10.8	27.7	61.5	72.0
	15년 미만	(62)	3.2	41.9	40.3	4.8	9.7	45.1	45.1	62.9
	20년 미만	(23)	13.0	30.4	34.8	17.4	4.3	43.4	52.2	64.8
	20년 이상	(25)	0.0	32.0	44.0	20.0	4.0	32.0	64.0	71.9
성별	남성	(165)	4.2	25.5	46.1	18.2	6.1	29.7	64.3	70.8
	여성	(104)	1.0	29.8	44.2	10.6	14.4	30.8	54.8	68.8
최종 학력	대졸 이하	(61)	1.6	21.3	44.3	18.0	14.8	22.9	62.3	73.1
	석사 졸업	(86)	3.5	27.9	43.0	18.6	7.0	31.4	61.6	70.6
	박사 졸업	(122)	3.3	29.5	47.5	11.5	8.2	32.8	59.0	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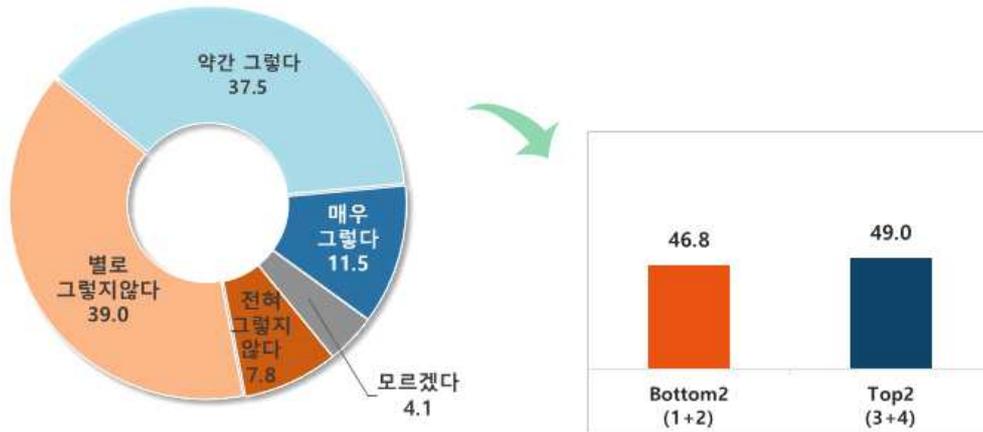
다. 기초선조사 및 모니터링

1) 기초선 조사 실시

그림 4-10. 기초선조사 실시

문19.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은 ODA 사업에 대해 기초선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9-1. 기초선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 이유



[Base : ODA성과 평가 경험자 n=269, 단위: %]



[Base : 국내 ODA 시행기관의 기초선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 n=127, 단위: %]

ODA 사업에 대한 기초선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선조사 여부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49.0%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46.8%를 기록하였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65.1%가 기초선 조사가 충분하다고 답했으며, 매우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21.3%를 기록했다. 민간부문 응답자의 47.1%가 기초선

조사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반면 ODA 사업 수행시 기초선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소속기관은 연구부문으로 연구부문 종사자의 6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연구기관 종사자의 73.5%가 기초선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종사기간별로 기초선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종사기간별 응답자는 1년 미만이다(90.9%). 기초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종사기간별 그룹은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으로 각각 62.9%, 60.8%가 기초선조사의 충분함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기초선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자에 한해 기초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조사한 결과, 전문성 부족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기초선조사 불충분한 이유는 기초선조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18.9%, 성과관리 예산 부족이 18.1%, 조사기간 불충분이 14.2%, 성과관리 역할분담 체계의 미비 11.8%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세부 유형별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응답자의 50%가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고 답했다. 대학, 시민단체, 민간기업 및 민간 전문기관에 종사 중인 응답자도 전문성 부족이 기초선 조사 불충분의 이유라 지목했다. 다만 연구기관의 경우 기초선조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 지목한 비중이 29.2%였다.

종사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이상~10년 미만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는 전문성 부족이 기초선조사가 부족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5년 이상~10년 미만 종사자의 24.1%가 ‘기초선 조사를 포함한 성과관리 예산 부족’ 이 기초선조사의 저해요인이라고 답했다.

표 4-11. 국내 ODA 시행기관이 ODA 사업 시 기초선조사의 충분성

ODA 분야 평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 n=269, 단위: 개, %, 점

구 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부정적	긍정적	100점 평균
전체		(269)	7.8	39.0	37.5	11.5	4.1	46.8	49.0	63.8
소속기관 유형	공공부문	(89)	1.1	27.0	43.8	21.3	6.7	28.1	65.1	72.9
	연구부문	(103)	12.6	49.5	30.1	5.8	1.9	62.1	35.9	57.4
	민간부문	(70)	10.0	38.6	40.0	7.1	4.3	48.6	47.1	61.6
	기타	(7)	0.0	42.9	42.9	14.3	0.0	42.9	57.2	67.9
소속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34)	2.9	20.6	47.1	23.5	5.9	23.5	70.6	74.2
	공공기관	(52)	0.0	30.8	44.2	19.2	5.8	30.8	63.4	71.9
	국제기구	(3)	0.0	33.3	0.0	33.3	33.3	33.3	33.3	75.0
	대학	(70)	12.9	44.3	32.9	7.1	2.9	57.2	40.0	58.8
	연구기관	(33)	12.1	60.6	24.2	3.0	0.0	72.7	27.2	54.5
	시민단체	(41)	7.3	36.6	43.9	7.3	4.9	43.9	51.2	63.5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4)	12.5	45.8	33.3	4.2	4.2	58.3	37.5	57.6
	민간 전문기관	(5)	20.0	20.0	40.0	20.0	0.0	40.0	60.0	65.0
	기타	(7)	0.0	42.9	42.9	14.3	0.0	42.9	57.2	67.9
중사 분야	교육	(39)	2.6	35.9	43.6	12.8	5.1	38.5	56.4	67.6
	보건의료	(27)	7.4	33.3	44.4	11.1	3.7	40.7	55.5	65.4
	물공급 및 위생	(7)	14.3	57.1	28.6	0.0	0.0	71.4	28.6	53.6
	공공행정/거버넌스	(25)	12.0	24.0	52.0	4.0	8.0	36.0	56.0	63.0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6)	0.0	33.3	50.0	16.7	0.0	33.3	66.7	70.8
	에너지	(2)	50.0	0.0	50.0	0.0	0.0	50.0	50.0	5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13)	0.0	38.5	46.2	7.7	7.7	38.5	53.9	66.7
	금융 및 회계	(6)	0.0	16.7	33.3	33.3	16.7	16.7	66.6	80.0
	농림수산	(39)	15.4	41.0	28.2	12.8	2.6	56.4	41.0	59.9
	산업	(10)	0.0	40.0	40.0	10.0	10.0	40.0	50.0	66.7
	관광	(1)	0.0	0.0	100.0	0.0	0.0	0.0	100.0	75.0
	환경 및 기후변화	(10)	0.0	50.0	30.0	10.0	10.0	50.0	40.0	63.9
	개발협력사업 일반	(63)	11.1	46.0	30.2	11.1	1.6	57.1	41.3	60.5
기타	(21)	0.0	47.6	33.3	19.0	0.0	47.6	52.3	67.9	
중사 기간	1년 미만	(11)	0.0	0.0	63.6	27.3	9.1	0.0	90.9	82.5
	3년 미만	(42)	2.4	21.4	54.8	14.3	7.1	23.8	69.1	71.8
	5년 미만	(41)	4.9	43.9	39.0	9.8	2.4	48.8	48.8	63.8
	10년 미만	(65)	7.7	36.9	40.0	10.8	4.6	44.6	50.8	64.1
	15년 미만	(62)	14.5	48.4	21.0	11.3	4.8	62.9	32.3	57.6
	20년 미만	(23)	13.0	47.8	34.8	4.3	0.0	60.8	39.1	57.6
	20년 이상	(25)	4.0	52.0	32.0	12.0	0.0	56.0	44.0	63.0
성별	남성	(165)	8.5	35.2	40.6	13.9	1.8	43.7	54.5	65.3
	여성	(104)	6.7	45.2	32.7	7.7	7.7	51.9	40.4	61.2
최종 학력	대졸 이하	(61)	1.6	29.5	49.2	9.8	9.8	31.1	59.0	68.6
	석사 졸업	(86)	9.3	34.9	36.0	16.3	3.5	44.2	52.3	65.4
	박사 졸업	(122)	9.8	46.7	32.8	9.0	1.6	56.5	41.8	60.4

표 4-12. 국내 ODA 시행기관의 기초선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국내 ODA 시행기관의 기초선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 n=127,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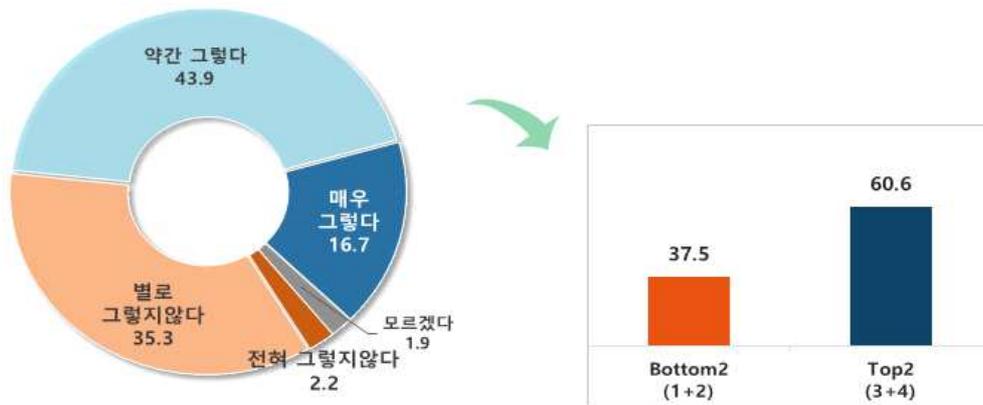
구 분		전 체	성과관리(기초 선 조사 포함) 예산 부족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성과관리 역할분담 체계의 미비	전문성 부족	조사기간(시간) 불충분	기타
전체		(127)	18.1	18.9	11.8	33.1	14.2	3.9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25)	8.0	24.0	4.0	48.0	16.0	0.0
	연구부문	(64)	21.9	18.8	17.2	21.9	14.1	6.3
	민간부문	(35)	17.1	17.1	8.6	40.0	14.3	2.9
	기타	(3)	33.3	0.0	0.0	66.7	0.0	0.0
소속 세부 유형	정부부처	(8)	12.5	12.5	0.0	50.0	25.0	0.0
	공공기관	(16)	6.3	31.3	6.3	50.0	6.3	0.0
	국제기구	(1)	0.0	0.0	0.0	0.0	100.0	0.0
	대학	(40)	20.0	12.5	15.0	30.0	12.5	10.0
	연구기관	(24)	25.0	29.2	20.8	8.3	16.7	0.0
	시민단체	(19)	15.8	21.1	5.3	36.8	21.1	0.0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14)	21.4	14.3	14.3	42.9	7.1	0.0
	민간 전문기관	(2)	0.0	0.0	0.0	50.0	0.0	50.0
중사 분야	기타	(3)	33.3	0.0	0.0	66.7	0.0	0.0
	교육	(16)	18.8	12.5	6.3	62.5	0.0	0.0
	보건의료	(11)	9.1	18.2	9.1	54.5	9.1	0.0
	물공급 및 위생	(5)	0.0	20.0	20.0	40.0	20.0	0.0
	공공행정/거버넌스	(9)	44.4	22.2	0.0	22.2	11.1	0.0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2)	0.0	0.0	0.0	100.0	0.0	0.0
	에너지	(1)	0.0	100.0	0.0	0.0	0.0	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5)	20.0	20.0	0.0	40.0	20.0	0.0
	금융 및 회계	(1)	0.0	0.0	0.0	0.0	0.0	100.0
	농림수산	(22)	13.6	22.7	18.2	22.7	22.7	0.0
	산업	(4)	0.0	25.0	0.0	25.0	25.0	25.0
	환경 및 기후변화	(5)	0.0	0.0	20.0	60.0	2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36)	25.0	22.2	13.9	19.4	16.7	2.8
	기타	(10)	20.0	10.0	20.0	20.0	10.0	20.0
중사 기간	3년 미만	(10)	10.0	20.0	0.0	50.0	20.0	0.0
	5년 미만	(21)	4.8	14.3	19.0	42.9	19.0	0.0
	10년 미만	(29)	24.1	20.7	10.3	20.7	17.2	6.9
	15년 미만	(39)	25.6	15.4	15.4	30.8	12.8	0.0
	20년 미만	(14)	14.3	28.6	0.0	35.7	0.0	21.4
	20년 이상	(14)	14.3	21.4	14.3	35.7	14.3	0.0
성별	남성	(72)	18.1	23.6	9.7	34.7	12.5	1.4
	여성	(55)	18.2	12.7	14.5	30.9	16.4	7.3
최종 학력	대졸 이하	(20)	10.0	25.0	0.0	50.0	15.0	0.0
	석사 졸업	(38)	15.8	10.5	18.4	31.6	21.1	2.6
	박사 졸업	(69)	21.7	21.7	11.6	29.0	10.1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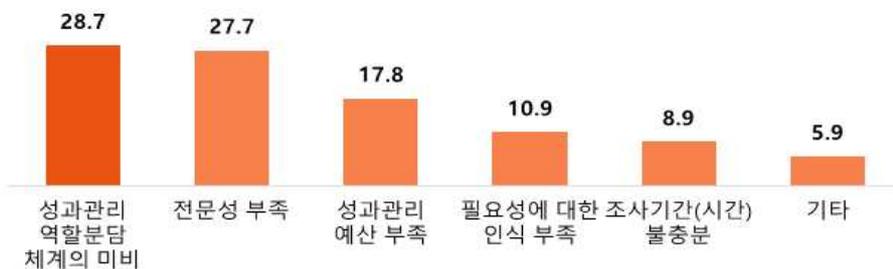
2) 모니터링 실시

그림 4-11. 모니터링 실시

문20.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은 ODA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0-1. 모니터링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 이유



[Base : ODA성과 평가 경험자 n=269, 단위: %]



[Base : 국내 ODA 시행기관의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 n=101, 단위: %]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ODA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에 그렇다는 의견이 60.6%,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7.5%, 모르겠다는 응답이 1.9%를 차지하였다. 모니터링이 매우 충분하다고 답한 비중은 16.7%, 약간 충분하다고 답한 비중은 43.9%이다. 모니터링이 별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5.3%이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2%이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76.4%가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연구부문과 민간부문은 응답자의 51.4%가 ODA 사업 모니터링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 중 연구기관 종사자들과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종사자들이 모니터링에 부정적으로 답한 비중이 높았다. 연구기관의 평가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7.6%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의 평가 유경험자의 50.0%가 모니터링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종사기간별로 ODA 사업 모니터링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10년 이상~15년 미만, 20년 이상~15년 미만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50.0%, 43.5%).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ODA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성과관리 역할분담 체계의 미비가 28.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전문성 부족 27.7%, 성과관리 예산 부족이 17.8%를 기록하였으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0.9%, 조사기간(시간) 불충분은 8.9%를 차지하였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성과관리(모니터링) 예산 부족이 모니터링 실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라 응답한 비중이 31.6%로 가장 높았다. 38.0%의 연구부문 응답자는 성과관리(모니터링) 역할분담 체계가 미비한 것이 모니터링 저해요인으로 지목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응답자의 41.9%가 전문성 부족이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라 답했다.

종사기간별로 1년 이상~3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응답자는 모니터링 예산 부족이 모니터링 저해 이유로 지목하였다(각각 33.3%, 30.0%). 15년 이상~20년 미만 종사자는 전문성 부족 역시 모니터링 저해요인으로 꼽았다(30.0%). 3년 이상~5년 미만은 모니터링 역할분담 체계 미비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불충분한 것도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았다(각 24.1%). 10년 이상~15년 미만 종사자는 전문성 부족이 모니터링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9.0%로 가장 높았다.

표 4-13. 국내 ODA 시행기관이 ODA 사업 시 모니터링의 충분성

ODA 분야 평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 n=269, 단위: 개, %, 점

구 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부정적	긍정적	100점 평균
전체		(269)	2.2	35.3	43.9	16.7	1.9	37.5	60.6	69.1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89)	1.1	20.2	50.6	25.8	2.2	21.3	76.4	75.9
	연구부문	(103)	1.9	46.6	38.8	12.6	0.0	48.5	51.4	65.5
	민간부문	(70)	4.3	40.0	41.4	10.0	4.3	44.3	51.4	64.9
	기타	(7)	0.0	14.3	57.1	28.6	0.0	14.3	85.7	78.6
소속 세부 유형	정부부처	(34)	2.9	14.7	55.9	23.5	2.9	17.6	79.4	75.8
	공공기관	(52)	0.0	23.1	50.0	26.9	0.0	23.1	76.9	76.0
	국제기구	(3)	0.0	33.3	0.0	33.3	33.3	33.3	33.3	75.0
	대학	(70)	2.9	41.4	42.9	12.9	0.0	44.3	55.8	66.4
	연구기관	(33)	0.0	57.6	30.3	12.1	0.0	57.6	42.4	63.6
	시민단체	(41)	4.9	36.6	39.0	14.6	4.9	41.5	53.6	66.7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4)	4.2	45.8	41.7	4.2	4.2	50.0	45.9	62.0
	민간 전문기관	(5)	0.0	40.0	60.0	0.0	0.0	40.0	60.0	65.0
중사 분야	기타	(7)	0.0	14.3	57.1	28.6	0.0	14.3	85.7	78.6
	교육	(39)	0.0	30.8	46.2	23.1	0.0	30.8	69.3	73.1
	보건의료	(27)	0.0	33.3	48.1	18.5	0.0	33.3	66.6	71.3
	물공급 및 위생	(7)	0.0	57.1	28.6	14.3	0.0	57.1	42.9	64.3
	공공행정/거버넌스	(25)	8.0	36.0	40.0	12.0	4.0	44.0	52.0	64.6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6)	0.0	33.3	33.3	33.3	0.0	33.3	66.6	75.0
	에너지	(2)	50.0	0.0	0.0	50.0	0.0	50.0	50.0	62.5
	정보통신 및 IT 기술	(13)	0.0	23.1	61.5	7.7	7.7	23.1	69.2	70.8
	금융 및 회계	(6)	0.0	16.7	50.0	33.3	0.0	16.7	83.3	79.2
	농림수산	(39)	0.0	51.3	33.3	12.8	2.6	51.3	46.1	65.1
	산업	(10)	0.0	30.0	50.0	20.0	0.0	30.0	70.0	72.5
	관광	(1)	0.0	0.0	100.0	0.0	0.0	0.0	100.0	75.0
	환경 및 기후변화	(10)	10.0	20.0	50.0	20.0	0.0	30.0	70.0	70.0
	개발협력사업 일반	(63)	3.2	39.7	46.0	7.9	3.2	42.9	53.9	65.2
기타	(21)	0.0	23.8	42.9	33.3	0.0	23.8	76.2	77.4	
중사 기간	1년 미만	(11)	0.0	0.0	81.8	9.1	9.1	0.0	90.9	77.5
	3년 미만	(42)	0.0	21.4	57.1	16.7	4.8	21.4	73.8	73.8
	5년 미만	(41)	2.4	31.7	43.9	19.5	2.4	34.1	63.4	70.6
	10년 미만	(65)	0.0	44.6	36.9	16.9	1.5	44.6	53.8	68.0
	15년 미만	(62)	4.8	45.2	33.9	16.1	0.0	50.0	50.0	65.3
	20년 미만	(23)	8.7	34.8	43.5	13.0	0.0	43.5	56.5	65.2
	20년 이상	(25)	0.0	32.0	48.0	20.0	0.0	32.0	68.0	72.0
성별	남성	(165)	3.0	33.9	44.2	18.2	0.6	36.9	62.4	69.5
	여성	(104)	1.0	37.5	43.3	14.4	3.8	38.5	57.7	68.5
최종 학력	대졸 이하	(61)	1.6	31.1	44.3	18.0	4.9	32.7	62.3	70.7
	석사 졸업	(86)	3.5	27.9	46.5	19.8	2.3	31.4	66.3	71.1
	박사 졸업	(122)	1.6	42.6	41.8	13.9	0.0	44.2	55.7	67.0

표 4-14. 국내 ODA 시행기관의 ODA사업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국내 ODA 시행기관의 ODA사업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 n=101,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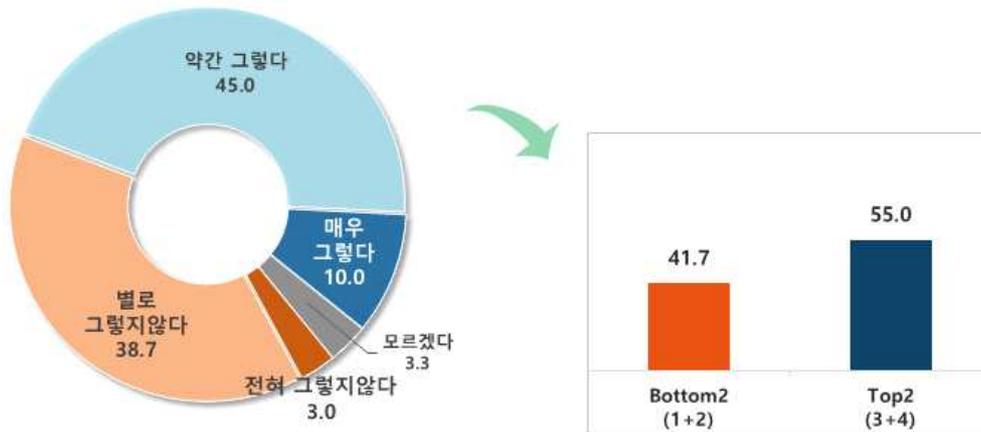
구 분		전 체	성과관리 (모니터링) 예산 부족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성과관리 (모니터링) 역할분담 체계의 미비	전문성 부족	조사기간 (시간) 불충분	기타
전체		(101)	17.8	10.9	28.7	27.7	8.9	5.9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19)	31.6	10.5	21.1	15.8	5.3	15.8
	연구부문	(50)	14.0	12.0	38.0	24.0	6.0	6.0
	민간부문	(31)	16.1	9.7	16.1	41.9	16.1	0.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6)	33.3	0.0	50.0	0.0	0.0	16.7
	공공기관	(12)	25.0	16.7	8.3	25.0	8.3	16.7
	국제기구	(1)	100.0	0.0	0.0	0.0	0.0	0.0
	대학	(31)	16.1	9.7	35.5	22.6	6.5	9.7
	연구기관	(19)	10.5	15.8	42.1	26.3	5.3	0.0
	시민단체	(17)	5.9	0.0	29.4	41.2	23.5	0.0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12)	25.0	25.0	0.0	41.7	8.3	0.0
	민간 전문기관	(2)	50.0	0.0	0.0	50.0	0.0	0.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종사 분야	교육	(12)	8.3	16.7	8.3	58.3	8.3	0.0
	보건의료	(9)	11.1	11.1	22.2	33.3	22.2	0.0
	물공급 및 위생	(4)	25.0	0.0	0.0	50.0	0.0	25.0
	공공행정/거버넌스	(11)	36.4	9.1	18.2	36.4	0.0	0.0
	교통인프라(도로, 철도 등)	(2)	0.0	0.0	0.0	100.0	0.0	0.0
	에너지	(1)	0.0	100.0	0.0	0.0	0.0	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3)	66.7	0.0	0.0	0.0	33.3	0.0
	금융 및 회계	(1)	0.0	0.0	100.0	0.0	0.0	0.0
	농림수산	(20)	15.0	10.0	40.0	15.0	15.0	5.0
	산업	(3)	0.0	0.0	0.0	66.7	0.0	33.3
	환경 및 기후변화	(3)	33.3	0.0	33.3	33.3	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27)	11.1	7.4	48.1	14.8	7.4	11.1
	기타	(5)	40.0	40.0	20.0	0.0	0.0	0.0
종사 기간	3년 미만	(9)	33.3	11.1	11.1	22.2	11.1	11.1
	5년 미만	(14)	14.3	0.0	50.0	28.6	0.0	7.1
	10년 미만	(29)	13.8	13.8	24.1	20.7	24.1	3.4
	15년 미만	(31)	16.1	12.9	29.0	35.5	3.2	3.2
	20년 미만	(10)	30.0	10.0	20.0	30.0	0.0	10.0
	20년 이상	(8)	12.5	12.5	37.5	25.0	0.0	12.5
성별	남성	(61)	21.3	8.2	26.2	32.8	8.2	3.3
	여성	(40)	12.5	15.0	32.5	20.0	10.0	10.0
최종 학력	대졸 이하	(20)	10.0	5.0	25.0	40.0	15.0	5.0
	석사 졸업	(27)	18.5	14.8	29.6	18.5	11.1	7.4
	박사 졸업	(54)	20.4	11.1	29.6	27.8	5.6	5.6

라. 평가결과의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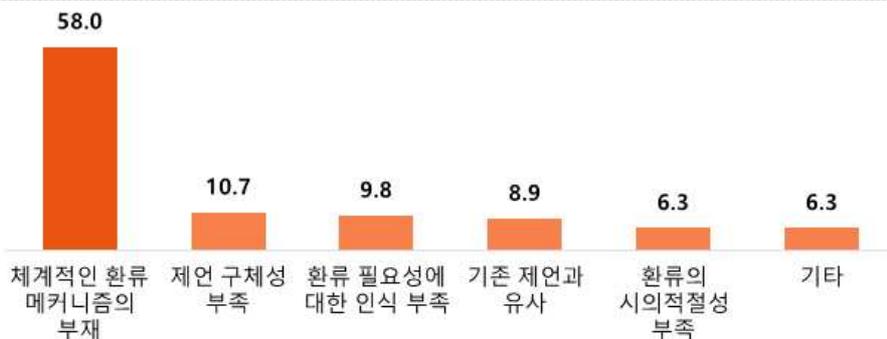
그림 4-12. 평가결과의 환류

문21.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제안은 충분히 환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1-1. 평가결과 환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 이유



[Base : ODA성과 평가 경험자 n=269, 단위: %]



[Base : 국내 ODA 시행기관의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 n=112, 단위: %]

응답자의 55.0%가 평가결과 환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1.7%는 평가결과의 환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환류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10.0%,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45.0%이다. 환류가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8.7%, 매우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3.0%이다.

소속기관별로 공공부문 응답자의 70% 이상이 평가 제안이 잘 환류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간부문은 평가결과의 환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

답한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았다. 연구부문 종사자의 경우에도 환류에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에 비해 많았다(각각 49.5%, 47.5%).

소속기관 세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응답자의 80.7%가 평가 결과의 환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대학과 시민단체,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민간 전문기관 종사자의 50% 이상이 평가 환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3년 미만 종사자의 70% 이상이 환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종사기간이 길어질수록 환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5년 이상~10년 미만 40.0%, 10년 이상~15년 미만 3.2%, 15년 이상~20년 미만 60.8%가 평가제언 환류여부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단, 20년 이상 종사한 응답자의 60.0%가 환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특성과 상관없이 대부분 체계적 환류 메커니즘의 부재가 환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평가결과의 환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58.0%가 이에 해당한다. 제언의 구체성 부족이라고 답한 비중은 10.7%, 환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기존 제언과 유사하다는 의견은 각각 9.8%, 8.9%, 환류의 시의적절성 부족은 6.3%로 나타났다.

표 4-15. 국내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제언이 충분히 환류되는 정도

ODA 분야 평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 n=269, 단위: 개, %, 점

구 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부정적	긍정적	100점 평균
전체		(269)	3.0	38.7	45.0	10.0	3.3	41.7	55.0	66.1
소속기관 유형	공공부문	(89)	2.2	20.2	55.1	18.0	4.5	22.4	73.1	73.2
	연구부문	(103)	1.9	47.6	38.8	8.7	2.9	49.5	47.5	64.0
	민간부문	(70)	5.7	48.6	40.0	2.9	2.9	54.3	42.9	60.3
	기타	(7)	0.0	42.9	57.1	0.0	0.0	42.9	57.1	64.3
소속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34)	2.9	26.5	50.0	17.6	2.9	29.4	67.6	71.2
	공공기관	(52)	0.0	17.3	61.5	19.2	1.9	17.3	80.7	75.5
	국제기구	(3)	33.3	0.0	0.0	0.0	66.7	33.3	0.0	25.0
	대학	(70)	2.9	50.0	35.7	10.0	1.4	52.9	45.7	63.4
	연구기관	(33)	0.0	42.4	45.5	6.1	6.1	42.4	51.6	65.3
	시민단체	(41)	4.9	48.8	41.5	2.4	2.4	53.7	43.9	60.6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24)	4.2	45.8	41.7	4.2	4.2	50.0	45.9	62.0
	민간 전문기관	(5)	20.0	60.0	20.0	0.0	0.0	80.0	20.0	50.0
기타	(7)	0.0	42.9	57.1	0.0	0.0	42.9	57.1	64.3	
종사분야	교육	(39)	0.0	41.0	46.2	10.3	2.6	41.0	56.5	67.1
	보건의료	(27)	0.0	33.3	48.1	11.1	7.4	33.3	59.2	69.0
	물공급 및 위생	(7)	0.0	42.9	57.1	0.0	0.0	42.9	57.1	64.3
	공공행정/거버넌스	(25)	4.0	40.0	48.0	4.0	4.0	44.0	52.0	63.5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6)	0.0	50.0	16.7	33.3	0.0	50.0	50.0	70.8
	에너지	(2)	50.0	0.0	0.0	50.0	0.0	50.0	50.0	62.5
	정보통신 및 IT 기술	(13)	0.0	38.5	46.2	7.7	7.7	38.5	53.9	66.7

	금융 및 회계	(6)	0.0	16.7	83.3	0.0	0.0	16.7	83.3	70.8
	농림수산	(39)	5.1	35.9	46.2	10.3	2.6	41.0	56.5	65.8
	산업	(10)	0.0	30.0	60.0	0.0	10.0	30.0	60.0	66.7
	관광	(1)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환경 및 기후변화	(10)	10.0	0.0	40.0	40.0	10.0	10.0	80.0	80.6
	개발협력사업 일반	(63)	4.8	50.8	36.5	6.3	1.6	55.6	42.8	61.3
	기타	(21)	0.0	33.3	52.4	14.3	0.0	33.3	66.7	70.2
중사 기간	1년 미만	(11)	0.0	27.3	63.6	9.1	0.0	27.3	72.7	70.5
	3년 미만	(42)	2.4	21.4	54.8	16.7	4.8	23.8	71.5	72.5
	5년 미만	(41)	2.4	36.6	53.7	4.9	2.4	39.0	58.6	65.6
	10년 미만	(65)	0.0	40.0	46.2	10.8	3.1	40.0	57.0	67.5
	15년 미만	(62)	4.8	48.4	33.9	6.5	6.5	53.2	40.4	61.2
	20년 미만	(23)	13.0	47.8	30.4	8.7	0.0	60.8	39.1	58.7
	20년 이상	(25)	0.0	40.0	44.0	16.0	0.0	40.0	60.0	69.0
성별	남성	(165)	3.0	33.9	51.5	9.7	1.8	36.9	61.2	67.3
	여성	(104)	2.9	46.2	34.6	10.6	5.8	49.1	45.2	64.0
최학 종류	대졸 이하	(61)	0.0	34.4	49.2	9.8	6.6	34.4	59.0	68.4
	석사 졸업	(86)	5.8	31.4	46.5	14.0	2.3	37.2	60.5	67.6
	박사 졸업	(122)	2.5	45.9	41.8	7.4	2.5	48.4	49.2	63.9

표 4-16. 국내 ODA 시행기관 자체평가 제언의 환류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국내 ODA 시행기관 자체평가 제언의 환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 n=112, 단위: 개, %

구 분		전 체	체계적인 환류 메커니즘의 부재	기존 제언과 유사	제언 구체성 부족	환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환류의 시의적절성 부족	기타
전체		(112)	58.0	8.9	10.7	9.8	6.3	6.3
소속 기관 유형	공공부문	(20)	55.0	10.0	20.0	10.0	5.0	0.0
	연구부문	(50)	76.0	2.0	4.0	10.0	4.0	4.0
	민간부문	(39)	41.0	15.4	12.8	10.3	10.3	10.3
	기타	(3)	0.0	33.3	33.3	0.0	0.0	33.3
소속 기관 세부 유형	정부부처	(10)	50.0	20.0	20.0	0.0	10.0	0.0
	공공기관	(9)	55.6	0.0	22.2	22.2	0.0	0.0
	국제기구	(1)	100.0	0.0	0.0	0.0	0.0	0.0
	대학	(37)	78.4	2.7	2.7	8.1	2.7	5.4
	연구기관	(13)	69.2	0.0	7.7	15.4	7.7	0.0
	시민단체	(23)	47.8	17.4	21.7	8.7	0.0	4.3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12)	33.3	8.3	0.0	16.7	25.0	16.7
	민간 전문기관	(4)	25.0	25.0	0.0	0.0	25.0	25.0
기타	(3)	0.0	33.3	33.3	0.0	0.0	33.3	
중사 분야	교육	(16)	50.0	6.3	18.8	0.0	18.8	6.3
	보건의료	(9)	55.6	0.0	11.1	11.1	11.1	11.1
	물공급 및 위생	(4)	50.0	0.0	25.0	25.0	0.0	0.0
	공공행정/거버넌스	(11)	63.6	0.0	9.1	18.2	0.0	9.1
	교통인프라(도로, 철도 등)	(3)	33.3	33.3	0.0	0.0	33.3	0.0
	에너지	(1)	0.0	0.0	0.0	100.0	0.0	0.0
	정보통신 및 IT 기술	(5)	80.0	20.0	0.0	0.0	0.0	0.0
	금융 및 회계	(1)	100.0	0.0	0.0	0.0	0.0	0.0
	농림수산	(16)	43.8	25.0	12.5	12.5	6.3	0.0
	산업	(3)	100.0	0.0	0.0	0.0	0.0	0.0
	관광	(1)	0.0	0.0	0.0	0.0	0.0	100.0
	환경 및 기후변화	(1)	100.0	0.0	0.0	0.0	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34)	64.7	8.8	8.8	8.8	2.9	5.9
기타	(7)	57.1	0.0	14.3	14.3	0.0	14.3	
중사	1년 미만	(3)	33.3	66.7	0.0	0.0	0.0	0.0

기간	3년 미만	(10)	70.0	20.0	10.0	0.0	0.0	0.0
	5년 미만	(16)	56.3	0.0	37.5	6.3	0.0	0.0
	10년 미만	(26)	46.2	7.7	15.4	11.5	11.5	7.7
	15년 미만	(33)	60.6	3.0	3.0	15.2	9.1	9.1
	20년 미만	(14)	71.4	7.1	0.0	7.1	0.0	14.3
	20년 이상	(10)	60.0	20.0	0.0	10.0	10.0	0.0
성별	남성	(60)	55.0	10.0	10.0	13.3	6.7	5.0
	여성	(52)	61.5	7.7	11.5	5.8	5.8	7.7
최종학력	대졸 이하	(21)	42.9	19.0	28.6	9.5	0.0	0.0
	석사 졸업	(33)	51.5	9.1	6.1	9.1	15.2	9.1
	박사 졸업	(58)	67.2	5.2	6.9	10.3	3.4	6.9

제5장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와 향후 추진방향

ODA 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 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사회, 연구기관, 시행기관에 소속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2020년 11월 4일에 개최되었으며, 개발협력 정책 일반 및 보건, 농업, 산업, 과학기술 등 개발협력 각 분야에서 총 6인의 전문가 참여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현재 직면한 한국의 ODA 정책 개선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ODA 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과제 등이다.

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여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도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전략에 따라 ODA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4.0%의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이 중에서 다소 그렇다는 비중도 40.1%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 ODA가 SDGs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ODA 사업을 SDGs와 보다 용이하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사전메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 사업별로 SDGs를 제시하기 보다는 국별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통해 종합적인 SDGs 성과를 파악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우선 ODA 사업 추진이 단일한 분야의 SDGs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SDGs 특성상 상호연계된 지표와 세부목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차원의 접근방식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농촌개발 사업의 성과는 빈곤퇴치(SDG1),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SDG8), 영양개선(SDG2) 등 여러 지표와 연계될 수 있다. 이렇듯 한 사업을 추진 시 사업 구성요소가 다양하여 여러 가지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을 단일 SDGs 목표와 연계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DGs 이행을 위해서는 5P 측면의 상호연관성과 통합성이 중요하고 다양한 개발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사업을 SDGs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담당자의 SDGs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

행계획 작성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 목표와 SDGs가 잘못 연계되거나 목표간 연계성이 고려되지 못해 사업성과를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 요청으로 ODA 시행기관은 각 사업별로 SDGs를 연계하고 통합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수행내용과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 SDGs와 연계된 사업모델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SDGs의 통합성과 목표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 교육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고 분야별 중기전략과 복합적 지원방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 공동의 추진과제인 SDGs 기여수준을 높이고,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활용해야 하는 사업담당자들의 SDGs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 실시, 충분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대외정책과 연계한 정책 시너지 제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대외 정책과 ODA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73.0%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문가 심층조사에서도 대부분 이와 같은 결과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심층면접 참여자의 대부분은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과 ODA 정책과 사업이 일관성 있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ODA를 추진할 시 정책적 정합성이 중요하며, 단순히 정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대외정책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ODA 규모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책 시너지 제고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동안 녹색성장, 새마을 운동,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 어젠다에 연계한 ODA 정책방향이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하였으나, 해당 정책 관련 사업 다수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의 지속성 가능성이 저하되고 성과관리가 어려워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정책변화에 따른 성급한 추진보다는 지속성을 지닌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과 함께 그린 뉴딜 ODA 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 성과관리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ODA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 수행되었던 사업의 내용, 애로사항, 성과 등을 학습하고 보완점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향후 사업에 연계하여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3. 글로벌 파트너십과 민관협력 강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국제기구, 타공여기관, 수원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 긍정적 응답이 72.0%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 소속기관별로 정부부처(88.2%)와 공공기관(80.7%) 응답자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반면, 민간 전문기관(42.9%)과 국제기구(50.0%) 소속 응답자의 긍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이러한 소속기관별 응답 편차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한국 ODA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규모 확대, 기타 분야와 연계를 위한 교두보 역할 등을 기대하면서 해외사무소를 통해 다자기구와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다자기구를 통해서 협력하는 경우 안정성, 고위급 논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재원투입 대비 성과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제약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다자기구와의 협력은 주로 실행기관이 재원을 제공하고, 다자기구가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성과 관련하여 보고가 상세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과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 통제에도 문제가 있어 다자기구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 과제는 다른 ODA 추진과제에 비해 중립적 응답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과제에 대한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1) 부처 담당자의 민관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2) 민간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해야 하며,

3) 인권 및 세이프가드 등 국제적인 권고사항을 고려한 ODA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협력은 개별 프로그램, 개별 사업으로서의 민간협력 사업만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 양자 및 다자 ODA 사업에서의 체계적인 민간과의 협력 정책이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 개별 사업에서의 단발적인 수행이 아닌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민간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나 주관기관 수준에서 민간협력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기관에 지침 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동시에 부처 담당자가 민관협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협력 사업 형성 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시행기관이나 사업 형성시 기업의 CRS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민관협력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측면이 좀더 고려된다면, 민간기업의 협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KOICA에서 CJ와 함께 추진한 ‘KOICA-CJ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은 생각해 볼 만한 사례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OICA는 지속적으로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CJ 역시 전문가를 계속 파견하고 있다.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을 담보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과의 협력 및 사회적 경제 확대를 통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때, UN의 기업가 인권 이행지침이나 세이프 가드가 잘 이행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4. 통합적 ODA 추진체제와 성과관리

전문가 만족도조사 결과 정부의 정보공유 및 조정기능 강화 등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ODA 정책이 명확한 ODA 목표와 청사진, 로드맵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ODA 사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성 부재 하 개별 사업들의 관리와 조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의 주요 역할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 ODA 목표 정립, 국정과제와

ODA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등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은 사업 발굴·성과관리·평가 등 큰 전략 과 정책에서의 방향성과 추진 지침을 제시하고, 무상원조 내에서의 조정, 사업 간의 조정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무상간의 연계와 조정은 통합기구나 국무조정실이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국조실의 종합시행계획 절차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사의 주체와 시점이 다르다보니 두 과정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상원조협의회 및 시행계획 상 사업 추진이 협의되었다하더라도 하반기에 진행되는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반 년 동안 진행했던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비효율이 종종 발생한다. 이에 시행계획 상 논의가 예산 편성까지 제대로 연계될 필요성을 설파하였다.

아울러 통합적, 연계 사업을 추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성과 도 달치, 성과관리 등에 대한 정보 공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 모델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행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적, 연계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처간 사업의 중복 문제는 점차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나, 협력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복된다고 사료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민간참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민간참여가 확대된 상황에서 부처 이외의 사업들은 통합적 관리가 어렵다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ODA 사업관리 절차의 체계화 과제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63.1%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다른 국제개발협력 추진과제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다양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n-2 체제는 협력국과 안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고를 위한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며, 현지 조사를 축소하거나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언급됐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사업 추진에 대한 요청이 많은데, 유무상사업은 사업기획 및 추진 기간 및 프로세스가 너무나 다르다. 유무상 원조 행정절차가 동일한 현 상황에서는 사업을 기획하고 성과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유무상 연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KOICA와 달리 부처 및 처청위원회 등 기타 원조 수행기관의 경우 수요 조사 및 사업 실행 편차가 매우 크다는 의견도 논의되었다. KOICA 등 주요 원조 수행기관의 사업관리 등 프레임워크가 공유 및 적용하여 ODA 사업을 추

진한다면 ODA 사업의 전반적인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부처간 전문성이 강화되는 경우 분절화는 심해지고 사업 관리 및 조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5. 포스트 코로나 개발협력 과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개발협력 사업의 많은 부분이 웨비나, 화상회의 등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경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현장중심 원조가 강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원격 업무와 현장중심의 원조의 여러 장점이 있으나, 현장중심 원조의 어려움과 단점도 고려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한 전문가는 현장중심 원조의 강화가 협력국의 주인의식 강화, 현장 역량 있는 협력국 내 파트너를 발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역에 따라 전기 및 통신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화상회의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인프라 이외에도 현지 기관 내부의 관료적 문제로 인한 업무 진행 지연이나 현지 컨설턴트 낮은 역량도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나라별·분야별·사업별 상황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현장중심체제의 획일적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고 논의되었다.

또한 현장중심 원조가 현지사무소의 역량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지사무소에 많은 권한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지 직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야기되는 문제, 현지 컨설턴트에 대한 의존도 상승 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중심 원조를 강화할 시 한국 원조기관의 현장사무소 중심이 아닌 현지역량을 강화하여 현지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의 현장중심이 되어야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지 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여러 시행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종합 분석하여 현장중심체제 강화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개발협력사업이 현장중심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장중심체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또한 현지 출장을 통해서만 파악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중심 체제로만 치우치기 보다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코로나19는 사업추진체계의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적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며, 수원국의 필요에 적시적기에 대응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여국의 주요한 역할임이 재확인되었다. 현재의 n-2 사업발굴 체제는 사전에 사업을 상세히 기획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나, 탄력적인 ODA 사업 수행과 운영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n-2 사업발굴 체제와는 별도로 급변하는 수원국의 환경에 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운영 방식을 변경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K-방역 등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방향성, 수행방식 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위기관 차원에서의 사업 방향성 조정, 시행기관의 개발협력 수행 방안 등의 지침 제공이 시급한 상황임을 재확인하였다.

제6장 정책적 시사점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과제목표로 제시된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을 위한 성과지표로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본 조사는 ODA 전문가 404명을 대상으로 2020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과 함께 ODA 시행기관과 관련부처들이 효과적으로 원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조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국정과제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인지도 증가

ODA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ODA정책에 대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정과제 및 최근 ODA 정책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다양한 제도적 개선노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ODA 정책방향과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하여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기본법 개정, 보건의료 ODA과 내년도 ODA 예산확대 등 2020년 정부의 주요성과를 조사한 결과 ODA 전문가 대부분이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42.1%였으나, 2020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는 34.4%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43.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1.4%, 정부의 내년도 ODA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7.3%로 높게 났으나,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내년도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는 “잘 알고 있다”가 40.1%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전면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2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금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주관기관의 권한·기능 강화,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설치 등에 따라 중점협력국별 중기지원전략 수

립절차,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의 환류 등 주요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2. ODA 전문가 만족도 증가

ODA 전문가의 항목별 만족도와 체감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ODA 전문가 만족도의 2020년 종합 점수는 68.4점으로 전년 대비 4.8점 상승하였다. 이는 국정과제와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와 과제추진에 대한 체감만족도 모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항목별 만족도는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을 6개 문항으로 제시하고 각 과제별로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7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SDG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6.7%, 상당히 그렇다 27.2%, 다소 그렇다 40.1%로 긍정적 답변이 74.0%를 차지하여 7점 평균 5.06점을 기록하였다. 신남방·신북방정책 등과 연계하여 정책시너지 효과를 내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9.2%, 상당히 그렇다 31.9%, 다소 그렇다 31.9%로 긍정적 답변이 73.0%를 차지하여 7점 평균 5.11점을 기록하였다. 이와같이 ODA 정책이 국제적 개발목표인 SDG 달성에 기여하고, 국정과제인 대외정책 방향과 부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항목만족도에서 72.7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5.5점의 만족도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사업계획 단계부터 SDG와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신남방정책의 경우 작년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신남방정책플러스’를 통해 7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ODA와 연계성을 확대함으로써 ODA의 체계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성의 경우 정부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민간부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가에 대해서는 100점 환산 기준 70.8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6.2점의 증가를 나타냈다. 금년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지난 10년간 ODA 선진화와 함께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중견 공여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초월한 보건안보 위협에 직면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왔다. 한국의 방역시스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 받아왔고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방역역량과 ICT를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ODA 전략인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7월 2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한 범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12개 전략 중 하나인 ‘전략적 ODA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성공적 방역 경험을 저소득국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보편적 모델로 재구성하여 ‘수원국 맞춤형 K-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정부 - 시민사회 - 기업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통합적인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1. 정부는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도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전략에 따라 ODA를 제공하고 있다
2. 정부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 대외 정책과 ODA를 긴밀히 연결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정부는 국제기구, 타공여기관, 수원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4. 정부는 정부 외 민간 부문(민간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정부는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사업의 통합 및 조정체계 강화 등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정부는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ODA 사업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있다

ODA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개위의 조정기능 강화, 사업의 통합 및 조정체계를 강화하고 ODA 사업의 관리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68.4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5.6점의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9년 11월 전면 개정되어 국무조정실은 금년 9월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고, 동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주관기관의 권한·기능 강화, 국개위 사무기구 설치,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설치 등 다양한 조정기능 강화로 ODA 효율성 제

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년 제3차 중기계획 수립과 중점협력국 재조정을 추진 중이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중점협력국별 중기지원전략 수립절차,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의 환류 등 다양한 조치가 검토중이어서 ODA 전문가들의 항목만족도를 크게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체감만족도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한 과정 만족도 66.7점으로 전년대비 4.7점 상승하였고, 개도국 지원성과에 대한 결과 만족도는 66.8점으로 5.8점 상승하였다. 그러나 전년대비 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전년 대비 만족도는 65.4점으로 1.5점 상승하였다.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를 합산한 종합적인 만족도는 68.4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4.8점이 증가하였고, 이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코로나19 등 글로벌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적 정책 공조와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방향이 긍정적인 인식전환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공공의료와 방역 등 보건시스템이 취약하고, 기후변화 적응·완화 역량 및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도국 경제·사회 복원 지원을 위한 노력이 국민적 공감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내적으로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과 ODA 연계를 통해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ODA 정책 수립이 시급하고, 신남방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 및 신북방 지역의 경제개방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우리 ODA 사업 확대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 중견국으로서 위상 변화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며, 개발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할 필요가 있다.

3.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주요 정책과제

ODA 전문가들은 대부분 국제개발협력이 수원국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이어서 ODA가 수원국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91.6%¹¹⁾로 매우 높은 수준이

11) 100점 평균을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년대비 6.8점 상승함???

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는 33.7%, “약간 도움이 된다” 57.9%이고,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은 8.4%에 불과하였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적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2%로 가장 높았으며,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하여 ODA 예산 확대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7.8%로 나타났다. 2019년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는 전체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로, 1인당 연간 약 5만 7천 원(약 49달러)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의 경우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이 0.27%여서 국민 1인당 약 14만 4천 원(연간 124달러) 수준이다. 호주의 경우 국민 총소득 대비 0.22%, 국민 1인당 약 12만 9천원(연간 111달러) 수준임을 비교할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개도국 경제의 경제·사회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범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과 함께 42개 기관의 내년도 ODA 사업을 담은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승인하여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확정예산) 3조 4,270억 원보다 6,523억 원 증가한 4조 793억 원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ODA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64.6%가 응답한 ‘국제사회와 약속한 수준(국민총소득(GNI) 대비 0.2%)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ODA 전문가의 ‘적절한 대외원조 금액’의 평균은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5,266원 증가한 97,452원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대외원조 금액’에 대해 2020년과 2019년의 응답을 비교하였을 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22.3% 상승)’, ‘30만원 이상(0.5% 상승)’는 증가하였고, ‘10만원 미만(17.2% 감소)’ 및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5.5% 감소)’은 감소하였다.

ODA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ODA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한 복수응답(1순위, 2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결과가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었는지’가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가 37.9%, ‘원조를 받는 국가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가 34.7%여서 ODA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원조규모의 확대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21.8%를 응답하여 원조사업의 비용효과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순위 기준으로 보면, ‘사업결과가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었는지’

가 6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10.4%, ‘원조를 받는 국가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가 10.1%,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가 6.4% 등으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ODA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결과는 복수응답의 경우 ‘ODA 관련 전문인력 육성’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장중심의 원조사업 추진’ 27.7%, ‘전략, 계획수립 기능 강화’ 25.2%, ‘통합적 원조 체계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25.0%, ‘ODA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24.5%, ‘ODA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강화’ 21.0% 등의 순서로 응답되었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략수립 - 사업 기획·발굴 - 사업 심사·조정 - 점검·평가 등 ODA 주기를 혁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컨트롤 타워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기구도 신속하게 확대·개편할 예정이어서 전략 및 계획수립이 강화되고 ODA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ODA 관련 전문인력 육성, 현장중심의 원조체계 강화,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하는 정책과제가 제기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기관으로 ‘정부기관’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내외 시민단체(NGO)’ 21.3%, ‘국제기구(UN, 세계은행 등)’ 16.1%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원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 지원과 SDGs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정책은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술정책 22.5%, 농업지원 정책 16.1%, 투자 및 금융 정책’ 12.6%, 무역정책’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ODA 사업의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개선과제

최근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ODA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평가의 대표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현재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위원회 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가 사업 개선으로 환류하는 체계가 미비하여 평가 결과의 효용성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DA 전문가중에서 평가경험이 있는 269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기초선조사와 모니터링의 충분성 여부, 평가대상 선정의 객관성, 자체평가 제안의 환류 등 실효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ODA 전문가 중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의 평가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269명(66.6%)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내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평가 시 개선과제에 대한 복수응답을 살펴보면, ‘기관 내 담당인력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성 있는 외부 평가전문가 부족’ 31.6%, ‘축적된 성과데이터 및 플랫폼 기능 부재’ 31.2%, ‘성과관리/평가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이해 부족’ 24.1%, ‘성과관리/평가 예산 부족’ 24.5%를 기록하여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관련 예산 확대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특히 ODA 전문가중에서 평가 경험자를 대상으로 국내 ODA 시행기관이 ODA 사업 시 모니터링의 충분성을 4점 척도로 물었을 때, 60.6%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37.5%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n=101)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성과관리(모니터링) 역할분담 체계의 미비’ 28.7%, ‘전문성 부족’이 27.7%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성과관리(모니터링) 예산 부족’ 17.8%,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0.9%, ‘조사기간(시간) 불충분’ 8.9% 순으로 응답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국경을 초월한 보건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고, 범정부 차원에서 K-방역 등 보건의료 ODA 확충,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의 취약성에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조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와 평가기능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SDGs에 기여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서 SDGs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 실시, 충분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제3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4-1호)

권율, 박수경, 이주영. 2011.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및 국제비교』. ODA 정책연구 11-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이주영. 2012.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 국무조정실 용역보고서.

권율, 이주영, 유애라. 2014.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국무조정실 용역보고서.

김은주, 이광희, 박정호, 문국경, 현채은, 김윤희, 김솔, 권지윤. 2017.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용역보고서.

김은주, 윤수재, 박중훈, 류현숙, 문현경, 진선백, 정유진. 2018.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연구(2차)』.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용역보고서.

김은주, 윤수재, 윤건, 김경우, 이은중, 김황열, 송홍. 2019.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용역보고서.

박복영, 김형중. 2014. 『2014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국무조정실 용역보고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20. 20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과제별 보고서.

[인터뷰 자료]

전문가 심층면접조사(2020. 11. 4, 서울)

부 록

ODA 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조정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의뢰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전문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체계성·통합성·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청취해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책의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의 고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응답내용과 개인의 신상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에 끝까지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을 조사 종료시점인 10월 말 경에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조사기간 : 2020. 10. 7 ~ 20

연구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사기관 : (주)메가리서치

조사문의 : (주)메가리서치 연구3팀 김동주 연구원 (02-3447-1556)

공문 : [2020년도_ODA전문가_만족도_조사연구_설문조사_협조요청.pdf](#)

※ 설문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이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 (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응답해 주신 모든 자료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지며, 기관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결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 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먼저 조사 대상 확인을 위한 질문입니다.

본 조사는 공적개발원조 분야의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공공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SQ1. 귀하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현재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② 과거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 ③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SQ2. 귀하가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연구하거나 종사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이상~3년 미만
- ③ 3년 이상~5년 미만
- ④ 5년 이상~10년 미만
- ⑤ 10년 이상~15년 미만
- ⑥ 15년 이상~20년 미만
- ⑦ 20년 이상

SQ3. 귀하의 소속기관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대학
- ② 정부부처
- ③ 공공기관
- ④ 공공 연구기관(국책연구원)
- ⑤ 국제기구
- ⑥ 시민단체
- ⑦ 민간기업 및 컨설팅 기관
- ⑧ 민간 전문기관(병원, 법무법인 등)
-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SQ4. 귀하께서 국제개발협력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경우 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십니까?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면 대표적인 업무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① 정책 수립 및 자문
- ② 사업 기획
- ③ 사업수행 및 관리
- ④ 모니터링 및 평가
- ⑤ 연구
- ⑥ 교육훈련
- ⑦ 애드보커시 (홍보, 옹호활동 등)
- ⑧ 봉사활동
- ⑨ 기타 (구체적으로:)

SQ5.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귀하가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여러 분야에 관여하고 계신다면 대표적인 분야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① 교육
- ② 보건의료
- ③ 물공급 및 위생
- ④ 공공행정/거버넌스
- ⑤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등)
- ⑥ 에너지
- ⑦ 정보통신 및 IT 기술
- ⑧ 금융 및 회계
- ⑨ 농림수산
- ⑩ 산업
- ⑪ 관광
- ⑫ 환경 및 기후변화
- ⑬ 개발협력사업 일반
- ⑭ 기타 (구체적으로:)

I.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평가

문1.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국정과제는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이며, 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국정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국정전략: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과제목표

-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 확대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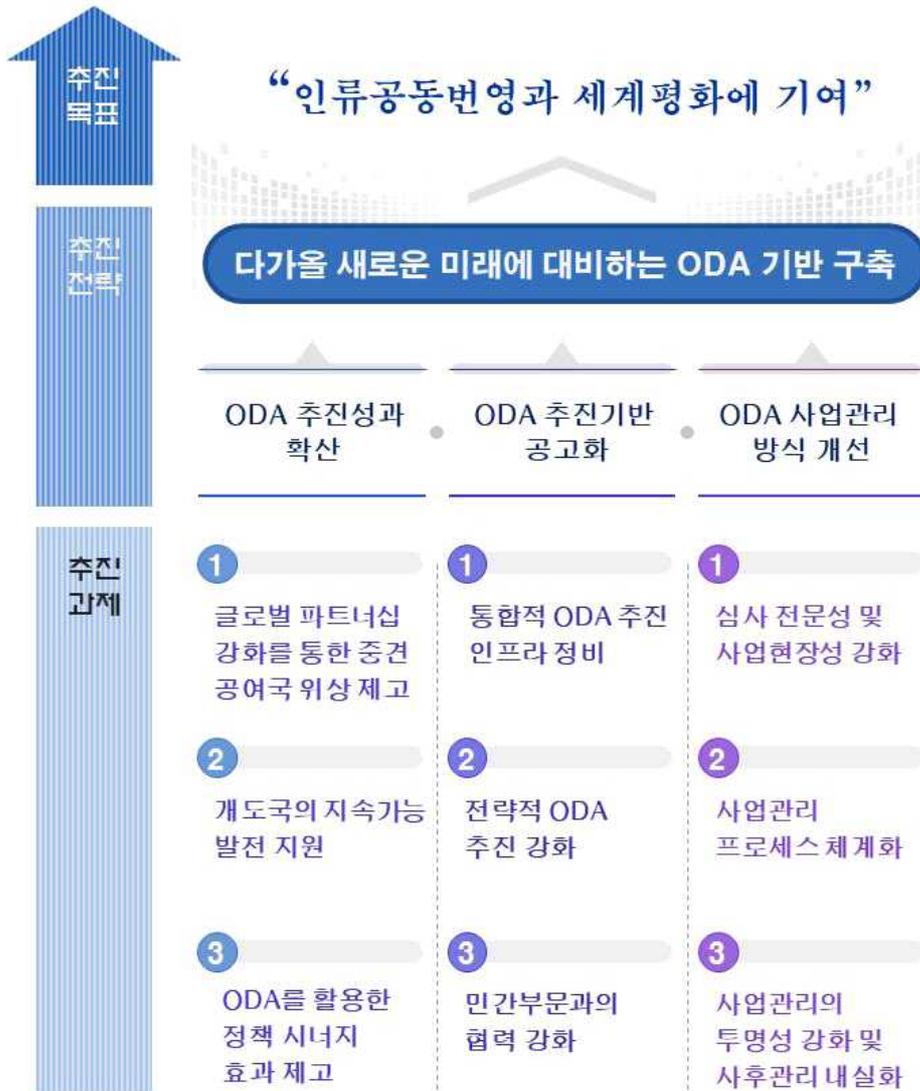
- (경제협력 다변화·다각화)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동위를 통한 양자경제 관리,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외교적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협상 적극 참여, 자발적 감축 공약 제출 준비
-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 기여
-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유·무상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 협력 이행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실)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등 적극 활용

• 기대효과

-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
- 효율적 원조사업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국익 제고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들어본 적이 있다
- ④ 처음 들어 본다

문2. 귀하는 ODA 관련 국정과제의 2020년도 추진방향을 나타내는 국제개발협력 중
합시행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들어본 적이 있다
- ④ 처음 들어 본다

문3. 귀하는 2020년 5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외통위 의결안, '19.11.26) 주요 내용 >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수립 및 사업 연계·조정 등 통합·조정 기능 강화**
 - 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계획·전략·정책의 조정 및 심사·의결, 위원회 기능 수행 보좌를 위한 사무기구 신설
 - 예산편성시 국개위 결과 존중, 평가결과 환류 의무화 등 사업 심사·평가 기능 강화
 - 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등 사업 심사·점검·지원 강화
- ▶ **주관기관의 소관분야별 정책·사업 관리 기능 강화**
 -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의 구성·운영
 - 주관기관 기능에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전략 수립, 사업 심사·조정 등 명시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들어본 적이 있다
- ④ 처음 들어 본다

문4. 귀하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년도 보건의료 ODA 규모를 대폭 확대(요구액 기준 33.7% 증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들어본 적이 있다
- ④ 처음 들어 본다

문5. 귀하는 정부가 내년 ODA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9% 증가한 4조 793억원으로 확대하기로한 것(요구액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들어본 적이 있다
- ④ 처음 들어 본다

문6. 다음은 2020년 국제개발협력 추진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추진 상황과 관련한 다음 각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정부는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도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전략에 따라 ODA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거의	별로	보통	다소	상당히	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않다				

2)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대외 정책과 ODA를 긴밀히 연결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거의	별로	보통	다소	상당히	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않다				

3) 정부는 국제기구, 타공여기관, 수원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거의	별로	보통	다소	상당히	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않다				

4) 정부는 정부 외 **민간 부문(민간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거의	별로	보통	다소	상당히	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않다				

5) 정부는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사업의 통합 및 조정체계 강화 등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거의	별로	보통	다소	상당히	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않다				

6) 정부는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ODA 사업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있다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전혀 | 거의 | 별로 | 보통 | 다소 | 상당히 | 매우 |
| 그렇지 | 그렇지 | 그렇지 | 이다 | 그렇다 | 그렇다 | 그렇다 |
| 않다 | 않다 | 않다 | | | | |

문7. 현 정부의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개발원조’ 와 관련, 금년도 국제개발협력 추진 상황에 대한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매우 | 상당히 | 약간 | 보통 | 약간 | 상당히 | 매우 |
| 불만족 | 불만족 | 불만족 | 이다 | 만족 | 만족 | 만족 |

2) 정부의 개도국 지원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매우 | 상당히 | 약간 | 보통 | 약간 | 상당히 | 매우 |
| 불만족 | 불만족 | 불만족 | 이다 | 만족 | 만족 | 만족 |

3) 전년 대비 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매우 | 상당히 | 약간 | 보통 | 약간 | 상당히 | 매우 |
| 불만족 | 불만족 | 불만족 | 이다 | 만족 | 만족 | 만족 |

문8. 귀하는 ODA 국정과제 관련,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의 중요도가 각각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합계가 100%가 되도록 제시하여 주십시오.

체계적 ODA	통합적 ODA	효율적 ODA	합계
%	%	%	100%

문9.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정과제의 계획 수립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만족이나 불만족 이유, 정부가 노력해줬으면 하는 사항 등 풍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주관식)

II.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문10.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 ②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 ③ 약간 도움이 된다
-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11. 우리나라 대의원조 규모는 전체 국민총소득(GNI) 대비 약 0.15%입니다. 향후 대의원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2019년 기준 약 2조 9천억 원 집행, GNI 대비 0.15%
(OECD DAC 29개국 중 15위 규모)
- ☞ 2020년까지 **0.2%**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국제사회 약속)

- ① 현재 수준 보다 축소해야 한다
- ②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 ③ 국제사회와 약속한 수준(국민총소득(GNI) 대비 0.2%)으로 확대해야 한다
- ④ 국제사회 권고기준 수준(국민총소득(GNI) 대비 0.7%)으로 확대해야 한다

문12. 2019년 우리나라 대의원조 규모는 전체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로, 1인당 연간 약 5만 7천 원(약 49달러)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21년 국민 1인당 적절한 대의원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금액 수준을 참고해 적당한 금액 수준을 응답해주세요. (주관식)

- ☞ 한국 : 국민 총소득 대비 0.15%, 국민 1인당 연간 49달러 (약 5만 7천원)
- ☞ 영국 : 국민 총소득 대비 0.70%, 국민 1인당 연간 292달러 (약 33만 8천원)
- ☞ 프랑스 : 국민 총소득 대비 0.44%, 국민 1인당 연간 182달러 (약 21만 1천원)
- ☞ 캐나다 : 국민 총소득 대비 0.27%, 국민 1인당 연간 124달러 (약 14만 4천원)
- ☞ 호주 : 국민 총소득 대비 0.22%, 국민 1인당 연간 111달러 (약 12만 9천원)

원

문13. 귀하께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ODA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 ② 사업결과가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었는지
- ③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 ④ 원조를 받는 국가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 ⑤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 ⑥ 평가결과가 제도개선에 활용되었는지
- ⑦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성공적인지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3-1. 위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근거를 서술해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문제인식과 대안을 자유롭게 기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14. 현 정부의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전략, 계획수립 기능 강화
- ② 사전조사 혹은 사전평가 강화
- ③ ODA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강화
- ④ ODA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⑤ ODA 정책의 투명성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 ⑥ ODA 관련 전문인력 육성
- ⑦ 통합적 원조 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 ⑧ 민간부문 참여 제고
- ⑨ 개발협력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 ⑩ 현장중심의 원조사업 추진
- ⑪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4-1. 위의 ODA 정책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근거를 서술해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문제인식과 대안을 자유롭게 기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문15. 개발도상국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기관
- ② 국내외 시민단체 (NGO)
- ③ 개도국 현지 시민단체 (NGO)
- ④ 민간기업
- ⑤ 대학, 병원 등 전문기관
- ⑥ 국제기구(UN, 세계은행 등)

문16.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원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 지원과 SDG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정책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
- ② 이민정책
- ③ 무역정책
- ④ 투자 및 금융 정책
- ⑤ 기술정책
- ⑥ 농업지원정책
- ⑦ 안보 관련 정책
-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Ⅲ.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인식

SQ6. 귀하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평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현재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 ② 과거에 수행하거나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 ③ 평가 경험이 없다 (응답자 특성 관련 질문으로 이동)

문17. 2021년 예산안(요구액)기준 총 42개 부처/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에 있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성과관리/평가 예산 부족

- ② 기관 내 담당인력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 ③ 기관 내 평가담당자/부서의 독립성 부족
- ④ 전문성있는 외부 평가전문가 부족
- ⑤ 축적된 성과데이터 및 플랫폼 기능 부재
- ⑥ 성과관리/평가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이해 부족
- ⑦ 성과관리/평가에 대한 기관 내 인센티브 부족
- ⑧ 평가 거버넌스/제도 미비, 평가매뉴얼 부족
- 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상위평가 기능 부족
-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8.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대상 선정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않다
- ② 별로 그렇지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⑤ 모르겠다

문19.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은 ODA 사업에 대해 기초선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않다
- ② 별로 그렇지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⑤ 모르겠다

문19-1. ① 혹은 ②를 선택하신 경우,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ODA 사업에 대해 기초선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성과관리(기초선 조사 포함) 예산 부족
- 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③ 성과관리 역할분담 체계의 미비
- ④ 전문성 부족
- ⑤ 조사기간(시간) 불충분

⑥ 기타 (구체적으로:)

문20.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은 ODA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않다
- ② 별로 그렇지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⑤ 모르겠다

문20-1. ① 혹은 ②를 선택하신 경우,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ODA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성과관리(모니터링) 예산 부족
- 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③ 성과관리(모니터링) 역할분담 체계의 미비
- ④ 전문성 부족
- ⑤ 조사기간(시간) 불충분
- ⑥ 기타 (구체적으로 :)

문21.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제언은 충분히 환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않다
- ② 별로 그렇지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⑤ 모르겠다

문21-1. ① 혹은 ②를 선택하신 경우,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제언은 충분히 환류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체계적인 환류 메커니즘의 부재
- ② 기존 제언과 유사
- ③ 제언 구체성 부족

- ④ 환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⑤ 환류의 시의적절성 부족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D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년도 : 년 → 세

D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 ② 전문대학 졸업
- ③ 대학(4년제) 졸업
- ④ 대학원 석사 졸업
- ⑤ 대학원 박사 졸업

DQ4. 귀하는 지난 1년 간 기부단체에 금전적 기부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DQ5. 귀하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수행 능력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③ 약간 만족한다
- ④ 매우 만족한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